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 사 학 위 논 문

한국전통정원의 풍수지리적 해석과
현대적 응용에 관한 연구

2013년



HANSUNG
UNIVERSITY

한성대학교 부동산대학원

풍 수 지 리 전 공

오 성 탁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박시익

한국전통정원의 풍수지리적 해석과 현대적 응용에 관한 연구

A Feng-Shui study on Korean traditional garden and
modernistic application

2012년 12월 일

HANSUNG
UNIVERSITY

한성대학교 부동산대학원

풍수지리전공

오성택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박시익

한국전통정원의 풍수지리적 해석과 현대적 응용에 관한 연구

A Feng-Shui study on Korean traditional garden and
modernistic application

위 논문을 부동산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부동산대학원

풍수지리전공

오성택

오성택의 부동산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2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국 문 초 록

한국 전통정원의 풍수지리적 해석과 현대적 응용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부동산대학원
풍수지리전공
오 성 탁

풍수란 땅과 공간의 활용에 관한 동양의 전통적인 자연환경의 해석논리로서 자연과의 조화를 통해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상이다. 풍수는 크게 양택풍수와 음택풍수로 구분되며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 도참사상의 영향으로 궁궐과 사찰, 그리고 주거지의 택지(擇地)에 관한 양택풍수를 중심으로 이론연구와 적용이 이루어 졌다. 조선시대로 오면서 궁궐과 상류층 민가주택, 그리고 서원과 사찰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정원양식이 출현하면서 정원조영에 전통사상과 함께 풍수지리 이론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였다.

정원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각 나라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그 시대의 문화와 사상이 종합적으로 응집된 종합적인 자연 예술이다. 따라서 시대적 문화와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통정원의 공간구조와 조성원리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삼국시대부터 궁궐을 중심으로 상당한 수준의 정원문화가 발달하였고 정원조영에 신선사상을 비롯한 다양한 전통사상이 반영 되었다. 한국의 전통정원의 조원사상과 배경을 살펴 본 결과 한국의 전통정원 조성에 있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중심적 사상과 조원원리는 풍수지리 사상과 음양 오행원리이다.

전통정원의 유형별로 조원의 배경사상과 원리를 살펴보면 궁원과 민가정원에는 풍수사상과 음양오행사상이, 별서정원은 신선사상이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서원정원에는 풍수사상과 유교사상, 사찰정원에는 불교적 정토사

상과 풍수지리이론이 주로 적용 되었다. 오늘날 풍수지리이론이 정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그 이론의 유용성을 인정받아 많은 부분에서 풍수이론의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전통정원의 건축물과 정원의 공간구조와 기법, 그리고 그 배경사상과 원리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전통계승의 차원에서 전통정원의 재현과 응용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와 응용사례들을 찾아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통정원의 공간구조와 구성요소에 대한 풍수적 해석을 통하여 친환경 자연관에 바탕을 두고 있는 전통정원의 생태적 가치와 의미를 찾아보고 아울러 풍수지리가 생태정원의 설계에 있어 이론적 토대와 실질적인 디자인 툴로서 사용 가능함을 보여 주고자 하였다. 연구의 진행과정은 먼저 전통정원의 유형별로 대표적인 정원을 선택하여 정원의 공간구조와 조영요소를 살펴보고 그 안에 어떤 사상과 풍수원리가 반영되어 있는지 현장답사와 기존의 연구문헌을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전통정원은 첫째, 정원의 유형과 형태에 관계없이 생태적 조원기법을 토대로 자연에 대한 순응과 조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생태적 사유(思惟)와 자연 질서에 대한 동화(同化)를 기본목적으로 조성되었다. 둘째, 전통정원의 조원원리와 배경사상은 전통적 자연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풍수지리와 음양오행원리가 중심원리로 적용되었다. 셋째, 풍수는 자연을 의인화 하여 살아 있는 생명체로 인식하는 이론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자연경관을 이루고 있는 자연구성 요소를 생태적 관점에서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환경관리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풍수지리의 자연관은 전통정원에 반영된 풍수이론과 원리를 오늘날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생태적 환경설계의 이론적 토대와 설계 tool로서 적극 활용해야 한다. 아울러 풍수지리 이론의 합리성과 적합성을 확보하고 풍수지리가 동양의 전통적인 환경심리학이며 자연지리과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변화와 더불어 체계적인 이론의 정립과 실증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주요어】 풍수지리, 생태풍수, 전통정원, 전통자연관, 환경과학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3
제 2 장 풍수지리이론과 전통정원 고찰	6
제 1 절 풍수지리의 이론적 고찰	6
1. 풍수의 정의와 목적	6
2. 주요 풍수용어 해설	6
3. 풍수의 기본원리와 체계	8
4. 풍수의 이론적 배경 및 기본사상	9
5. 풍수지리의 주요이론과 풍수요소	14
6. 8 방위와 오행색채	32
제 2 절 한국전통정원에 대한 고찰	33
1. 한국정원의 역사	34
2. 한국전통정원의 특징과 배경사상	38
3. 한국전통정원의 기본원리	42
4. 한국전통정원의 구성요소	45
5. 한국전통정원과 동·서양정원의 비교	54
제 3 장 한국전통정원의 풍수해석	57
제 1 절 궁궐정원	57

1. 경복궁	58
2. 창덕궁	64
3. 창경궁	71
제 2 절 민가정원	75
1. 선교장	75
2. 김동수 가옥	78
3. 운조루	79
제 3 절 별서정원	81
1. 부용동 정원	81
2. 서석지	83
3. 독락당	85
제 4 절 사찰정원	86
1. 선암사	87
2. 실상사	89
3. 송광사	90
제 5 절 서원정원	93
1. 도산서원	93
2. 병산서원	95
3. 소수서원	97
제 6 절 소결	100
제 4 장 한국전통정원의 현대적 응용	102

제 1 절 국내 전통정원 사례	102
1. 회원	102
2. 덕평 휴게소	104
3. 삼성전자 기흥공장	105
4. 청계천과 탄천	107
5. 아파트 정원	108

제 2 절	해외 전통정원 사례	109
1.	프랑스 파리 서울정원	109
2.	후쿠오카 한국정원	110
3.	프랑크푸르트 한국정원	110
4.	카이로 한국정원	111
5.	해동 경기원	112
제 3 절	전통정원의 현대적 응용과 과제	113
1.	오용(誤用)사례	113
2.	전통정원의 현대적 과제	116
제 5 장	결론	118
참고문헌		122
ABSTRACT		126



【 표목차 】

[표 2-1]: 오제의 위치와 역할	10
[표 2-2]: 오행의 성질과 의미	12
[표 2-3]: 사신사의 종류와 의미	17
[표 2-4]: 오행산의 기운과 형태	21
[표 2-5]: 비보의 유형별 수단과 풍수적 기능	27
[표 2-6]: 시대별 한국 전통정원의 특징과 배경사상	37
[표 2-7]: 방위에 따른 수목의 식재	52
[표 2-8]: 식재장소에 따른 의기(宜忌)	53
[표 2-10]: 동서양의 정원설계 원리 및 기법비교	56
[표 3-1]: 궁궐정원의 풍수해석 요약	74
[표 3-2]: 선교장의 풍수 식재 현황	77
[표 3-3]: 민가정원의 풍수해석 요약	80
[표 3-4]: 서원의 풍수해석 요약	99
[표 3-5]: 한국 전통정원의 유형별 특징과 풍수해석 요약	101
[표 5-1]: 정원유형별 풍수이론 활용도 분석	118
[표 5-2]: 전통정원에 대한 풍수해석 요약	120

【그 립 목 차】

〈그림 2-1〉 : 명당도	7
〈그림 2-2〉 : 서울의 지세도	7
〈그림 2-3〉 : 혈의 종류	7
〈그림 2-4〉 : 태극과 팔괘	11
〈그림 2-5〉 : 오행의 상생과 상극	12
〈그림 2-6〉 : 오행의 색상과 방위	12
〈그림 2-7〉 : 명당과 바람	16
〈그림 2-8〉 : 사신사와 바람	17
〈그림 2-9〉 : 사신사의 반사경 작용	18
〈그림 2-10〉 : 득수의 형태	19
〈그림 2-11〉 : 물형의 사례	22
〈그림 2-12〉 : 용맥비보 사례	24
〈그림 2-13〉 : 비보숲(옷골마을)	25
〈그림 2-14〉 : 수구막이 사례	25
〈그림 2-15〉 : 건물공간의 장풍비보	25
〈그림 2-16〉 : 수목에 의한 기 흐름의 변화	32
〈그림 2-17〉 : 사정방(四正方)과 8방의 색상	33
〈그림 2-18〉 : 천지인의 공간적 영향	43
〈그림 2-19〉 : 이황의 천원지방의 원리도	43
〈그림 2-20〉 : 환경순환이론과 기 감응론 체계도	45
〈그림 2-21〉 : 수목을 이용한 명당 만들기	54
〈그림 2-22〉 : 이상적인 수목배치도	54
〈그림 3-1〉 : 경복궁 주요 배치도	59
〈그림 3-2〉 : 경복궁 풍수 지세도	59
〈그림 3-3〉 : 창덕궁 배치도	65
〈그림 3-4〉 : 창덕궁 풍수지세도	65
〈그림 3-5〉 : 연경당 배치도와 수목식재	70

〈그림 3-6〉 : 창경궁 배치도	72
〈그림 3-7〉 : 창경궁의 풍수 지세도	72
〈그림 3-8〉 : 선교장 배치도	76
〈그림 3-9〉 : 선교장의 풍수지세도와 백호비보	77
〈그림 3-10〉 : 김동수 가옥 배치도	78
〈그림 3-11〉 : 김동수 가옥 풍수 지세도	78
〈그림 3-12〉 : 윤조루 배치도	79
〈그림 3-13〉 : 윤조루의 풍수 지세도	79
〈그림 3-14〉 : 부용동 배치도	82
〈그림 3-15〉 : 부용동의 풍수 지세도	83
〈그림 3-16〉 : 서석지 배치도	84
〈그림 3-17〉 : 서석지의 풍수 지세도	84
〈그림 3-18〉 : 독락당 배치도	85
〈그림 3-19〉 : 독락당의 풍수 지세도	86
〈그림 3-20〉 : 선암사 배치도와 장풍배치	88
〈그림 3-21〉 : 선암사의 풍수 지세도	89
〈그림 3-22〉 : 실상사의 풍수 지세도	90
〈그림 3-23〉 : 송광사 배치도	91
〈그림 3-24〉 : 송광사의 풍수 지세도	91
〈그림 3-25〉 : 도산서원 배치도	94
〈그림 3-26〉 : 도산서원의 풍수 지세도	95
〈그림 3-27〉 : 병산서원 배치도	96
〈그림 3-28〉 : 병산서원의 풍수 지세도	97
〈그림 3-29〉 : 소수서원 배치도	98
〈그림 3-30〉 : 소수서원의 풍수 지세도	99
〈그림 3-31〉 : 소수서원의 장풍배치 사례	99
〈그림 4- 1〉 : 희원의 배치도	102
〈그림 4- 2〉 : 삼성전자 기흥공장의 풍수 지세도	106
〈그림 4- 3〉 : 파리 한국 전통정원 배치도	109

【 사진목차 】

〈사진 2-1〉 : 돌담비보 사례	24
〈사진 2-2〉 : 용맥비보 사례	24
〈사진 2-3〉 : 득수비보 사례(밀양시 다원)	26
〈사진 2-4〉 : 석지에 의한 득수비보	26
〈사진 2-5〉 : 광한루 연못가의 돌거북과 토끼	42
〈사진 2-6〉 : 삼합에 따른 경석의 배치사례	44
〈사진 2-7〉 : 창덕궁 후원의 화계와 석단	47
〈사진 2-8〉 : 한국의 전통담장	47
〈사진 2-9〉 : 석교와 홍예교	48
〈사진 2-10〉 : 아미산 십장생 굴뚝	48
〈사진 2-11〉 : 무기연당의 방지와 경복궁의 향원지	49
〈사진 2-12〉 : 전통정원의 폭포	50
〈사진 2-13〉 : 전통정원의 괴석	50
〈사진 2-14〉 : 전통정원의 석조, 석분, 석지	51
〈사진 3- 1〉 : 경복궁 월대와 드므	60
〈사진 3- 2〉 : 경복궁 금천교와 서수	61
〈사진 3- 3〉 : 아미산 연가와 십장생	62
〈사진 3- 4〉 : 경복궁 열주와 해태상	62
〈사진 3- 5〉 : 경희루지의 방도(方島)와 향원지의 원도(圓島)	63
〈사진 3- 6〉 : 향원지 열상진원(列上眞源)	64
〈사진 3- 7〉 : 대조전 굴뚝	66
〈사진 3- 8〉 : 대조전 후원 화계	66
〈사진 3- 9〉 : 옥류천 곡수거와 폭포	67
〈사진 3-10〉 : 창덕궁의 금천교와 서수	67
〈사진 3-11〉 : 자경전 후원의 반달담장	68
〈사진 3-12〉 : 창덕궁 후원의 취병	68
〈사진 3-13〉 : 창덕궁 부용지와 병옥지	69

〈사진 3-14〉 : 연경당 앞의 연못과 금천교	70
〈사진 3-15〉 : 연경당의 느티나무와 석조	71
〈사진 3-16〉 : 통명전 방지와 어정	73
〈사진 3-17〉 : 통명전 석교	73
〈사진 3-17〉 : 독락당 살창	86
〈사진 3-18〉 : 선암사 승선교	89
〈사진 3-19〉 : 실상사 방지와 원형탑	90
〈사진 3-20〉 : 송광사 계담과 석조	92
〈사진 4-1〉 : 희원 연못의 입수처리와 화계	103
〈사진 4-2〉 : 희원의 비보탑과 월대	103
〈사진 4-3〉 : 희원의 정원수와 석가산	104
〈사진 4-4〉 : 삼재사상에 따른 경석배치	104
〈사진 4-5〉 : 덕평 휴게소의 방지방도와 계류	105
〈사진 4-6〉 : 삼성전자 기흥공장 정문의 비보수	107
〈사진 4-7〉 : 청계천과 탄천의 판석보	107
〈사진 4-8〉 : 양주자이 아파트 수변정원	108
〈사진 4-9〉 : 경주교원 드림센타의 곡수거	108
〈사진 4-10〉 : 파리 한국정원의 전통담장과 괴석	109
〈사진 4-11〉 : 후쿠오카 한국정원의 출입문과 담장	110
〈사진 4-12〉 : 프랑크푸르트 한국정원	111
〈사진 4-13〉 : 프랑크푸르트 한국정원의 방지원도	111
〈사진 4-14〉 : 카이로 한국정원의 방지원도와 연가	112
〈사진 4-15〉 : 해동경기원의 방지와 세종루	113
〈사진 4-16〉 : 해동 경기원 일주문	114
〈사진 4-17〉 : 해동 경기원 점경물	114
〈사진 4-18〉 : 담장비교(해동 경기원 vs 창덕궁 후원)	114
〈사진 4-19〉 : 방지원도 식재 비교(해동 경기원 vs 부용정)	115
〈사진 4-20〉 : 아파트 입구의 침형 조형물	116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풍수란 말 그대로 ‘바람’과 ‘물’이라는 뜻으로 땅과 공간의 해석과 활용에 대한 동 아시아의 오랜 전통적인 사상으로 경험적 자연관에 기초를 두고 있다. 자연환경에 적응하며 자연과의 조화를 통하여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자 했던 우리 선조들은 주거지의 선택에서부터 건축물의 구조와 공간 배치에 있어 풍수지리와 음양오행원리를 안락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로 활용하였다. 특히 건축물과 더불어 정원은 환경심리학적 측면에서 인간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요소로 많은 동서양의 조원가(造園家)들이 정원주(庭園主)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작정(作庭)이론과 기법을 개발해 왔다. 우리나라의 전통정원은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어 산수의 조화를 중시하는 풍수지리사상이 자연스럽게 전통정원의 중심배경사상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자생풍수라 불리는 우리나라의 풍수는 친환경적 생태원리에 기초를 두고 자연에 순응하고자 하는 우리의 전통적 환경관이며 철학으로서 우리나라 전통정원과 풍수지리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전통정원은 기본적으로 자연환경에 순응하도록 설계되고 조영(造營)되었으며 식물의 배치와 조형물의 배치에 이르기까지 풍수지리 사상과 전통사상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화와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한정된 토지와 환경제약 때문에 인간이 소외되고 경제적 측면만을 강조한 결과 정원과 생태적 환경조성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약화 되었다. 한편, 정원조원에 있어서도 생태적 자연관을 토대로 하지 않고 경관만을 중시한 나머지 음양의 조화는 물론 자연과의 조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전통정원을 표방하는 현대적 재현 현장에서는 미적경관 위주로 이뤄지고 있어 전통사상과 원리를 바탕으로 한 전통정원의 재현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풍수지리의 주요 핵심이론을 현대적 관점에서 재해석 하고 ‘자연과 인간의 상생공존’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전통정원에 대해 풍수적 해석과 더불어 생태적 가치와 의미를 찾아보고 풍수지리이론과 원리가 현대적 환경설계에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이론적 적합성을 가지고 있음을 찾고자 하였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위해 풍수지리학의 주요 핵심이론에 관해서 고전과 원서 및 번역서, 관련 연구논문 및 문헌조사를 실시하고 전통정원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대표적인 정원에 대한 풍수이론 적용사례를 연구하였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연구방법은 풍수이론에 대한 세밀한 이기론적 접근을 지양하고 형기론적 입장에서 풍수지리 사상과 원리가 전통정원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연관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답사와 기존의 전통정원에 대한 기존의 연구논문 또는 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전통정원의 물리적 범위는 경관목적을 가지고 조성된 자연공간은 물론 정주공간(定住空間)내의 건축물, 다리, 점경물등의 정원을 구성하는 요소를 포함하였다.

연구대상의 전통정원은 유형별로 풍수적 관점에서 의미가 있는 대표적인 정원을 3-4개로 선정하여 역사와 특징을 살피고 해당정원의 공간구조와 구성요소에 담겨있는 풍수지리 원리와 해석을 시도하였다.

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70년대 후반, 풍수지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문헌과 사례연구를 통하여 다방면에 걸쳐 많은 풍수지리 논문이 발표 되었다. 초기에는 음택 풍수이론과 입지론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 풍수원리의 현대적 해석과 응용에 관한 연구가 부동산, 주택, 건축, 생태, 조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개되어 오고 있으며 응용분야가 확대되고 있다.

전통정원에 대한 연구는 전통조경 요소와 기법의 현대적 적용에 대한 많은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연구 내용면에서는 전통정원에 대한 조원원리와 배경사상에 대한 연구보다는 조경학적 관점에서 전통조경의 양식과 요소에 대한 분석과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뤄졌다.

최근에는 풍수이론이 생태적 환경이론으로서의 가치가 부각되면서 풍수지리의 환경관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전통정원의 구성 원리와 기법의 생태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주요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최석(2004)은 한국 전통조경양식에 나타난 설계언어를 언어적으로 해석하여 오늘날 현대적 정원 설계에 있어 전통의 의미인식을 통해 전통요소를 올바르게 도입,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¹⁾

백미나(2001)는 풍수이론을 비교분석하여 현대적 활용가능성을 검증하고 현대정원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풍수이론을 정원설계의 기법으로 체계화하여 이를 적용한 정원 설계사례를 제시하여 풍수이론의 실제적용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²⁾

강상욱(2000)은 전통조경의 구성원리와 요소에 대해 이론적 분석을 하고 전통정원의 대표적 사례인 소쇄원과 창덕궁 후원에 대해 조경공간을 분석하고 전통공간 구성원리를 적용한 현대적 공간모델을 제시하고 있다.³⁾

문정권(2009)은 전통원리의 현대적 접근은 전통의 모방이 아니라 전통에 대한 기본원리를 바르게 해석하고 재창조를 통해서 현대적 조경계획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풍수이론이 조경계획에 다루는 설계개념과 유사성이 있고 현대적 설계언어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고 현대적 공원계획의 설계에 있어 풍수적인 개념을 반영한 공원설계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⁴⁾

문홍(2001)은 정원을 조영함에 있어 풍수지리 관련된 요소들을 분류, 검토하여 그들이 지닌 문화적, 과학적, 실용적 가치를 학문적으로 접근하여

1) 최석, 「한국전통조경양식에 나타난 설계언어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연구」, 동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2) 백미나, 「풍수이론을 활용한 정원설계 기법개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3) 강상욱, 「전통문화의 현대적 계승에 의한 조경설계기법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4) 문정권, 「풍수이론을 적용한 도시공원계획」, 진주산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정원계획 또는 디자인에 있어 과학적인 원칙에 따른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정원조성에 있어 조경요소들을 풍수학 이론에 근거하여 공간에 배치하되 생태와 자연규칙에 부합되고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돕도록 조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5)

심재열(2010)은 풍수적 요인들이 입지선정에서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으며 입지선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며 풍수지리를 적극 활용하여 인간과 도시와 자연이 함께 어우르는 상생공존의 미래지향적이고 생태보전적인 친환경 개발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6)

문인곤(2001)은 생태적 도시건설을 위해서 자연의 인위적인 변형을 최소화하여 최대한 자연상태를 유지하며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면서 신도시 개발에 있어 풍수지리의 이론을 활용하여 생태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7)

이 외 풍수와 관련된 전통조경(정원)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연구자	년도	논문제목	연구내용
김수진	1990	전통조경요소의 현대적 적용과 해석에 관한 연구	전통조경요소가 현대적인 적합성을 가지고 있으며 풍부한 의미와 상징을 제공한다고 전제하고 역사적 기념공원 사례에 대해 표현 방법을 연구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함
조성국	1991	풍수지리설이 전통정원과 도시 입지선정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궁궐, 동헌을 중심으로)	전통마을과 궁궐조성에 풍수이론이 어떻게 적용되고 응용 되었는지 사례연구를 통하여 풍수지리설의 영향을 분석함
고영민	1991	풍수지리학을 통하여 본 환경관	풍수지리 사상이 인간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례와 한국인의 환경관의 바탕은 풍수지리사상임을 주장
이규홍	2002	풍수지리에 담긴 환경관 해석	전통마을의 공간의 특성을 풍수지리적 관점에서 분석 및 풍수지리의 환경관 해

5) 문홍, 「중국과 한국의 정원풍수에 관한 비교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6) 심재열, 「풍수사상의 입지선정 영향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7) 문인곤, 「생태도시 개발의 풍수지리적 연구」, 동방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석함
현영조	2002	풍수지리 관점에서 본 생태공간 해석에 관한 연구	풍수생태도시를 만드는데 전통적 토지이용방법인 풍수지리와 생태도시이론을 접목하여 풍수생태공간을 창조하는 이론 제시함.
장북	2009	한국의 전통정원에 대한 연구	한국의 전통정원의 특징과 구성요소를 정원의 유형별(궁궐, 민가, 별서)로 구분하고 조경학 관점에서 공간구성의 원리와 조영기법에 대해 분석함
최준호	2003	풍수지리 이론에 나타난 친환경적 요소의 실증적 해석과 그 적용에 대한 연구	풍수지리의 환경 친화적 요소를 생태환경 건축의 요소에 적용할 수 있는 디자인적 해법을 연구하고 현대의 주거단지에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시함.
소현수	2008	傳統景觀의 造營 원리에 대한 生態學的 해석	전통마을 주거건축과 전통경관의 조영원리를 사례분석을 통하여 생태학적으로 재해석하고 전통경관의 가치를 규명함.
김병주	2009	풍수로 본 한국 전통마을의 생태적 환경 친화성	한국전통마을의 생태적 환경 친화성을 분석하는 이론적 도구로 풍수를 활용하여 풍수의 생태계획이론으로서의 역할과 의미를 전통마을 사례를 통하여 연구함.

이상 살펴본 선행연구와 비교했을 때 본 논문의 차별성은 전통정원의 구성요소와 공간구조에 대해 전통정원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풍수적 해석을 시도하였고 연구의 실증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장답사는 물론 관련문헌 연구와 사례분석중심의 연구이다. 아울러 풍수이론이 오늘날의 생태환경 조성에 기본이론으로서의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실증적 사례를 통하여 분석하고 풍수이론의 현대적 응용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 2 장 풍수지리 이론과 전통정원 고찰

제 1 절 풍수지리의 이론적 고찰

1. 풍수의 정의와 목적

풍수는 우리 조상들이 오랫동안 쌓아 온 땅에 대한 깨달음과 자연에 대한 세심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만든 삶의 지혜이다. 풍수는 기(氣)라는 우주적 환경의 흐름에 따르면서 지리, 기후 등의 환경 요인과 인간의 거주적 환경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인가에 관심을 둔다. 좁은 뜻으로 해석하면 주거의 입지선택이라고 할 수 있고 넓은 뜻으로 해석하자면 인간과 환경의 관계설정 방식을 설명하는 체계 또는 자연에 대한 해석 체계라 할 수 있다.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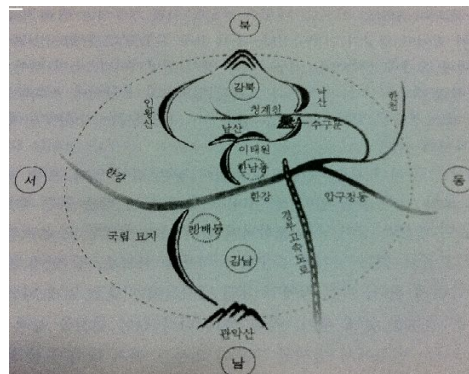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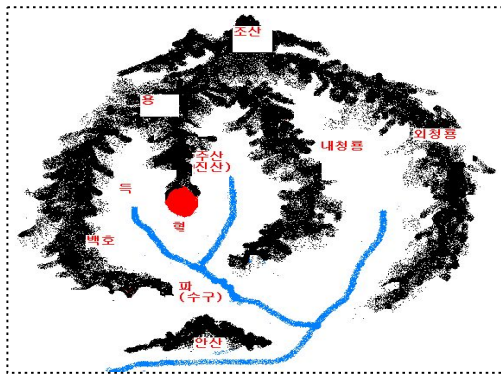
풍수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자연현상, 즉 바람과 물의 운동을 관찰하여 좋은 땅과 나쁜 땅을 감별하여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생활함에 있어 해를 입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데 있다. 우주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가정 하에 땅의 변화현상을 오행과 풍수이론에 따라 해석하고 감별하여 인간의 거주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데 풍수의 목적이 있다. 한편, 조상의 묘를 땅의 생기가 흐르고 충만한 곳에 안장하여 그 영혼이 편안히 쉴 수 있게 함으로써 후손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풍수의 또다른 목적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2. 주요 풍수용어 해설

명당(明堂): 이상적인 환경의 요건을 갖춘 풍수적 길지(吉地)를 뜻하는 것으로 집터인 경우에는 주건물의 전방, 뒷자리인 경우는 무덤 앞에서 안산과의 공간을 말하여 좌청룡, 우백호에 둘러싸인 부분을 말한다.

8) 최창조, 『새로운 풍수이론』, 민음사, 2009, p.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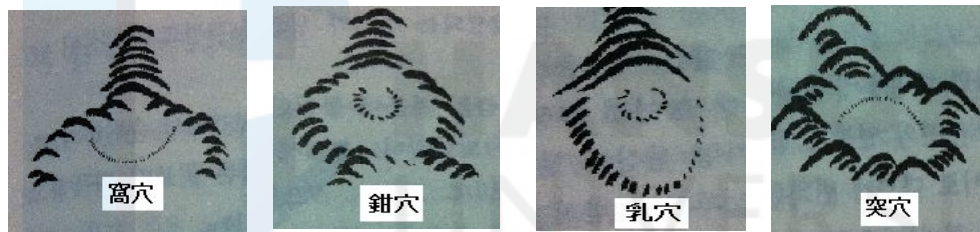
용(龍): 산을 총칭하는 것으로 높이 솟아 있는 땅을 의미. 용은 유기무형(有氣無形)하나 변화무궁하여 용에 비유하고 있다.



〈그림 2-1〉 (좌): 명당도

〈그림 2-2〉 (우): 서울의 지세도⁹⁾

혈(穴): 음기와 양기가 합하여 생기가 응혈되어 있는 곳으로 혈의 모양에 따라 와(窩)혈, 꺾(鉗)혈, 유(乳)혈, 돌(突)혈 4 가지로 분류한다.



〈그림 2-3〉 : 혈의 종류¹⁰⁾

사(砂): 혈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4방위의 산을 말한다. 혈의 앞쪽을 주작(朱雀), 뒤쪽을 현무(玄武), 오른쪽을 백호(白虎), 왼쪽을 청룡(靑龍)으로 구분하다. 풍수적으로 현무는 장엄한 모습이 좋고 주작은 현무를 향하여 다소곳이 엎드린 형태가 좋고 청룡은 구렁이가 꿈틀거리고 백호는 호랑이가 쭈그리고 앉아 혈을 향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9) 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 1999, p.103

10) 상계서, p.129

수(水): 음양의 기가 융결하여 산이 되고 물이 된다. 음양이 만나면 생기를 이루기 때문에 산수가 만나는 지점에 일반적으로 명당이 형성된다. 풍수지리에서 수(水)는 양(陽)으로 분류하여 물의 흐름을 해석한다.

국(局): 혈(穴)과 사(砂)가 합한 곳으로 양기나 음택이 하나의 풍수적 형상을 이룬 것을 말한다.

주산(主山), 진산(鎭山): 혈(묘, 집터) 뒤에 높게 솟은 산을 말하며 양택에서서는 주산을 진산이라 부르기도 한다.

조산(祖山), 안산(案山): 혈(묘, 집터) 맞은편 가까이 있는 산을 안산이라고 하고 안산넘어 보이는 산을 주산이라 한다. 산의 형태에 따라 5가지(목, 호, 토, 금, 수산)로 분류하는데 안산의 형태에 따라 기운이 달라지며 길흉화복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득과(得破), 득수(得水): 국(局)을 이루는 물이 시작하는 것(흘러오는 것)을 득(得)이라 하고 흘러나가는 것을 파(破)라고 한다.

수구(水口): 물이 빠져 나가는 곳을 의미한다. 인체로 치면 득은 입이요 파는 대장이며 수구는 항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풍수적으로 수구가 좁게 형성되어야 좋다

3. 풍수의 기본원리와 체계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서 인간의 기본 욕구인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자 살고 있는 ‘터’ 즉 인간을 둘러싼 자연환경에 대한 해석과 연구가 자연스럽게 이뤄지게 되었다. 풍수지리에서의 풍수는 장풍득수(藏風得水)의 줄임말로 바람을 감추고 물을 얻는다는 뜻의 사전적 해석으로 이해되지만 그 이론의 논리적 체계를 보면 풍(風)과 수(水)는 인간이 생활하는 환경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라 할 수 있으며 풍수는 이 두가지 요소에 대한 심리적 해석과 생태적 적응에 대한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지리심리학이라 볼 수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우주는 일정한 법칙과 순리에 따라 끊임없이 움직이며 변화한다. 풍수의 고전이라 일컫는 청오경(靑鳥

經)과 금낭경(金囊經)의 두 문헌에 나타난 공통적인 내용에 따르면 땅 속에는 오행의 기(氣)인 생기(生氣)라는 보이지 않은 기(에너지)가 흐르고 있으며 이 기의 상생상극작용에 의해 바람, 구름 또는 비가 되기도 하는데 이것이 땅속을 흘러 갈 때에 만물을 낳는 생기가 생기게 된다. 만물은 이 생기에 따라 그 정교함을 달리하며 성쇠의 차이를 가져오는데 11) 동일한 생기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만물은 또 제각기의 특색과 운명을 가지게 된다. 우주의 삼라만상은 음양이라는 양기(兩氣)가 5기(木火土金水)로 되어 활동함으로써 비로소 생긴다고 한다. 사람도 이 정기(精氣), 즉 생기에 의해 태어나며 삶을 유지하고, 생기의 유무와 다소(多少)에 따라 운명을 달리 한다. 이와 같은 운명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생기를 만들어 내는 자연환경(땅, 물, 바람)을 인위적으로 관리 하여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게 풍수의 목적이자 핵심이다.

따라서 이러한 생기의 흐름을 풍수적으로 분석하여 생기의 유무를 확인하고 그 내왕(來往)의 움직임을 관찰하여 생기가 충만한 땅을 찾아 거기에 산 자의 주거지와 죽은 자의 거처(묘지)를 정하면 생기를 받을 수 있고 좋은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는 것이 풍수의 기본원리이며 생기가 가장 충만한 곳, 즉 진혈(眞穴)을 찾는 것이 풍수의 목적이다. 이러한 생기가 충만한 곳을 찾아내는 풍수의 이론으로 간룡법(看龍法), 장풍법(藏風法), 득수법(得水法), 정혈법(定穴法), 좌향론(坐向論), 형국론(形局論)등의 이론이 있으며 전통정원 조원에 주로 적용된 풍수이론은 좌향론, 장풍법, 득수법, 비보론(裨補論)이다.

4. 풍수의 이론적 배경 및 기본사상

1) 삼신오제 사상

고대인들은 하느님을 숭배하며 하느님을 조물주로서 모든 인간과 자연을

11) 문정권, 「풍수이론을 적용한 도시 공원계획」, 진주산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p.15

창조하는 유일한 신으로 믿었다. 하느님이 창조하는 작업은 삼신(三神)을 통해 이루어지며 삼신은 하느님을 대신해서 사람의 생사와 관련된 역할을 한다는 사상이다. 삼신사상에서는 유교에서 주장하는 현실세계와 불교에서 주장하는 마음, 곧 영혼의 세계, 그리고 신선 사상에서 주장하는 인간과 영혼의 합일 사상들이 포함되어 있다. 삼신사상에 따르면 현실세계는 영혼의 세계와 직결되어 있다고 해석한다.¹²⁾

삼신사상에는 유교, 불교, 신선사상의 세 가지 종교이론이 결합되어 있으며 삼신은 생명체를 이루고 분해하는 조화의 힘을 갖고 있다고 믿어진다. 우리나라의 옛 건축물, 특히 대부분의 연못에는 삼신 사상인 표현되어 있는데 경복궁 경회루, 남원 광한루, 경주 안압지등에 조성된 연못 내부에는 세 개의 인공 섬이 만들어져 있다. 이것은 곧 삼신을 뜻하는 것으로서 봉래산, 방장산, 영주산의 이름을 붙여 놓고 있다.

한편, 오제(五帝)는 하느님을 도와주는 다섯 신으로서 동·서·남·북·중앙의 위치에서 우주 삼라만상을 관리한다.

[표 2-1]: 오제의 위치와 역할¹³⁾

오제	위치	역할	오성
청제(靑帝)	동쪽	태양이 솟아오르는 기운 주관	목성
주제(朱帝)	남쪽	청제가 만든기운을 널리 확산시키는 기운 주관	화성
백제(白帝)	서쪽	주제가 확산시킨 생명체의 확산기운을 정지하여 힘을 모으는 기운 주관	금성
현제(玄帝)	북쪽	생명체를 편하게 쉬게하는 기운 주관	수성
황제(皇帝)	중앙	사방의 기운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기운 주관	토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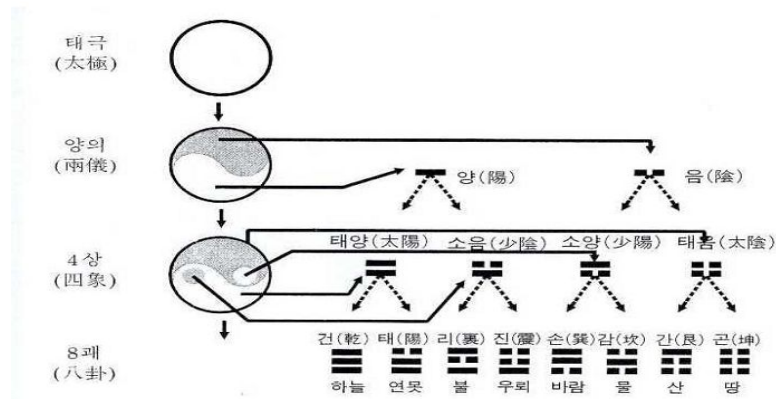
2) 태극사상

태극의 태(太)자는 ‘클 태, 쿵 태, 처음 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극(極)자는 ‘끝 극, 멀 극, 텅어리 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큰 대(大)자 밑에 점이 하나 있는 것은 하나의 씨앗이 자라나서 일정한 크기만큼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고 나무 목(木)자 옆에 빠를 극, 어느덧 극(極)을 붙인 것은 성

12) 박시익, 전계서, p.42

13) 상계서, pp.44-45 참고로 재구성

장한 후에 씨앗을 맺어 다시 순환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즉 태극이라는 글자는 순환운동을 하는 자연의 모습을 축약시켜 놓은 상형문자라고 할 수 있다. 자연계의 모든 생명체가 사라져가듯이 세상의 모든 것은 끝없는 순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¹⁴⁾



〈그림 2-4〉 : 태극과 팔괘¹⁵⁾

3) 음양오행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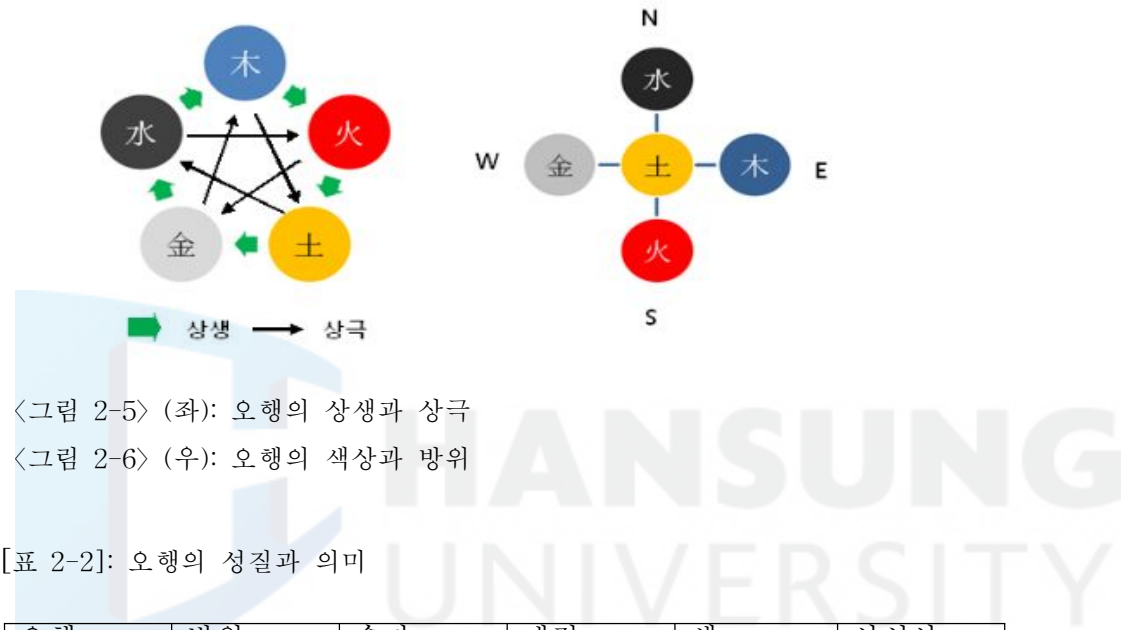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은 우주만상의 원리와 현상에 대한 동양철학의 기본이론으로 음양설과 오행설의 두 철학이 결합되어 있다. 이 두 사상은 형이상학적으로 관계를 밀접하게 가지고 있으며 학설의 핵심개념은 기(氣)이다. 기에는 음기와 양기가 있으며 양기는 하늘에서 발생하는 기를 말하고 음기는 땅에서 발생하는 기를 말한다. 陰陽은 서로 한 요소를 보강하기도 하고 약화시키기도 하며 그들의 주기적 변화와 상호 보완 작용에 의해 세상도 변하기도 하고 세계의 질서가 성립되기도 한다.

오행의 기운은 수.화.목.금.토의 다섯 가지 기운이며 수는 물처럼 아래로 내려가는 기운이다. 겨울에는 온도가 아래로 내려가고 생명체는 활동력이 거의 정지된다. 이는 다음 기간까지 생명력이 준비를 갖추는 것을 뜻한다.

14) 문정권, 전계논문, p.18

15) 상계논문, p.16

목은 나무와 같이 수직상승하는 기운을 말하며 하늘로 올라가려는 성질이
고 사계절 가운데 봄에 해당한다. 화의 기운은 불꽃과 같이 기운이 사방팔
방으로 확산되어 폭발하는 힘을 말한다. 불은 힘이 격렬하게 분출되는 것
을 뜻하며 태양열 같은 성질이다. 금은 수축하는 기운과 올라가려는 성질
을 갖고 있으며 가을을 의미하고 움츠러 드는 현상을 갖고 있다. 토는 균
형을 나타내며 흙이 모든 생명체를 키우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
다섯 기운은 각각 고유한 성질을 갖고 있으면서 다른기운과 일정한 관계
를 유지하고 있다. 그 관계는 크게 상생과 상극으로 나뉜다.¹⁶⁾



〈그림 2-5〉 (좌): 오행의 상생과 상극

〈그림 2-6〉 (우): 오행의 색상과 방위

[표 2-2]: 오행의 성질과 의미

오행	방위	숫자	계절	색	사신사
水	북	1.6	겨울	검은색	현무
火	남	2.7	여름	붉은색	주작
木	동	3.8	봄	푸른색	청룡
金	서	4.9	가을	흰색	백호
土	중앙	5.10	환절기	노란색	사람

4) 역(易)사상

『주역』은 자연을 구성하고 있는 하늘과 땅을 대표하는 기운이 양과 음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음양사상을 구성하는 요소는 음의

16) 박시익, 전제서, p.48

기본이 되는 땅과 양의 기본이 되는 하늘 두 가지로 압축된다. 『주역』에서는 우주생명의 주인이며 원리를 태극이라 한다. 태극이 음양을 낳고 음양에서 하늘과 땅이 만들어졌으며 또 그 속에서 만물이 생겨 삼라만상이 나타나게 된다.¹⁷⁾

주역사상의 핵심은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변화를 생명의 창조과정으로 본다. 역(易)에서는 우주 삼라만상의 보편적인 운동법칙을 음양의 원리로 설명하고 있다. 서로 상반적 또는 상호 모순적 관계를 통하여 변화를 추구하며 상호 감응함으로써 조화되어 서를 완성시켜준다. 주역사상의 음양원리를 토대로 팔괘, 64괘로 발전되었고 이는 풍수지리의 팔 방위에 대한 풍수지리 논리의 근간이 되고 있다.

5) 천지정기(天地精氣)사상

천지정기사상은 천지(天地)에는 살아 움직이는 정기(energy)가 충만해 있으며 이 에너지는 산맥(용맥)을 타고 지하로 흐르기도 하고 바람과 물에 의해 끊임없이 이동하며 인간에게 심리적, 생리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이론이다. 천지간의 정기는 모든 땅에 고르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곳에서는 강하게, 어떤 곳에서는 약하게, 또 어떤 곳에서는 나쁜 기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6) 동기감응(同氣感應)사상

동기감응사상이란 같은 기운은 서로 느껴서 반응을 보인다는 이론으로서 조상의 기운과 후손의 기운이 서로 감응을 하면 ‘묘지(음택) 명당발복’이 이루어지고 주변의 기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과의 기운이 서로 감응을 하면 ‘양택명당발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¹⁸⁾

주자의 산릉의장(山陵議狀)에 따르면 “장사(葬事)를 잘 지낸다는 말은 유골을 잘 감춘다는 것이다 유골을 편안한 곳에 온전하게 모셔야 그 혼령이 편안하여 자손이 번창할 것이다.(葬之爲言藏也, 所以藏其祖考之遺體..使其形體全而神靈得安也, 則其子孫盛而祭祀不節).”라고 하였고¹⁹⁾ 청오경에서도 “인생백년에 죽음을 맞게되니...빠는 뿌리로 돌아 가는데 그 뼈가 길한

17) 박시익, 전계서, pp.52-53

18) 김두규, 『김두규 교수의 풍수강의』, 비봉출판사, 2008, p.98

19) 상계서, p.102

가운데 감응하면 많은 복이 사람에게 미칠 것이다. 사람은 부모에게서 몸을 받는다. 부모의 유해가 좋은 기(氣)를 얻으면, 그 남긴 바 몸인 자식은 음덕(陰德)을 받는다” 라고 하고 있다²⁰⁾.

동기감응설의 과학적 실험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같은 유전인자를 가진 사람끼리 기(氣)가 전달되고 서로 감응한다는 이론이다.²¹⁾

5. 풍수지리의 주요이론과 풍수요소

1) 주요이론 고찰

(1) 간룡법(看龍法)

용이란 산의 흐름, 즉 산줄기를 뜻하며 우주생기가 약동하며 산맥을 타고 흐르는 것을 말한다. 풍수에 있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용이다. 그 중에서 용이 살아 꿈틀거리는 형상의 살아있는 용인가 아니면 그냥 밋밋하게 뻗어 내리는 사룡(死龍)인가를 살펴야 한다. 변화 없이 밋밋하게 내려오는 산맥이 아니라 그림처럼 높낮이 차이가 있고 꾸불꾸불하게 굴곡을 가지고 내려오는 산맥이라야 생룡으로서 진혈(眞穴)을 맺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 이 때 산의 토색이 밝고 양명해야 하며 적황색 종류이면 좋고 검고 우중충한 느낌이 든다면 생룡이라 할 수 없다.

또한 태조산과 연결된 중심룡이 간룡(幹龍)인지 아니면 지룡(枝龍) 혹은 방룡(傍龍)인지를 살펴야 한다. 형세가 수려한 조종산(祖宗山)에서 힘차게 뻗어 내려온 것은 진짜 용이라고 하여 진룡(眞龍)이라 하고 중간이 끊어지거나 균형적인 아름다움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은 가룡(假龍)이라고 한다. 아울러 용의 모습이 웅장하고 빼어나면 귀룡(貴龍)이라 하고 그러지 못하고 세가 밋밋한 것을 충칭하여 천룡(賤龍)이라고 한다. 즉, 풍수의 가시적 실체인 산, 즉 용의 맥의 흐름의 좋고 나쁨을 조산으로부터 혈장까지 살펴는 일을 간룡법이라 한다.²²⁾

20) 김두규, 전제서, p.101

21) 정자를 추출하여 추출된 정자를 실험병에 담아 멀리 이격시킨 후 정자(精子)의 주인에게 물리적 충격(고통, 기쁨등)을 가한 결과 정자가 움직임을 보였다는 실험사례임.

간룡의 방법에 대해서 동곡(東谷)은 “용 속에는 감추어진 산의 정기 즉 지기가 유행(流行)하는 맥이 있어 간룡에서는 용을 체(體)로, 맥(脈)을 용으로 하여 그것을 찾는다. ...용은 형체가 현저(顯著)한 것이고 맥은 용의 속에 숨어 있는 기운을 의미한 것이기 때문이다. 고로 용이 있어야만 맥이 있고 맥이 없으면 시체와 같은 용이다”.²³⁾라고 하여 용속에 흐르는 맥을 찾는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박시익 박사는 간룡에 있어 중요한 것은 생기가 흐르는 산세의 흐름을 찾아내는 게 중요 하다고 보고 살아 있는 용처럼 산맥이 끊어지지 않고 생기가 넘치는 산세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2) 장풍법(藏風法)

천지의 정기는 바람을 따라 흘러들지만 이것을 타고 흩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모처럼 모여든 정기를 잡아 두려는 것이 장풍법이다. 이 때문에 바람을 막는다고(防風) 하지 않고 바람을 가둔다(藏風)고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산(砂)이 둘러 있어야 한다.²⁴⁾

장서(藏書)에 따르면 “기는 바람을 만나면 흩어지고 물을 만나면 멈춘다(氣乘風則散, 界水則止故謂之風水)”라고 하며, 기를 흩뜨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주위 사신사(현무, 주작, 백호, 청룡)가 유정하게 혈을 감싸고 있는 형국이 되어야 한다. 바람직한 사신사의 형상은 현무는 듬직한 모습이어야 하고 주작은 춤추듯 너울거려야 좋으며 청룡은 길게 뻗어서 앞으로 휘어들어야 하고 백호는 웅크린 자세라야 길하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신사로 현무를 들고 있으며 다른 말로 주산이라고도 한다.

장풍법의 요체는 불어나가는 바람을 막아 바람을 막아 저장하여 혈에서 부드러운 바람으로 순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장풍법은 凸의 형체로 다가오는 용을 凹형 지세로 받고 혈을 凹의 중앙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혈을 둘러싼 사방의 산을 사(砂)라 하는데 장풍법의 출발은 바로 사에서

22) 김대수, 「조경설계에서 풍수이론의 적요고찰」, 『해천대학 논문집』 Vol. 28(1), 해천대학, p.255

23) 동곡, 『地理學全書』, 易書普及社, 1979, pp.39-40

24) 무라야마, 村山智順 (정현우 역), 『한국의 풍수』, 명문당, 1996, p.67

시작되는 것이다.²⁵⁾

사격(砂格)은 명당의 전후좌우에 나열되어 있는 모든 산들로서 아름답게 보이는 산은 길사(吉砂)라 하고 아름답지 않게 보이는 산들은 흉사(凶砂)라 하는데 명산에서는 길사가 서로 조응(朝應)이 되고 흉산에는 흉사가 서로 상충하여 배반하고 있는 산을 사격(死格)이라 한다. 명당주변의 산세가 포근하게 혈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잘 감싸고 있는지 사신사의 구조를 살핀다.

장풍법은 명당주변의 산세와 국면을 살피는 것이기 때문에 입지결정에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된다. 간룡법이 매크로 스케일의 입지선정 기준이라면, 장풍법은 메조 스케일의 입지선정 기준이 된다. 흔히 사신사의 구조로 설명되는 명당을 일컬어 산하금대(山河襟帶), 산수금대(山水懷抱), 풍기밀집(風氣密集)의 땅이라고 한다. 이런 땅은 주산, 좌우의 용호, 안산과 조산의 구조가 어떠한 국(局)을 이루었는지 파악하는 것으로 명당의 조건을 검토한다.²⁶⁾



〈그림 2-7〉 : 명당과 바람²⁷⁾

사신사의 형태가 부족하거나 올바르게 이루어 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조산을 하거나 인공수림 (예, 마을숲)을 조성하여 보완, 차폐하기도 한다.

25) 무라야마, 전게서, pp.61-62

26) 한동환, 『풍수를 알면 삶의 터가 보인다』, 푸른나무, 1993, p.172

27) 박시익, 전게서, p.142



〈그림 2-8〉 : 사신사와 바람²⁸⁾,

[표 2-3]: 사신사의 종류와 의미²⁹⁾

구분	청룡(靑龍)	백호(白虎)	주작(案山)	현무(玄武)
방향	왼쪽	오른쪽	정면	후면
방위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상징	남자	여자	손님	주인
해석	귀(貴)	부(富)	사회적 능력	개인능력

사신사의 기능은 주룡에 있는 혈에 생기를 만드는 것이며 혈이나 명당은 사신사가 없으면 만들어 지지 않는다 그러나 사신사가 있다고 해서 모두 혈이나 명당이 되는 것이 아니다. 혈이나 명당에 생기가 만들어 지기 위해서는 사신사가 바람막이 기능을 하여 강하게 부는 바람을 약하고 부드러운 바람으로 순화시켜줘야 한다. 아울러 용호가 바람막이 기능을 하고 생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명당을 앞으로 해서 혈을 마주보고 있어야 한다.³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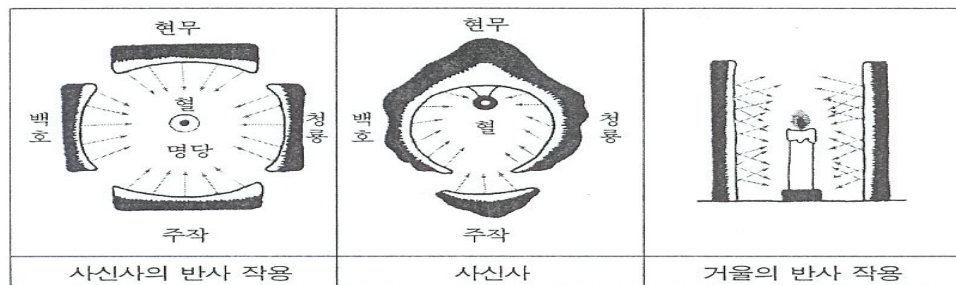
사신사의 두 번째 기능은 곡면 반사경 기능이다. 산, 나무, 강등 자연에 있는 모든 물체는 자신만의 빛을 가지고 햇빛이나 달빛을 반사한다. 태양과 달이 청룡과 백호를 비추면 그 빛의 일부는 반사되는데 이 때 반사된 빛이 한 지점에 모여 하나의 초점을 이루면 그 곳에 생기가 발생된다. 사신사의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은 볼록렌즈처럼 혈이나 명당으로 생기를

28) 박시익, 전제서 p.138

29) 김성수외1, 「주거용 부동산선정에 대한 양택 3대간법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도시계획학회지』 제41권 1호, 도시계획학회, 2006, p.103

30) 박시익, 전제서. p.142

모아주는 역할을 한다. 사신사의 이상적인 형태는 혈을 중심으로 둥글게 감싸고 있는 모양으로서 주위에 있는 생기를 모아 하나의 초점을 만들어 혈에 생기가 전달되어야 한다.³¹⁾



〈그림 2-9〉 : 사신사의 반사경 작용³²⁾

(3) 득수법(得水法)

풍수론에서 물은 명당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물이 있어야 명당의 형국을 이룰 수 있다. 명당을 둘러싸고 흐르는 물의 흐름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물의 규모나 흐름의 상태, 수질, 물이 흐르는 방위 등을 살핀다.³³⁾

득수법이란 물의 형세를 분석하여 혈을 찾고 음양의 조화와 길흉을 판단하는 이론이 득수법이다. 물은 원래 길고 꾸불꾸불하게 흘러야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길한 방위에서 나쁜 방향으로 흘러 나가야 좋다고 본다. 명당이 발생하려면 물의 흐름을 걷어 올리는 것처럼 주걱과 같은 지세여야 가능하며, 서울 청계천이 역수 지형의 전형으로서 남산에서 흘러 들어온 물이 청계천 7가에서 역수로 만나고 바로 이곳이 물이 빠져 나가는 수구로서 서울의 생기를 만들어 주는 곳이다.

31) 박시익, 전계서, p.144

32) 상계서, p.143

33) 상계서, p.90



〈그림 2-10〉 : 득수의 형태³⁴⁾

득수법에서는 길흉판단의 중요한 판단조건으로 득수(得水)와 파구(破口) 지점을 중요시 한다. 물줄기가 성국(成局)으로 들어오는 첫 지점을 득수(得水)라 하고 파구(破口)는 혈 자리에서 보아 성국에 영향을 주는 물줄기가 사라지는 끝 지점을 말한다. 좋은 혈을 얻기 위해서는 장풍(臟風)과 함께 득수(得水)가 중요하고 물줄기가 사라지는 파구를 감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성국(成局)내에 충만한 생기를 흩어지지 않게 갈무리하여 모으는 장풍의 역할을 사신사가 담당하고 득수는 모아진 생기를 흩어지지 않게 하며 명당에 머물게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전통마을이나 전통정원 공간에서 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수구막이라는 풍수적 사례를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³⁵⁾

득수에서 길흉의 판단은 흐르는 물의 방향, 장단, 완급, 활협(闊狹), 곡절(曲折), 요포(繞抱)등을 관찰하여 혈점(穴點)의 좋고 나쁨을 판단한다.

(4) 좌향론

좌향론의 목적은 혈(穴)자리의 좌향을 측정하여 그 좌향에 속하는 기가 무엇인가를 알아내어 땅의 성격과 길흉화복을 판단하는데 있다. 같은 혈자리도 좌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길흉이 달라진다는 이론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이 내려오는 방향을 의지하여 좌향을 정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쓰인다. 이외 좌향을 정하는 방법으로 무덤이나 건물 앞에 보이는 안산(案山)이나 조산의 아름다운 봉우리와 방향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정하는

34) 박시익, 전계서, p.96

35) 장영훈, 『생활풍수강론』, 기문당, 2000. pp.38-41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내용의 흐름이 불분명할 때 주로 활용한다. 그리고 물의 흐름을 보고 좌향을 정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는 물길이 어디에서 흘러와 어디로 빠져 나가는가를 보고 무덤이나 건물의 좌향을 정하는 방법으로 이기론 풍수에서 많이 활용한다.

(5) 물형론(형국론)

만물은 독특한 기가 있으며 이러한 기는 산세에 영향을 주어 형상을 만든다. 그 형상을 물형(物形) 또는 형국(形局)이라 한다. 따라서 어떤 특정한 자리의 기가 어떤 것이며 그에 상응하여 어떠한 인물이 나올 것이냐는 그 혈(穴)과 주변 형국(물형)을 살피면 된다는 이론이다. 예를 들면 ‘소가 누워있는 형상의 명당 즉, 와우형(臥牛形)에서는 소가 옆으로 누워서 한가히 되새김질을 하는 것처럼 자자손손 누워서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부자가 되지만 자손은 적다고 해석한다. 그 이유는 소는 새끼를 한번에 한 마리 밖에 낳지 못한다고 하기 때문이다.³⁶⁾

물형론은 혈(터)을 둘러싸고 있는 산세의 지형을 가지고 길흉화복과 예단하는 것으로 일종의 거시 풍수학(Macro Feng shui)라고 볼 수 있으며 물형은 크게 인물, 동물, 식물, 문자등으로 형태를 분류한다. 인물에 따른 형국으로는 선인독서형(仙人讀書形), 미인단장형(美人丹粧形), 선인무수형(仙人舞袖形)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혈은 심장이나 단전부위에 맺어진다. 동물에 따른 형국으로는 와우형(臥牛形)을 비롯하여 금계포란형(金鷄抱卵形), 맹호출림형(猛虎出林形), 평사낙안형(平沙落雁形), 갈마음수형(渴馬飲水形)등이 있으며 머리나 꼬리, 날개부분에 혈이 맺어진다.

물형론의 근본은 오행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산의 모양과 형상에 따라 오행의 기운으로 분류하여 풍수적 길흉을 판단한다.

36) 김두규, 전계서, pp.223-224

[표 2-4]: 오행산의 기운과 형태³⁷⁾

오행산	모양	물형대상	물형의 형태와 기운	산 형태
목산	산 모양이 붓 이나 죽순처 럼 뾰족한 모 양. 일명 필봉 (筆)	사람, 나무	상승하는 기운, 날카로 움, 분별, 이지적. 선인 독서형(仙人讀書形)	
화산	산 모양이 불 꽃,	닭, 봉황, 연꽃 잎	불꽃이 솟는 것처럼 폭 발적인 기운, 비상(飛)의 기 운, 비봉포란형(飛鳳回 巢形), 금계포란형(金鷄 抱卵形)	
토산	산 모양이 일 자(一字),	들짐승의 몸 통	후덕하고 안정적인 기 운, 들짐승의 몸통, 와우 형(臥牛形), 갈마읍수형 (渴馬泣水形)	
금산	산 모양이 종 이나 술을 얹 어 놓은 모양,	들짐승의 머 리, 해와 달, 별	단단한 기운, 복록의 기 운, 영구망해형(靈龜望 海形), 복종형(伏鐘形)	
수산	산 모양이 물 이 흐르는 물 결모양	뱀, 용, 꽃잎	재물, 생사출림형(生蛇 出林形)	

물형론에 따르면 산세의 형상을 매일 보면서 살아가는 인간은 산의 모양에 따라 심리적 영향을 받게 되고 인격적 형성을 이루어 나간다고 한다. 호손³⁸⁾이 쓴 소설 ‘큰 바위 얼굴’에서 바위 얼굴을 매일 보고 자랐던 소설

37) 김두규, 전제서, p.34를 참조하여 재구성

38) 미국의 작가, 주홍글씨로도 유명하며 ‘큰 바위 얼굴’은 풍수적 관점에서 보면 안산 또는 조산으로 볼 수 있음.

의 주인공이 그 영향을 받아 나중에 훌륭한 인물이 되는 것은 물형론의 동기감응의 소설적 사례로 볼 수 있다. 풍수적 관점에서 물형론의 현대적 해석과 의미는 자연과 인간은 보이지 않게 서로 감응하고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조화와 상생의 관계를 유지한다. 따라서 인간은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하며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고 자연지형을 가급적 훼손하지 않고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이 공생할 수 있는 생태적 공간을 만들어 가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림 2-11〉 : 물형의 사례³⁹⁾

(6) 비보론

전통 주거공간 설계와 전통정원 조성에서 가장 많이 활용된 풍수이론으로서 비보(裨補)의 인문학적 정의는 인간이 자연환경과 상생관계를 맺으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노력이며 자연과 인간이 이루는 유기적인 통합생명의 상호조절 원리이다.⁴⁰⁾

비보론은 통일신라말 승(僧) 도선에 의해 체계화된 것으로 풍수적 비보란 명당요소에 풍수적 흠결이 있을 때 이를 인위적으로 보완하여 자연환경을 개선하는 유/무형의 풍수적 행위를 말한다. 풍수적으로 흠이 있는 땅이 있는 경우, 땅을 마치 병들거나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여 침뜸을 맞듯이 형국이 부족한 곳에 절과 사탑을 세우면 건강한 땅으로 바꿀 수 있다는 풍수적 논리에 근거한다. 즉, 산천의 기운이 달아나는 곳에는 탑을 세워 기를 멈추게 하고 배역(背逆)의 산천기운이 있는 경우 당간(幢竿)을

39) 신영대, 『풍수지리원리』, 경덕출판사, 2004, p.378

40) 용인 문화원, 『용인의 역사지리』, 용인시 용인문화원, 2000년, p.356

세워 순기(順氣)를 불러들인다는 것이다.

임원경제지에 기술된 비보에 대한 기술을 보면 “명당의 조건으로 동쪽에는 흐르는 물이, 남쪽에는 연못이, 서쪽에는 큰 길이, 그리고 북쪽에는 높은 산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였는데 만약 동쪽에 흐르는 물이 없으면 버드나무 아홉 그루를 심고⁴¹⁾ 남쪽에 연못이 없으면 오동나무 일곱 그루를 심어 봉황이 서식할 수 있는 풍수적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하였다.

비보는 기본적으로 풍수의 산·수·방위와 문화요소를 더하여 4자의 상호조합으로 구성된다. 비보풍수론은 기존풍수의 산·수·방위로 대별되는 자연적 요소뿐만 아니라 신앙, 상징, 조경, 놀이등의 문화적 요소가 복합되어 재구성된 것이다.⁴²⁾ 풍수를 택지론과 비보론으로 구분할 때 택지론이 입지(立地)에 관한 이론풍수라면 비보론은 경관적인 요소가 가미된 응용풍수라고 할 수 있으며 사람들이 주거생활에서 현지의 환경적 특성에 적합하도록 풍수를 능동적으로 활용한 생활풍수라 볼 수 있다. ⁴³⁾

비보풍수를 청오경, 금낭경에 근거하여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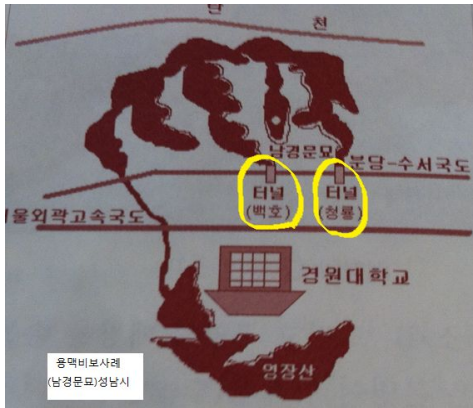
가. 용맥비보

용맥의 형세가 불리하고 맥이 끊어져 기맥이 흐르지 않을 때 사용하는 비보로서 산래(山來)하지 않고 산수(山囚)하거나 산돈(山頓, 산이 명당을 향해 조아리는 형세)하지 않고 산주(山走, 산이 명당을 향해 달려들듯이 치닫는 모습)할 경우 비보를 하게 된다. 비보의 방법으로는 보토(補土), 인공적으로 조산(造山)하거나 숲을 조성하여 생기를 북돋운다. 산기(山氣)가 쇠하거나 동산(童山)일 경우는 소나무를 식목하여 생기를 배양하기도 한다.

41) 버드나무의 생태적 특성은 물을 많이 흡수하며 줄기에 물을 내장하고 있는 수종으로서 풍수적으로 물을 의미하며 득수비보를 위하여 버드나무숲을 조성하기도 한다.

42) 최원석, 『한국의 풍수와 비보』, 민속원, 2004, p.47

43) 상계서, p.48



〈그림 2-12〉 (좌): 용맥비보 사례⁴⁴⁾

〈사진 2-1〉 (우): 돌탑비보 사례⁴⁵⁾



〈사진 2-2〉 : 용맥비보 사례⁴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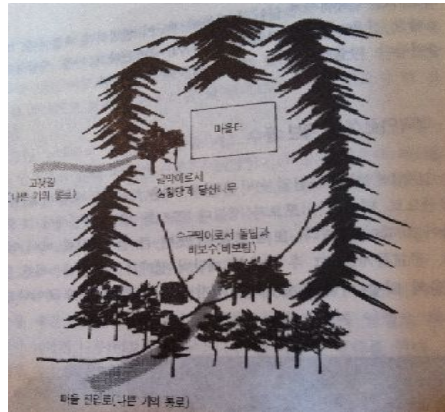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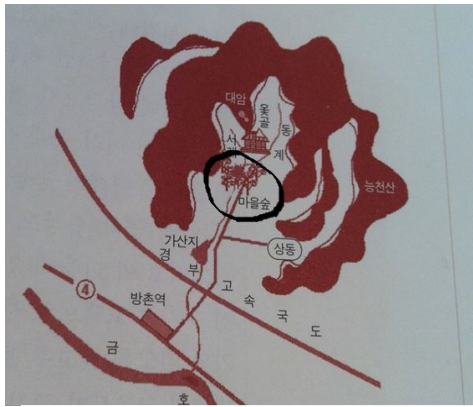
나. 장풍비보

장풍비보는 풍수상 장풍적 조건을 보완하는 것으로 주위 사방의 사신사(四神砂)가 명당(마을터)이나 혈(무덤, 집)을 중심으로 한 좌우의 지세가 주거지를 감싸 주지 못하고 벌어졌거나 빠지는 형세일 때 하는 비보방법이다. 장풍비보의 수단으로는 장풍이 필요한 위치에 숲을 조성하거나 인공적 조산(造山)과 더불어 건축물을 지어 장풍의 효과를 만든다.

44) 고제희, 『정통풍수 지리교과서1』, 문예마당, 2009, p.178

45) 김두규 전계서, p.1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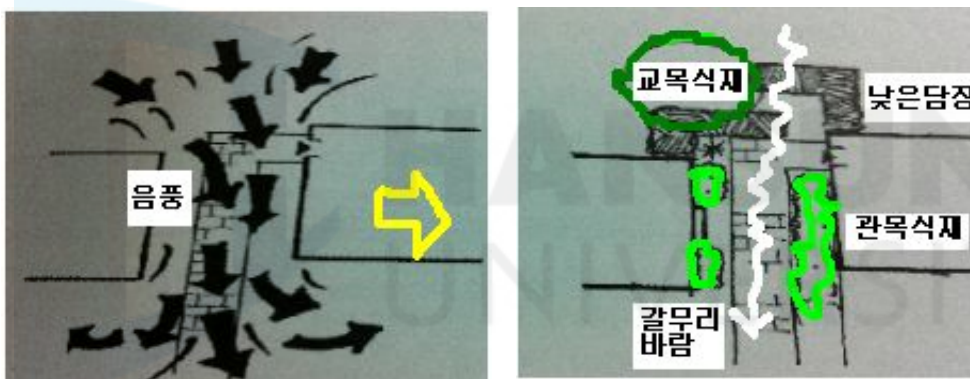
46) 이도원, 『한국의 전통생태학』, 사이언스 북스, 2010, p.100



〈그림 2-13〉 (좌): 비보숲(웃골마을)⁴⁷⁾

〈그림 2-14〉 (우): 수구막이 사례⁴⁸⁾

한편, 도심빌딩사이로 바람이 지나가는 길목에 교목을 심지 않고 잔디나 키가 작은 교목을 식재하거나 낮은 담장을 설치하여 장풍비보를 한다.



〈그림 2-15〉 : 건물공간의 장풍비보⁴⁹⁾

다. 득수비보

득수비보는 명당 주위에 흐르는 자연수의 흐름이 풍수적 결함이 있는 경

47) 고제희, 전제서, p.175

48) 김두규, 『우리땅, 우리풍수』, 동학사, 1998, p.181

49) Rosemary Alexander, 『The Essential Garden Design Workbook』, Workman Pub. Co, 2009, p.68

우 인위적인 수단을 활용하여 이상적인 풍수적 조건으로 조정, 보완하는 비보이다. 득수론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득수의 조건은 물이(개울, 하천, 강) 명당과 혈을 감싸 안으며 수회(水回)하거나 수고(水曲)하면서 수구를 빠져 나가야 길하다. 이러한 형국을 이루지 못할 경우 보완책으로 유로(流路)를 둥글게 조성하여 주거지를 감돌아 흘러 나가도록 하거나 또는 물(水)가 머물다 나갈 수 있도록 연못을 파서 물이 고였다가 흐르도록 한다든지 숲을 조성하여 곧장 빠져나가는 물을 우회시키는 비보법을 활용한다.

아울러 전통정원 조경에서는 득수(得水)나 염승(厭勝)의 방법으로 전정(前庭)공간에 연못을 조성하거나 정원에 석지(石池), 석조(石槽)를 설치하여 득수비보를 하고 있다.



<사진 2-3> : 득수비보 사례(밀양시 다원)⁵⁰⁾

<사진 2-4> : 석지에 의한 득수비보 (회원)

라. 형국비보

형국비보는 지형의 형국체계에 보완되는 풍수적 장치를 하는 것으로서 형국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거나 형국의 기운을 억제하여 평형의 상태를 만드는 비보이다. 예를 들어 행주형(行舟形)의 형국을 띠고 있다면 못을 조성하여 배를 띄울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순풍에 항해를 잘 할 수 있도록 돛대를 세운다. 만일 산세가 봉황의 형국을 띠고 있다면 봉황이 서식할 수 있도록 주변에 오동나무, 대나무를 심어 봉황의 기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닭의 형국을 띠고 있다면 닭 먹이를 뜻하는 지네모양의 형상

50) 이도원, 전계서, p.87

을 만들어서 형국의 불균형을 맞춘다. (김동수 가옥 사례)

비보형태와 수단으로는 시대, 지역(장소), 구성주체(집단)별에 따라 특성이 있지만 역사적으로 사찰이나 탑, 못과 숲이 일반적이었고 고을에서는 종수(種樹)가 대표적인 비보수단이었으며 비보의 유형별 수단과 기능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표 2-5]: 비보의 유형별 수단과 풍수적 기능

비보유형	비보수단	기능 및 목적
용맥비보	조산, 숲, 다리, 사탑	기맥연결, 형국보완
장풍비보	조산, 숲,	산세진정 형국(사신사)보완 방풍,결국(結局) 차폐
득수비보	연못, 인공수로, 수조, 석지(石池)	명당수 확보, 수구막이
형국비보	식목, 석, 연못, 당간, 장승, 지명개명	화기진압,사기(邪氣)방어 명당형 조성, 형국보완 결국(結局)

2) 주요 풍수요소

정원은 주거지 건축물이 완성된 후 부차적으로 땅을 대상으로 자연환경의 개조 및 보완을 통하여 경관이 조성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전통정원은 주로 평지보다는 배산(配山)의 위치에 입지하고 있어 전통정원에 대한 풍수적 해석은 양택풍수 관점에서 택지(擇地)에 대한 풍수이론을 적용한다.

(1) 산 (용)

풍수적으로 산은 인간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자연요소로 산의 형세와 모양에 따라 길흉화복을 판단한다.

서유구(徐有榘)는 “산골짜기 양기는 바람을 간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장풍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고⁵¹⁾ 호순신은 “산은 성질이 고요하여 음에 속하고 물은 성질이 움직이는 본성으로 양으로 분류하고(山靜物而屬

陰, 水動物而) 있다.⁵²⁾ 이어서 그는 산과 수의 조화로운 관계에 대해서 ” 비록 산이 귀하고 무성한 모습을 띠고 있지만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산과 조화롭지 않다면 재앙이 된다. 물과 산이 조화를 이루게 되면 24방위의 산 모두가 길하게 작용될 수 있다. … 산이 귀하고 물이 길하면 이것이 으뜸의 땅이며 산이 귀하나 물이 흉하면 망한다. 산이 비록 귀하지 않다 하더라도 물이 길하면 귀한 땅이 될 수 있다 (원문.”雖然, 此山貴耳, 如水之來去不與山合, 則反爲禍, 水苟與山合而吉, 則二十四皆可用也, …山貴水吉, 此爲上地, 山貴水凶, 亦終凶, 山雖非貴而水吉, 不失爲貴” 胡舜申, “山論”)라고 지적한다. 이는 풍수적으로 길한 局(환경)의 형성을 위해서는 음양의 원리에 따라 산수가 조화롭게 형성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산의 풍수적 역할에 대해 금강경(金囊經)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무릇 기가 숨을 쉬면 바람이 되고 이것은 능히 생기를 흩트려 버릴 수 있으니, 청룡과 백호가 혈장을 잘 지켜주어야 한다. 산언덕이 중첩되게 감싸고 있어도 청룡이 비어 있거나 백호가 결함이 있으며, 앞이 텅 비어 있거나 뒤가 끊겨 있으면 생기는 바람에 흩어져 버린다.⁵³⁾ (원문:”夫噫氣爲風, 能散生氣, 龍虎所以衛區穴. 疊疊中阜, 左空右缺, 前曠後折, 生氣散於飄風.” 金囊經. 貴穴篇).

한편, 명산론은 산에 의한 풍수적 영향을 다음과 기술하고 있다. “산이 비옥하면 사람도 기름지고 산이 메마르면 사람도 수척하고 산이 맑으면 사람은 귀하게 되고 산이 무너져 있으면 사람에게 슬픈 일이 생기고 산이 돌아돌 듯 다가오면 사람들이 모여 들며 산이 달리는 듯 하면 사람들이 흩어지고 산이 길면 사람은 용맹하고 산이 쪼그라들면 사람의 신분이 낮아지고 산이 밝아 보이면 사람은 지혜로우며 산이 어두워 보이면 사람이 어리석게 되며 산이 순하며 사람은 효성스럽고 산이 등을 돌린 형국이면 사람은 간사하고 속임수가 많게 된다. 산과 물, 이 두 가지는 산을 둘러싸고 있는 산의 모양에 따르며 길흉의 근본은 여기에서 비롯되므로

51) 서유구, 『임원십육지』, 보경문화사, 2005, 상택지, 卷一, “論山谷陽氣”, “凡山谷陽氣, 最要藏風”, p.50

52) 호순신 (김두규 역), 『지리신법』, 비봉출판사, 2004, p.68

53) 곽박, 『장경』, 오상익 주해, 동학사, 2002년, p.78

잘 살펴야 한다.”⁵⁴⁾고 하여 주거지는 물론 환경설계에 있어 대상지의 선택 시 산세와 지형을 잘 관찰하여 정해야 된다.

풍수적으로 좋은 산의 모습은 四神砂의 형상 즉 玄武, 朱雀, 青龍, 白虎가 주거지를 감싸듯이 조화롭게 형성되어 있어야 하며 청룡, 백호가 유정하게 혈을 감싸 안고 생기를 머금어야 한다.

(2) 수(水)

풍수에서는 바람의 갈무리(장풍)보다 득수를 더 중요시 여기며 기(氣)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물이 존재한다고 본다.

곽박은 그의 저서 『금낭경』에서 “풍수의 술법은 물을 얻는 것(득수)이 으뜸이고 바람을 갈무리하는 것은 그 다음이다… 흙이란 氣의 형체이며 흙이 있어야 氣가 있을 수 있으며… 氣란 물의 어머니이며 기가 존재하는 곳에는 언제나 물이 있다”⁵⁵⁾ 라고 하여 득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물을 어떻게 얻고 다스려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한편, 서유구는 『임원십육지』 상택지에서 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물의 기본성질은 막힘없이 멀리 흐르는 것을 좋아하고 (”大抵 水, 欲其洋洋悠悠”) 물을 흘려보낼 때 방향을 조절하여 음양의 조화를 고려해야 하며 음양이 뒤섞여서 흐르면 黃泉殺에 맞게 되므로 물을 함부로 흘려보내면 안 된다”⁵⁶⁾고 하여 물의 풍수적 중요성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또한 “주택안에서 물이 거꾸로 흐르면 집안의 가장이 뒤바뀌게 되고 물이 대문을 통하여 나가게 되면 살림살이가 빈궁해 진다”⁵⁷⁾라고 하여 물의 흐름에 대해 자연 순행적인 흐름을 강조하고 있다.

산과 물을 음양으로 구분하면 산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음이고 물은

54) 채성우 (김두규 역해), 『명산론』, 비봉출판사, 2002, p.92, 길홍사형편 인용. 尋龍全書, 有, 山肥人肥, 山瘦人飢, 山清人貴, 山破人悲, 山歸人聚, 山走人離, 山長人容, 山縮人低, 山明人智, 山暗人迷, 山順人孝, 山脊人欺, 山之與水二者, 相隨砂形, 吉凶, 其本自此, 不可不察也” “名山論” “吉凶砂形”

55) 곽박, 전게서, p.60, “風水之法, 得水爲上, 藏風次之…夫土者, 氣之體, 有土斯有氣, …氣者, 水之母, 有氣斯有水.” 金囊經. “氣感篇”

56) 서유구, 『임원경제지』,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5, p.67, 서울대학교 고전간행회 편, 상택지 券一. “論水應”

57) 서유구, 상계서, p.65, “水若倒流, 宅主女爲家長, 水從門出, 主耗散貧窮”. 상택지, 卷一, 「宅內出水雜記」

본질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양에 해당한다. 장경에 따르면 “생기는 반 물을 만나야 멈추고 결집 된다”고 하여 취기결혈(聚氣結穴)을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득수의 형국에 대해서 서유구는 “수구가 주밀하여 물이 직선으로 빠져나가지 않아야 하며.... 거주지를 잡을 때는 먼저 수구를 살펴야 하며 무릇 수구는 집으로부터 넓게 트여 있는 곳에 있어야 좋다” 58)라고 하여 곡류(曲流)의 중요성과 수구의 형태에 대해 논하고 있다.

물의 흐름은 곡선으로 명당(터)를 환포(環抱)하여 흘러야 하고 물살이 들이치지 않아야 바람에 기가 흩어 지지 않고 결집된다. 풍수지리에서 물의 방향과 내룡의 방향이 일치하는 자리를 산수동거(山水同去)라 하여 나쁜 터로 분류한다. 이는 물이 내룡의 생기를 머물게 하는 계수즉지(界水卽止)의 풍수원리가 작용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59)

좋은 물이란 탁하지 않고 나쁜 냄새가 없어야 하며 명당을 감싸 안고 수구로 빠져나가고 음양의 배합이 이루어져야 풍수적으로 득수형국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3) 바람 (風)

풍수고전에 기승풍즉산(氣乘風則散)이라 하여 바람은 기를 흩트리기도 하지만 기를 이동시키는 풍수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바람은 생태계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환경설계 시 중요하게 다뤄진다. 풍수의 요체는 “바람을 갈무리하고 물을 얻는 것”으로서 풍수에 있어 바람의 관리 즉, 장풍(藏風)은 명당길국의 형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게 다뤄진다.

성경 창세기에 보면 “야훼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코에 입김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되어 숨을 쉬었다”라고 하여 생명의 탄생이 바람으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듯이 60) 바람은 물과 함께 산을 변화 시키며 기(氣)를 운반하여 물을 생성 시키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풍

58) 서유구, 전계서, p.76, 相宅志, 卷一. “論水口”(水口貴於周密, 不放水走, 凡水口, 有圓山土墩謂之羅星...蓋羅星, 喜見水口, 忌見當堂...卜居, 先看水口, 凡水口虧疎堂闊處.)

59) 박시익, 전계서, p.89

60) 조인철, 『우리시대의 풍수』, 민속원, 2009, p.415

수적 요소이다.

곽박의 기순환이론에 따르면 “음양의 기운이 넘치면 바람이 되고 바람이 하늘로 올라가면 구름이 되고 구름이 다시 땅으로 내려오면 비가 되고 비가 땅속에 스며들어 다시 생기를 만든다”고 한다. 이 순환 속에서 생기를 모으려면 행룡(行龍)을 통해서 물이 용맥을 감싸고 보호해 줘야하고 이 생기를 지키려면 바람의 길을 알아야 한다.⁶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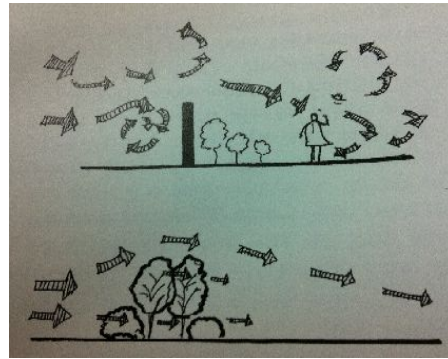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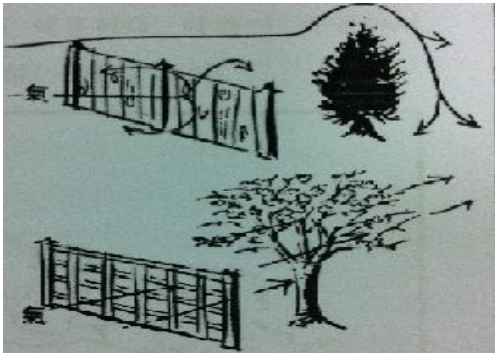
바람은 발생한 기를 흠어 버리는 역기능도 하지만 생성된 생기를 혈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동시키는 역할과 함께 산세를 변화시키는 기능을 하므로 바람에 대한 관리는 풍수는 물론 생태학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진다.

풍수에서 흉풍(凶風)을 음풍(陰風)이라 하고 길풍(吉風)을 양풍(陽風)이라 한다. 음풍은 살풍(煞風), 요풍(凹風), 곡풍(谷風)이라고도 하며 골짜기나 파이고 깨진 곳으로부터 거세게 불어 닥치는 바람을 말한다. 이러한 음풍은 과협처(過峽處)나 요곡(凹谷)에서 주로 발생하지만 도시의 거대한 빌딩과 주택 사이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⁶²⁾ 양풍(陽風)은 사신사의 기능으로 인해 부드럽게 갈무리 되어 따뜻하면서 넓게 퍼져서 들어오는 부드러운 바람으로 생기를 담고 있다.

한편, 풍수에서는 바람의 움직이는 속성을 근거로 바람을 양으로 해석하고 음의 속성을 지닌 산과 음양의 조화를 만들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장풍비보수단을 활용한다. <그림 2-16>에서 보는 것처럼 이로운 바람을 만들기 위해 바람통로(바람길)에 나무를 심어 바람의 속도와 양을 조절하고 대문의 형태를 살창형태로 만들어 바람의 직접적인 유입을 차단하고 기의 유출을 막기도 한다.

61) 차진원, 『감여상지학』, 상상커뮤니케이션, 2007, p.92

62) 상계서, p.92.



〈그림 2-16〉 : 수목에 의한 기흐름의 변화⁶³⁾

6. 8 방위와 오행색채

오행에 의한 오행색은 동서남북과 중앙의 다섯 방위에 해당하는 색으로서 동방의 청색, 서방의 백색, 남방의 적색, 북방의 흑색, 중앙의 황색으로 구분된다. 각 방의 색상은 오행의 기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동방은 아침의 청명한 기운과 생명의 기운이 시작되는 방위로 주역의 진(震)괘에 해당하며 청색(녹색)이 주는 느낌을 제공한다. 남방은 해가 중천에 떠있는 형상으로 여름에 해당하며 주역의 팔괘상 불을 상징하는 火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며 색상도 불의 색깔이라 할 수 있는 적색이 이에 해당한다. 서방은 가을을 의미하며 오행상으로 금에 해당하며 백색이 이에 해당한다. 북방은 계절상 겨울을 의미하며 오행상으로 물(水)을 뜻하며 모든 삼라만상이 잠들어 있는 밤의 색깔이 흑색에 해당한다.

팔방의 색상은 기본적으로 4정방(正方, 동서남북)에 해당하는 震괘(동), 兌괘(서), 離괘(남), 坎괘(북)의 오행과 자오묘유(子午卯酉)의 지지(地支)의 오행이 일치하므로 상징색이 일치하게 되나 간방(間方), 즉 동북, 동남, 남서, 북서의 4간방(間方)은 오행에 따라 색상이 정해지지 않은 관계로 4정방(正方)의 색상을 토대로 혼합색을 사용하며 4 간방(乾, 坤, 艮, 巽方)의 색상은

63) Hale Gill, 『The Feng Shui Garden』, London AN EDDISSON SADD EDITION, 1998, p.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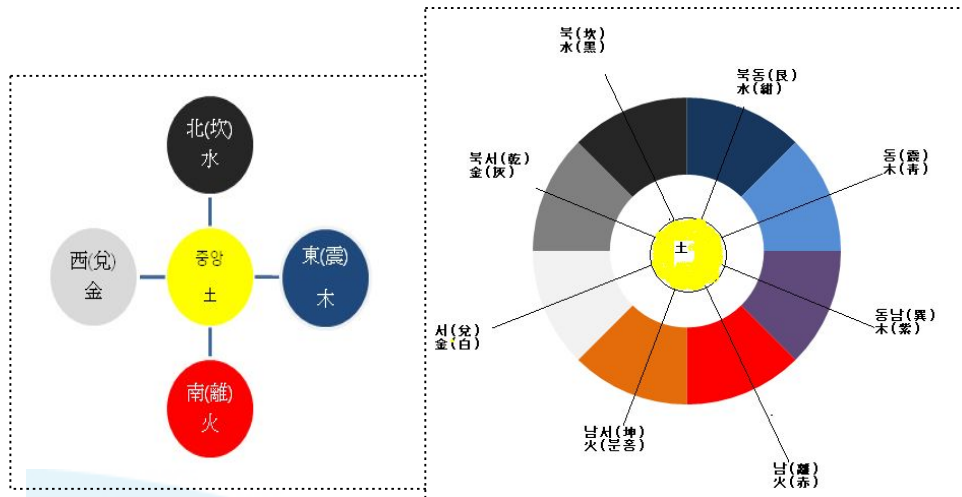
다음과 같다.

동북방: 청색+흑색=곤색 또는 감색(紺)

동남방: 청색+적색=보라(紫色)

남서방: 적색+흰색=분홍색, 오렌지색

북서방: 흑색+흰색=회색



〈그림 2-17〉 : 사정방(四正方)과 8방의 색상

제 2 절 한국 전통정원 고찰

정원(庭園, 庭苑)은 ‘정(庭)’과 ‘원(苑)’의 합성어로서 《대한 한사전》에서는 〈삼재(三才圖會)〉 그림을 바탕으로 ‘정(庭)’을 ‘뜰 정’이라 풀이하고 있다. ‘뜰 정’은 바로 집채(堂)의 계단 앞마당이 이룬 공간이다.⁶⁴⁾ 삼재도회의 그림을 바탕으로 ‘정(庭)’을 정의하면 집채인 당(堂)앞, 담장안의 마당 공간 모두가 정(庭)이며 아울러 집채와 집채사이의 공간도 정(庭)으로 본다. ‘원(園)’은 동산을 의미하며 동산은 과수를 심는 포(圃)라고 풀이하였다, 다시말해 원은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과수를 심은 동산을 말하는 것이다.

원(園)과 음이 같은 ‘원(苑)’은 나라 동산 원(禁苑圃也)이라 하였다. 즉,

64) 주남철, 『한국의 정원』,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9, p.4

‘원(園)’이 일반 주택의 ‘동산’을 뜻한다면 ‘원(苑)’은 ‘나라의 동산’, 즉 궁궐에 속한 동산을 말한다.⁶⁵⁾ 전통정원에서의 정원(庭園, 庭苑)의 정의는 궁궐, 민가, 사찰, 별서, 서원 등의 공간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동산과 건축물 그리고 자연적인 지형과 경관요소를 포괄적으로 포함한다.

1. 한국정원의 역사

정원은 그 시대의 정치적 사상과 문화를 일정한 장소에 인공적, 자연적인 요소를 활용하여 사상을 표현하거나 경관의 형태로 조성된 인문적인 장소라고 정의될 수 있다. 특히 궁궐은 국가대사를 논하는 정치적 중심지로서 일국의 문화와 사회를 대표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으며 통치행위 및 왕실의 사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한 시대의 건축, 정원문화를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장소이다.

정원이 건축물의 부차적인 조경의 형태적 결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정원의 역사는 고조선까지 거슬러 올라 갈 수 있으나 한국정원이 어느 정도 정원의 틀을 갖추고 건축공간에 조형적으로 조성되는 시기는 삼국시대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1) 삼국시대

삼국 중에서 정원문화가 가장 발달한 국가는 백제로서 일본서기에 따르면 612년 백제인 노자공이란 조경가가 일본에 귀화하여 남정(南庭)에 수미산과 오교(吳橋)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다. 진사왕(385-392)은 궁궐 후원의 어원(御苑)에 못을 파고 가산(假山)을 만들어 진기한 꽃을 심고 동물을 길렀다는 기록이 있으며 연못에는 섬을 만들어 방장섬이라 칭하고 불로장생을 염원하였는데 이는 도교의 신선사상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 보다 뒤늦게 정원문화가 시작되었고 사찰을 중심으로 한 정원문화가 발달하였다. 불국사의 청운교, 백운교를 건축하고 그

65) 주남철, 전계서, p.5

그림자가 비칠 수 있도록 영지(影池)를 조성하여 극락정토의 불교의 이상향을 표현 하였다. 고구려는 양원왕(24대) 때 장안성과 안학궁(安鶴宮) 후원에 자연곡선형의 연못과 인공축산을 조성하고 연못안에 삼신도를 조성하였는 기록으로 미루어 정원문화가 상당한 경지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삼국시대의 정원조성에 영향을 준 사상을 살펴보면 백제와 고구려는 신선사상, 신라는 불교사상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2) 통일신라시대

통일신라는 백제와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지만 통일신라시대에는 당의 문화를 섭취하여 탁월한 정원문화를 창조하였다. 대표적인 정원 조성사례로는 임해전지원(臨海殿池苑), 불국사의 구품연지, 포석정(鮑石亭)을 들 수 있다. 임해전 지원은 문무왕의 이궁(離宮)으로 누각과 방형의 연못(안압지)을 조성하고 도가(道家)의 신선사상의 영향을 받아 연못 안에 삼신선산(三神仙山)인 방장(方丈), 봉래(蓬萊), 영주(瀛州)산을 상징하는 세 개의 섬을 만들었으며 호안(湖岸)을 직선과 곡선을 사용하여 자연적인 미를 강조하였다. 불국사의 청운교와 백운교에 앞에 조성되었던 구품연지(九品蓮池)는 연못의 연꽃과 더불어 청운교, 백운교등의 그림자가 물속에 비치는 영지(影池)라고 추정되며, 포석정은 흐르는 물에 술잔을 띄워 유희를 즐기는 유상곡수(流觴曲水)의 대표적인 정원의 사례로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

3) 고려시대

풍수지리와 음양오행사상이 왕도의 건설과 정원조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도참사상이 고려시대의 전반을 지배하였다. 도참사상의 영향으로 왕도의 터와 건축, 민가주택에 이르기까지 풍수지리 사상이 반영 되면서 양택이론이 정립되었다. 대표적인 궁궐정원 사례로 만월대 궁원과 이궁의 정원으로서 수창궁원, 수덕궁원, 장원정, 중미정 등이 있다.

민가부문에서는 권력자들에 의한 원림(정원)이 활발하게 이루어 졌으며

오늘날의 별장에 해당하는 별업(別業)이 많이 조성 되었다. 정원조성의 배경사상으로는 초기에는 신선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 후기에 들어 풍수지지사상과 음양오행사상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정원의 특징으로 정원조영에 화훼류가 많이 사용하였다. 그리고 국교인 불교의 영향으로 많은 사찰들(대표적으로 청평사, 송광사 등)이 조영되었고 풍수지리사상이 사찰조영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4) 조선시대

고려시대의 풍수도참사상과 음양오행사상의 영향을 받아 조선시대에도 궁궐건축과 민간정원에 동 사상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다. 조선시대의 정원조영은 기본적으로 자연지형을 최소한으로 훼손시키는 풍수사상의 영향이 지배적이었으며 일반 민가정원에도 자연과 합일하여 자연을 감상하려는 천일 합일사상이 풍수사상과 함께 반영되었다.

조선왕궁과 정원조영에는 풍수지리가 적용 되었는데 조선왕조가 한양에 도읍을 정할 때 백악(白岳)을 현무, 인왕산을 백호, 낙산(駱山)을 청룡, 남산을 안산으로 하여 정궁인 경복궁의 터를 정남향으로 잡고 서쪽에 사직단, 동쪽에는 종묘를 배치하였다.⁶⁶⁾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정원으로서는 창덕궁후원을 들 수 있다. 창덕궁 후원에는 정원 곳곳에 풍수사상과 음양오행사상이 반영되어 있으며 정자의 형태, 방지조성, 입수와 출수처리, 화계조성, 아미산 조성, 금천교 등에서 그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다.

한편, 낙선재 후원의 석분과 담장, 굴뚝에는 불로장생을 상징하는 다양한 문양과 동물모양이 새겨져 있는 것으로 미루어 풍수사상과 더불어 신선사상도 함께 정원조영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5) 근세시대 (19C말 -20C초)

66) 정재훈, 『한국전통조경』, 도서출판 조경, 2005, p.67

근세시대에 조성된 전통정원은 주로 별서를 중심으로 조성되었고 조선시대의 전통정원 양식에 일본정원 양식과 형태가 도입되었다. 일본정원양식이 도입되면서 양반의 주택정원과 별서정원에 자연경관의 축경기법이 활용되었고 조경수 식재와 종류에 있어서 변화가 나타난다. 연못의 형태는 비정형의 형태로 변화되고 호안처리에 있어서는 장대석(長大石)대신에 자연석을 들여쌓기 방식으로 축조하고 있다. 아울러 전통수종으로 볼 수 없는 수종(향나무, 벚나무등)이 식재되고 전정을 필요로 하는 수종이 식재되었다. 이 시대에 조성된 전통정원의 대표적 사례로서는 외암리 민속마을, 성락원 등이 있다.

[표 2-6]: 시대별 한국정원의 특징과 배경사상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시대	조선시대	근세시대
정원 특징	궁원위주 정원	연못조성 사찰위주 조경	괴석, 석가산 화목 발달	자연친화적 정원양식	일본정원 양식도입 (비정형 연못, 전정,식물식재 의 변화)
배경 사상	신선사상	불교사상	풍수사상 불교사상	풍수지리사상 불교사상 유교사상	풍수지리사상 유교사상
조성 정원	궁남지 (백제) 안학궁 (고구려)	안압지 (신라) 포석정 능원	만월대 사찰	궁궐 별서, 서원 민가정원 능원	민가정원 별서정원
비고	정원기법 도입	고유기법 정착	기법모방 (원나라)	창덕궁, 부용동 도산서원 선교장 동구릉 등	성락원 덕수궁 외암리 민속마을

2. 한국전통정원의 특징과 배경사상

1) 한국전통정원의 특징

(1) 자연과의 조화

한국전통정원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자연 순응적인 원리에 충실한 관계로 수직적 배치를 위주로 공간설계가 된 점을 들 수 있다. 넓은 평지에 정원을 구성하여 수평적 배치와 대칭적 구조를 중요시한 서양정원과는 달리 경사지의 절개를 최소화 하여 화계나 화오를 조성하는 수직적 배치가 주를 이룬다. 이는 풍수지리사상에 따라 건물을 배산임수의 원칙에 따라 위치시킴에 따라 자연스럽게 건물 뒤에 경사지 후원의 조성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함으로써 용맥의 생기가 단절되지 않고 경사지의 훼손을 최대한 방지하였다.

(2) 공간의 연속성과 위계적인 질서

각 공간이 단위별(전정, 중정, 후원 또는 진입공간, 강학공간, 제향공간등)로 구분되어 소단위로 분할되어 있으나 각 단위공간은 서로 단절되지 않고 문을 통하여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아울러 각 공간단위 별로 이용자(남녀의 구분, 신분구별)와 용도가 구분되어 있고 위계적 질서를 가지고 있다. 공간의 연속성은 풍수에서 말하는 기의 흐름이 단위공간별로 단절되지 않고 공간 내에서 생기가 원활히 흐르도록 한 결과이다.

(3) 대칭적 비대칭의 공간구조

궁궐, 사찰, 서원 등 권위와 질서가 요구되는 중심공간은 중심축을 설정하고 대칭적 구조로 건물을 배치하였고 정원의 기능을 가진 공간은 지세와 지형에 따라 자연스럽게 배치하였다. 이와 같은 배치방식은 자연환경을 인위적으로 변형시켜 완벽한 대칭공간을 가지고 있는 서양정원과 차이가 있으며, 이는 자연과의 조화와 순응을 기본철학으로 하는 풍수지리의 자연친화사상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4) 인간척도의 원리

전통정원의 공간규모는 통상적으로 인간의 육안 가시거리를 벗어나지 않고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거리에 경관의 대상을 정하고 주요 공간규모도 청각적인 가청거리인 80척 내외로 제한하여 조성되었다. 아울러 시설물의 높이와 경관대상물(괴석, 연못 등)도 시각적으로 무리가 없고 관찰자의 높이에서 조망될 수 있도록 조성되었다.

2) 전통정원의 배경사상

(1) 풍수지리 사상

풍수지리는 도시, 궁궐, 주거지의 바람과 물의 형국을 살피 길지를 찾아내는 전통적인 공간분석의 틀로서 전통정원의 입지는 물론 공간구조 설계에 폭넓게 적용된 대표적인 정원설계의 배경사상이다. 풍수지리의 목적이 땅속에 흐르는 생기를 받아 피흉발복(避凶發福)할 수 있는 진혈(眞穴)을 찾는 것으로 우리 선조들은 주택의 배치와 더불어 정원조성에 있어 음양오행과 풍수지리원리를 반영하여 땅과 건축물과의 자연적인 조화와 더불어 심리적 안정과 복리(福利)을 꾀하고자 하였다.

풍수지리에서 용사(龍砂)는 산세의 흐름을 말하며 생동감이 넘치고 정기가 양명하면 생룡(生龍)이라 하고 쇠하고 허해 보이면 사룡(死龍)이라 한다. 풍수에서 기맥(氣脈)은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로 간주되어 그 흐름이 직선보다는 곡선의 형태를 띠어야 좋은 기맥이라 할 수 있다. 풍수의 용사격국(龍砂格局)을 위해서 추곡피직(追曲避直, 직선을 피하고 곡선을 추구함)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 원리는 궁궐정원과 전통 민가정원의 조영에 중심원리로 적용되었다.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전통정원은 전정(前庭), 내정(內庭), 후원(後園), 별정(別庭)공간으로 구분되며 이는 풍수의 배산임수의 원칙에 따라 건축물을 배치한 결과에 기인한다. 한국의 전통정원 공간을 풍수적으로 보면 통상 주 건물은 혈 자리에 위치하고 후원은 현무에 해당하고, 전정(前庭)은 외명당(外明堂), 내정(內庭)은 내명당(內名堂)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 정원

과 부속건물들이 주 건물(혈)을 감싸 안는 형국을 나타낸다.

한편, 정원의 수목식재에 있어서는 수목의 상징성과 풍수지리사상인 결부되어 청룡, 백호, 주작, 현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거나 수목식재 위치와 방위도 풍수이론에 정해지거나 식재선택에 제약을 두고 있다. 예를 들면, 거수(巨樹)가 되는 수종은 주택 내 특히 내정에 심지 않으며 집 가까이 좌측에 물이 있으면서 우측에 장도(長途)가 있거나 집 앞쪽에 오지(汚池)가 있을 경우 오동나무를 심었다.

(2) 음양오행 사상

음양오행사상이란 동양적 우주관에 관한 기초이론으로서 음양설과 오행설이 합친 사상이다. 우주, 자연의 생성, 변화에는 태극이 있으며 그 태극이 양의인 음과 양을 낳았고 이 양의가 사상(四象)을 낳았으며, 그 사상이 세상의 모든 현상을 여덟가지의 상(象), 즉, 건(乾), 곤(坤), 감(坎), 리(離), 진(震), 손(巽), 간(艮), 태(兌)의 팔괘를 낳았다고 보았다. 음양설이 우주, 자연의 일체현상을 음양 이기(二氣)로 해석하고 그 원리는 오행설이 설명하고 있다. 오행설은 목, 화, 토, 금, 수의 다섯가지 요소에 의해 우주 삼라만상의 현상을 설명하고 이 오행의 기가 순환하면서 우주와 인간생활의 모든 현상을 생성, 변화시킨다고 보았다.

음양오행이론은 풍수지리이론의 이론적 토대로 전통정원뿐만 아니라 전통건축물과 공간의 구성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전통정원의 공간설계에 있어 음양오행이론은 풍수지리사상과 더불어 중심사상으로 많은 정원조영에 영향을 주고 있다. 전통정원에 나타난 음양오행설의 주요 사례를 보면 중국, 일본의 지당(池塘)형태는 곡선위주로 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 전통정원의 지당은 방지(方池)형태로 조성 되었고, 연못 안에 원형 또는 방형의 섬을 조성하였다. 이는 천원지방(天圓地方)이라는 음양설에 근거하고 있으며 연못속의 둥근 섬은 하늘(양)을 상징하고 있다.

(3) 은일사상과 도교사상

은일사상은 현세에 대한 관심이나 명리에 연연한 욕망을 벗어나 스스로의 고답(高踏)을 추구하는 사상으로 은일적인 자연관으로 발전되어 전통사회, 특히 조선시대의 시조 등의 문학에서부터 정원문화에 까지 깊은 영향을 미쳤다. 은일사상은 초세속(超世俗)과 초탈(超脫)을 의미하지만 단지 현실도피를 뜻하지는 않으며, 보다 적극적으로 자연주의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은일사상에 의해 특히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전통정원 사례로는 조선시대에 지어졌던 별서정원을 들 수 있다. 은일사상이 반영된 대표적인 정원으로서 정영방의 서석지, 양산보의 소쇄원, 이언적의 독락당, 정약용의 다산초당 등을 들 수 있다.

(4) 신선사상

신선사상은 고대 중국의 신선사상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일종의 도교적 신앙이다. 이는 불로장생을 목적으로 현세의 이익을 추구하며 도가의 지인(智人), 진인(眞人), 신인(神人)등을 말한다. 신선사상의 삼신산은 신선이 산다는 바다 속의 봉래(蓬萊), 방장(方丈), 영주(瀛洲)를 말하며 삼신산은 불로장생과 부귀전능의 생활이 가능한 낙원을 지칭한다. 이들은 경관으로서의 사색과 감상의 대상임과 동시에 인간이 갈구하는 이상향을 의미한다.

신선사상의 영향을 받은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광한루 정원, 경복궁의 경회루지, 창덕궁 후원의 연못의 삼신산, 십장생이 그려져 있는 아미산 굴뚝, 낙선재 담장에 새겨져 있는 십장생 등이 있다. 아울러 불로장생수의 상징인 소나무를 원지(園池)내의 중도(中島)에 식재하여 불로장생을 염원하기도 하였다.



〈사진 2-5〉 : 광한루 연못가의 돌거북과 토끼⁶⁷⁾

(5) 유교사상

유교적 신분질서에 따라 공간의 구성이 달라짐은 물론 공간의 구성에 있어서도 대지 및 건물의 크기, 단청 및 원형기둥의 사용에 제한을 두도록 하였고 신분에 따라 상·중·하의 공간분화가 엄격하게 구별되었다. 유교 사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전통정원은 서원이며 유교적 예제에 따라 모든 공간구조와 건물의 배치가 결정되었다. 정원이나 건물의 명칭에도 유교적 사상과 이념을 부여하여 결정되었다.

유교사상이 반영된 전통정원 조성사례로서는 송(松),죽(竹),국(菊),매(梅)를 심었던 서석지의 사우단(四友壇), 도산서원의 시습제(時習齋), 주돈이의 ‘광풍제월’을 표현하는 소쇄원의 ‘광풍각(光風閣), 제월당(霽月堂) 건물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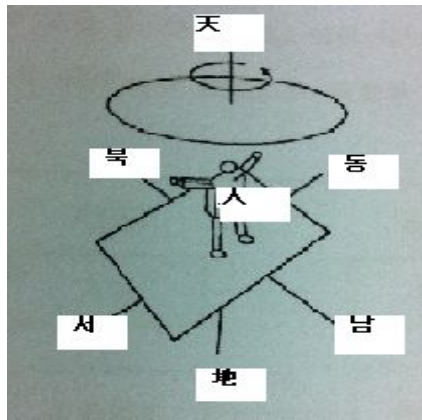
3. 한국전통정원의 기본원리

1) 태극 및 음양오행 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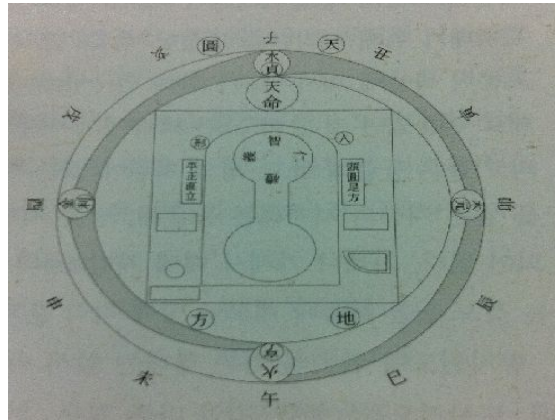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전통정원은 자연과의 조화를 꾀하고 음양의 대비와 오행의 상생기운이 표현되도록 조영되었다. 이는 자연에 대한 존경심과 경외심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어디까지나 자연과의 관계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변 산세와 지형을 있는 그대로 활용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67) 허균, 『한국의 정원- 선비가 거닐던 세계』, 다른세상, 2002, p.88

한국전통정원에는 오행의 기운이 순행(順行)되도록 시설물의 선정과 배치에 음양오행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수목의 선정과 식재 장소는 물론 수목의 배식숫자에도 음양오행의 원리와 태극사상이 반영되었다.



〈그림 2-18〉 (좌): 천지인의 공간적 영향⁶⁸⁾



〈그림 2-19〉 (우): 이황의 천원지방의 원리도⁶⁹⁾

2) 비보염승의 원리

풍수적으로 적절하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혹은 특정한 부분에 풍수적 결격사유가 있을 때 그 부분을 인위적인 보완책을 활용하는 풍수적 방법을 裨補風水라고 한다. 비보는 풍수적 조화(geomantic harmony)를 이루기 위해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완하는 인문 사회적 풍수 행위이다.

비보는 전통정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조원기법중의 하나로 자연적인 제약과 결함으로 인해 풍수결국(風水結局)이 넘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주변 환경을 개조하여 풍수적 결함을 보완하는 방법이다.

3) 삼재(三才)사상 의 원리

삼재사상은 하늘(천)과 땅(지)과 사람(인)이 불가분의 인연으로 서로 의존

68) 이종우, 「연상작용을 통한 주거공간의 구성에 관한 연구」, 『대한 건축학회 논문집 11(10)』, 대한건축학회, 1995, p.48

69) 허균, 전계서, p.57

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인간과 자연은 서로 대립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연의 법칙에 따라 상응한다는 원리이다. 삼신오제의 사상에 바탕을 둔 삼재원리는 한국 전통정원의 중요한 설계원리로 정원요소를 천·지·인으로 표현하거나 경관의 대상을 主, 從, 添으로 구분하고 圓, 方角의 형태로 수목과 정원석, 지당을 표현하는데 있어 기본원리로 이용되고 있다. 삼재사상은 삼합의 원리로 응용되어 정원조영 시 정원구성요소의 질서적인 표현과 균형적인 포치에 큰 영향을 주었다.



〈사진 2-6〉 : 삼합에 따른 경석의 배치사례

4) 기 감응(氣 感應)의 원리

프레이저 (J. G. Frazer. 1854-1941)가 그의 저술인 『황금가지』 (The Golden Bough: A study in magic and religion)에서 주술의 기초적인 사고원리로 “유사의 법칙” (Law of Similarity)을 주장하였는데 이 법칙이란 ‘닮은 것은 닮는 것을 낳는다’ 라는 사유방식으로 인간이 어떤 특정한 자연환경이나 물체를 가까이 두면 자기도 모르게 그 물체의 본성을 닮아 간다는 이론이다⁷⁰⁾. 금낭경의 ‘자연 순환이론’ 에 의하면 땅속에 흐르는 기는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구름을 형성하고 구름은 비가 되어 다시 땅속

70) J. G. Frazer, 『The Golden Bough: A study in magic and religion』, Macmillan, 1971, pp.47-48

〈그림 2-20〉 : 환경순환이론과 기 감응론 체계도⁷¹⁾

- 45 -

에는 특별하게 뜰과 동산을 이루기 위한 터 잡기는 필요치 않다⁷²⁾. 터 잡기의 기본은 자연의 지세를 살피 풍수적, 경관적 장·단점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우리 조상들은 궁궐과 집의 건축, 그리고 정원을 조성할 때 지세가 빼어나고 산수가 좋은 곳을 택했으며 또한 자연을 영적존재로 여겨 산세와 지형을 함부로 훼손하거나 변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용하였다.

(2) 산(山), 조산(造山)

전통정원의 구성요소로서의 산은 자연적 산뿐만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조성된 산을 포함하는 것으로 조산(造山), 가산(假山), 원(苑)이 있다. 풍수지리적으로 사신사의 형성이 부족하여 풍수 結局에 흠이 있을 때 비보차원에서 인공적으로 산을 조성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조산으로 경복궁 교태전 후원의 동산에 조성된 아미산(峨眉山)이 있다. 산의 형태는 오행 상 길상(吉相)이라고 하는 목산(木山)과 금산(金山)의 형태를 위주로 조산되었다.

(3) 화계(花階), 석계(石階)

화계는 한국의 자연적인 지형의 특성과 자연적인 지세를 중요시 하는 풍수사상의 영향으로 산세를 손상하지 않고 구릉지형을 처리할 수 있는 정원조영 기법이다. 풍수지리사상에 입각한 배산임수의 택지입지는 자연스럽게 부지와 건물이 배치되게 하였고 후정의 경사지 사면을 계단으로 조성하고 화계를 조성하게 하였다. 화계와 석계의 조성은 대상 부지가 갖는 잠재력을 극대화시키고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려는 풍수의 기본사상에 부합되는 한국의 독창적인 조성 기법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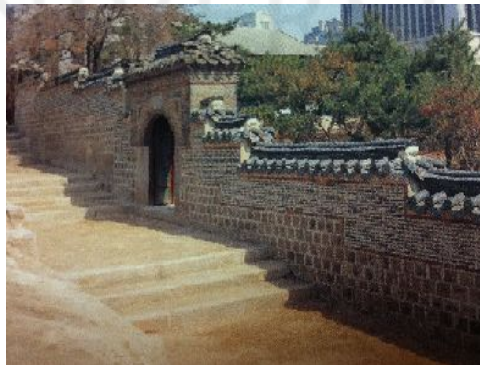
72) 주남철, 전계서, p.72



〈사진 2-7〉 : 창덕궁 후원의 화계와(좌) 석단(우)

(4) 담장

전통정원에 있어 담장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담장은 원내(園內)와 원외(園外)를 구분하거나 공간을 분할하는 물리적 기능을 갖고 있지만 풍수적으로는 중요한 장풍기능을 갖고 있어 장풍의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아울러 경계의 표시나 풍수적 장풍기능과 더불어 담장에 장식적 문양과 동물상을 새겨 넣어 벽사(辟邪)와 신선사상을 표현하기도 한다. (예, 창덕궁 담장의 십장생). 담의 종류로는 사용재료에 따라 돌담, 흙담, 맛담, 사고석담, 싸리와 대등을 엮어 만든 바자울이 있으며 조선시대 궁궐에서 키 작은 관목을 심어 공간을 분리할 때 사용한 취병도 담장의 일종이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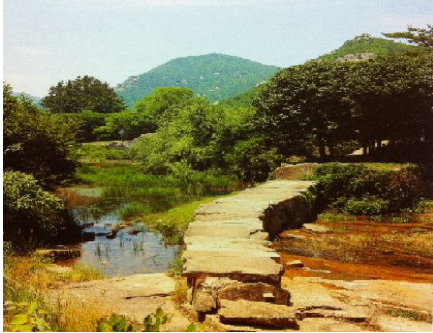
〈사진 2-8〉 한국의 전통담장⁷³⁾

73) 정재훈, 전게서, p.114

(5) 다리

전통정원에 있어 다리는 개천을 건너기 위한 물리적 기능 외에 다리 자체를 경관의 요소로 활용 된다. 다리는 또한 권위의 상징, 속세와 현세의 경계등을 표현하기 위하여 조성되기도 하며 기의 흐름을 이어주는 풍수적 기능을 위하여 축조 되는 경우도 있다. (예, 부용동 정원의 판석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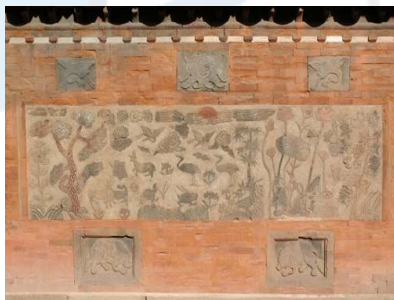
다리는 사용재료에 따라 목교, 석교로 구분되면 모양에 따라 평교, 홍교(虹橋, 무지개 다리), 징검다리 등이 있다.



〈사진 2-9〉 : 석교와 홍예교⁷⁴⁾

(6) 굴뚝

굴뚝은 연기를 처마 바깥으로 배출시키는 배연설비(排煙設備)의 기능과 전통정원에서는 하나의 점경물의 역할도 하고 있다.



〈사진 2-10〉 : 아미산 십장생 굴뚝⁷⁵⁾

74) 정재훈, 전계서, p.233

75) 상계서, p.66

2) 수경요소

(1) 연못(池塘)

전통정원에서 연못은 시각적이고 청각(폭포)적인 효과를 위한 경관적 요소로 조성되지만 풍수적으로 득수를 위한 빼 놓을 수 없는 중요한 풍수요소이기도 하다. 서유구는 임원경제지에서 “ 연못은 고기를 기르면서 감상할 수 있고 논밭에 물을 공급하고 사람의 마음을 정화할 수 있다”고 하여 연못의 다양한 생태적 기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오늘날 연못은 풍수적 득수기능을 위하여 조성되는 것 보다는 수경공간의 다양한 효과(열섬효과 방지, 관상, 홍수방지, 관개 등)와 기능을 위하여 조성되고 있다.

지당의 형태는 방형, 원형, 부정형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나 주로 음양을 상징하는 방형(땅, 음)과 원형(하늘, 양)의 조합으로 조성되었다. 연못 가운데에 조성되는 섬은 신선세계를 상징하는 삼신산(三神山, 영주산, 방장산, 봉래산)을 뜻하며 섬에는 주로 소나무 등의 상록수를 식재, 조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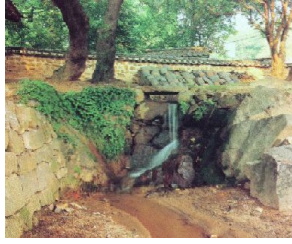


〈사진 2-11〉 : 무기연당의 방지와 향원지⁷⁶⁾

(2) 폭포와 곡수거(曲水渠)

전통정원의 폭포는 대부분 자연적인 형태보다는 인위적으로 축소한 형태로 조성되었으며, 폭포로 흘러드는 물은 득수원리에 따라 직류(直流)로 흐르지 않고 曲流형태의 곡수거를 조성하여 유상곡수(流觴曲水)를 즐기기도 하였다.

76) 정재훈, 전계서, p.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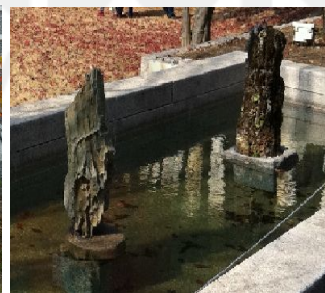


〈사진 2-12〉 :전통정원의 폭포, 좌로부터 남간정사의 폭포, 회원의 폭포, 옥류천의 곡수거

3) 석(石) 요소

(1) 괴석

괴석은 개체미가 뛰어난 돌로써 작정자의 감상을 위해 정원의 경관 포인트에 포치해 놓은 경석(景石)을 말한다. 주로 궁궐의 후원 화계나 민가정원의 마당에 주로 조성 되었으며 주로 사각이나 팔각, 원형의 받침대를 사용하여 심어졌다. 연경당의 괴석에는 괴석의 받침대(석분)에도 음양의 원리를 도입하여 방형(땅, 음)을 아래에 놓고 원형(하늘, 양)을 위에 포치(布置)시켜 풍수지리의 사상인 음양의 원리를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진 2-13〉 : 전통정원의 괴석 (연경당, 경복궁, 회원)

(2) 석분(石盆), 석지(石池), 석조(石槽)

석분은 입석형태의 괴석을 심기 위하여 돌로 만든 화분으로 석함(石函) 또는 괴석대(怪石臺)라고도 한다. 4각형, 6각형, 8각형, 원형의 형태가 있으

며 도교사상의 영향을 받아 의미 있는 글자를 새기거나 모래를 채워 이상 세계를 뜻하기도 하였다. 석조와 석지는 풍수적으로 득수상 흠결이 있을 경우 물을 채워 득수비보의 차원에서 마당이나 후원에 설치하기도 한다.



(사진 2-14 : 전통정원의 석조(좌), 석분(중), 석지(우))

4) 건축요소 (누 · 대 · 정 · 사 · 현 · 각)

정원은 뜰과 동산 모두를 말하는 것으로 건축이 완성되면 정원도 함께 만들어 진다. 궁궐, 관아, 제택(諸宅)에서는 내부공간을 이루는 건물이 주가 되고, 외부공간을 이루는 뜰과 동산은 부차적인 것이다. 조경의 요소로서 건축물은 주위 경관을 감상하거나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자연경관이 수려한 장소에 설치하여 건축되는 것으로서 대표적인 것으로 루(樓), 정(亭), 대(臺), 각(閣), 현(軒), 사(榭)등이 있으며 그 자체로도 경물(景物)기능을 가지고 있다.

5) 화목(花木)요소

전통정원에 식재된 화목은 기본적으로 자연의 순리를 존중하여 그 지방의 기후와 풍토에 맞는 것을 위주로 배식하였고 인공적인 전정을 지양하고 자연 그대로의 형태를 유지하였다. 아울러 풍수지리사상과 음양오행 사상에 따라 화목에 상징성을 부여하여 식재하였고 식재 위치에 있어서도 풍수지리사상에 의기(宜忌)를 두었다. 예를 들면, 대문 앞에 회화나무 세 그루를 심으면 길하다고 하여 회화나무를 심고 동쪽에 복숭아나무와 버드나무를, 서쪽에는 치자나무와 느릅나무를, 남쪽에는 매화나무와 대추나무

를 북쪽엔 살구나무와 벚 나무를 심도록 하였다.

풍수적으로는 문 앞에 회화나무 또는 두 그루의 대추나무를 심으면 대길하고 석류나무는 자손번창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대문 밖 동쪽에 버드나무를 심으면 가축이 잘 자란다고 하여 수종선택과 배식에 있어서도 풍수지리와 오행원리를 따르고 있다.

홍만선은 산림경제 복거편에서 “집 가까이 좌측에 흐르는 물이 있고 우측에 장도가 있거나 집 앞쪽에 오염된 연못이 있고 뒤쪽이 구릉지일 때 동쪽에는 복숭아나무, 버드나무를 심고, 남쪽에는 매화나무나 대추나무를 서쪽에는 치자나무, 느릅나무를, 북쪽에는 벚 나무와 살구나무를 심는 것이 좋다”고 하여 방위에 따라 풍수적으로 적합한 수종식재를 권하고 있다.

한편, 수목의 배식에 있어서는 풍수지리설의 영향을 받아 주택지로 지형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수목을 이용하여 청룡, 백호, 주작, 현무를 대신하게 함으로써 지형의 불리에서 오는 흉한 기운을 막도록 조성하고 있다.

[표 2-7]: 방위에 따른 수목의 식재⁷⁷⁾

방위	宜忌	식물
동	의	복숭아, 버드나무, 벽오동, 자두나무, 회화나무, 국화, 매화, 소나무
	기	살구나무
남동	의	꽃나무, 버드나무, 매화, 대추, 자양화, 오동나무, 뽕나무
	기	살구나무
남	의	복숭아, 매화, 대추나무, 대나무, 느릅나무, 진달래, 철쭉, 참나무, 가문비나무, 향나무
	기	자두나무
남서	의	가능한 십지 말 것
	기	거수(巨樹)
서	의	산뽕나무, 느릅나무, 대추나무, 치자나무, 무화과, 석류, 은행, 백일홍, 오동나무
	기	버드나무, 자두나무, 복숭아나무, 거수, 활엽수, 침엽수, 소나무, 느티나무
북	의	느릅나무, 벚나무, 개암나무, 진달래, 살구나무, 능금나무, 소나무, 은행, 느티나무, 해송, 뽕나무, 가시, 참나무, 밤, 호두나무, 회화나무(거수도 무방)
	기	자두나무, 동백, 영산홍, 왜철쭉, 치자나무, 석류나무, 월계화,

77) 이동영, 「조선시대 반가 정원공간의 조영사상에 관한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 논문집 v.12』, 한국농촌건축학회, 2010, pp.77-86을 참고하여 재구성

북동	의	포플러, 미류, 대금송, 가문비, 사철나무
	기	대나무, 관목, 매화나무
북서	의	거수(巨樹)
	기	정원용 화목, 소나무, 측백, 감, 밤, 은행, 느티, 석류, 거수, 회화나무, 대나무, 오동나무

[표 2-8]: 식재장소에 따른 의기(宜忌)⁷⁸⁾

장소		식물
전정(前庭)	의(宜)	회화나무, 문정에 두 그루의 대추나무, 버드나무
	기(忌)	고수(枯樹) 한 그루, 모양이 같은 나무 두 그루, 상록수, 수양버들, 청초(靑草), 모과나무
중정(中庭)	의(宜)	화초류, 라일락, 장미, 사철, 동백, 파초
	기(忌)	거수(巨樹), 많은 수목
정전(庭前)	의(宜)	석류나무, 서향화(瑞香花) 천리향
	기(忌)	오동나무, 파초
집 주위	의(宜)	울창한 소나무, 울창한 대나무
	기(忌)	단풍나무, 사시나무, 가죽나무

가. 음양오행사상에 의한 수목배치법

동쪽 목(木): 소나무, 참나무, 버드나무, 복숭아, 석류, 가시, 벽오동

서쪽 금(金): 잣나무, 편백, 화백, 느티나무, 치자, 대나무, 산뽕나무

남쪽 화(火): 매실나무, 은행, 대추, 측백, 소사나무

북쪽 수(水): 뽕나무, 소나무, 살구, 사과, 감나무, 녹나무, 느릅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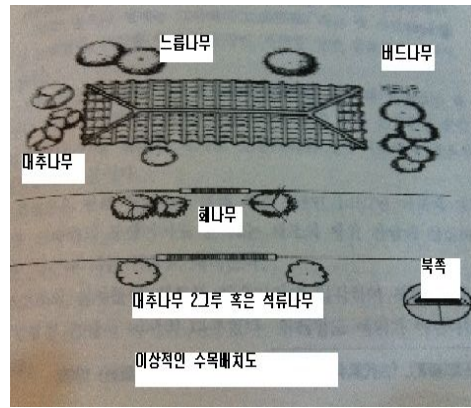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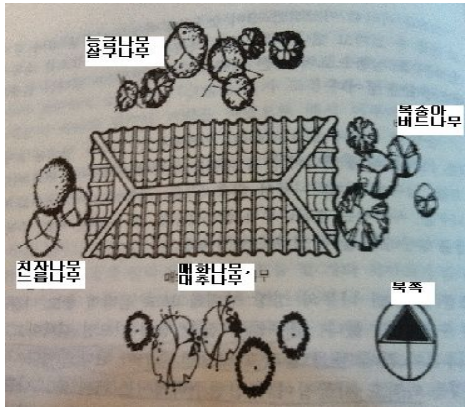
나. 위치에 따른 수목 식재법

집안에 심으면 길한 수종 (모과나무, 대추나무, 괴화나무 등)

집안에 심으면 흉한 수종(살구, 무궁화, 복숭아, 오동나무, 밤나무 등)

방위에 관계없는 수종 (사철, 감나무, 장미꽃 등)

78) 이동영, 전제논문을 참고로 재구성



〈그림 2-21〉 (좌): 수목을 이용한 명당 만들기⁷⁹⁾

〈그림 2-22〉 (우): 이상적인 수목배치도⁸⁰⁾

5. 한국전통정원과 동·서양정원의 비교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중국의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아왔다. 한국 전통정원의 특징과 조원원리의 고찰과 비교분석을 위해 중국과 서양정원의 조원원리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중국정원의 조원원리

중국정원의 경관설계원리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차경으로서 원림의 구성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차경의 종류로는 원차(遠借: 먼 곳의 경물을 차용 하는 법), 인차(隣借: 가까운 곳의 경물을 차용하는 법), 양차(仰借: 높은 곳의 경물을 차용하는 법, 부차(俯借: 낮은 곳의 경물을 차용하는 법)과, 응시이차(應時而借: 시절 풍경에 따라 경물을 차용하는 법)이 있다.⁸¹⁾

둘째는 의경(意境)으로서 의경은 자연의 본질을 조원자가 새롭게 해석하

79) 김두규, 전계서, p.145

80) 상계서, p.146

81) 계성 (김성우·안대회 역), 『원야』, 예경, 1993, p.307

여 주관적 느낌을 대입하여 원림(정원)을 조성하는 기법이다. 의(意)는 주관적 생각을 말하여 경(境)은 자연에 드러난 객관적 풍경을 의미한다. 의경(意境)이라는 것은 비록 자연의 모습을 똑 같이 모방할 수는 없지만 자연의 본질을 자신의 주관적 느낌을 대입하여 원림을 조성할 수 있음을 뜻한다. 82) 셋째는 대비(對比)의 기법으로서 경관과 공간의 대비를 통하여 경관의 심미감을 더해 주고 경관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기법이다.

중국정원의 터잡기에 대한 설계원리에 대해서는 원야(園冶)의 저자인 계성은 인지(因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지세의 환경에 순응하되 精而合宜 (정교하면서 자연지세한 합당한)의 원리를 중요시 하고 있다.

중국의 정원은 대체적으로 자연의 풍광을 사의적으로 표현하여 대자연의 위대함을 정원 안으로 끌어들이어 표현하고 있다. 중국정원은 주로 도가, 불교, 유교의 사상을 표현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2) 서양정원의 조원원리

서양정원의 설계원리로서는 바로크 정원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축(Axis), 비스타(Vista), 그리고 론드 포인트(Rond point)를 들 수 있다.

공간을 구성하는 점적인 설계요소로 론드 포인트가 있고 面的인 요소는 파르테르(자수화단)와 보스케 (Bosquets, 叢林)가 있다. 이들 요소들은 축에 의해서 형태적 시각적으로 강조되는 교차지점에 배치하여 시각적 의미적인 요소로 활용된다.83) 한편, 서양식 정원에서는 주로 Picturesque84), Mystery, Narrativeness85), Illussion기법이 주로 사용되었다.

82) 강태호, 『중국전통원림의 분석』, 시공문화사, 1999, p.14

83) 최석, 「한국전통조경 양식에 나타난 설계언어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연구」, 동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43

84) 그림 같은 전원풍경의 경관을 만드는 기법으로 풍경화의 원리를 조경에 이용하는 경관 구성의 원리로서 근경, 중경, 원경의 단계적인 경관전개 방식을 택하여 단계적인 경관(Sequential view)을 조성하는 기법이다. 이 양식은 시간과 공간의 이동에 따라 다양한 경관을 제공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호기심과 경관의 심미감을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경관을 조성한다.

85) 자연적인 지형과 구불구불한 곡선의 길을 이용하여 조성하여 점진적 장관을 연출하고 경관의 연속성을 통해서 미스터리, 서술성을 표현하는 기법이다. Illusion기법은 공간의 일부를 감추거나 과장되게 표현하여 공간에 대한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기법이다.

정원 조원양식의 기본적인 틀과 원리를 비교해 보면 서양정원은 기본적으로 인공적인 것이 자연적인 것보다 아름답고 인간의 자연지배는 당연하다는 서양인의 인식이 작용하고 있고 동양정원에는 자연적인 것이 더 아름답다는 동양적 사고가 밑바탕에 깔려있다.

[표 2-9]: 동서양의 정원설계 원리 및 기법비교

	중국	한국	서양조경
기본원리	雖由人作, 宛自天開 詩情畫意, 精而合宜 寫意主義	자연조화 음양오행 기 감응	자연에 대한 극복 질서, 비례, 균형 기하학적인 미 이성적인 미학
배경사상	도교, 불교사상	풍수지리사상 유교, 불교사상 삼신오제사상	합리주의, 경험주의
설계기법	산수화 기법 因地, 因借 意境 대비(高低 疏密, 藏露, 虛實)	비보 차경 대칭적 비대칭 구조 인간척도	Axis, Round point, Paterre Picturesque, 곡선, mystery, narrative, Ilusion
정원양식 특성	대규모 자연 풍광식 나열 대비에 중점	이원적 공간 위계질서 표현 비정제성 계절감 뚜렷함	풍경식 정원 대칭적 구조 기하학적 배치

제 3 장 한국전통정원의 풍수해석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아름다운 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여 중국이나 일본과 한국적인 자연풍경식 정원양식이 발달하였다. 우선 건축물은 풍수지리의 배산임수의 원리에 따라 산세의 흐름에 따라 자연환경 훼손의 최소화를 위하여 구릉을 등지고 전면에 물이 보이는 곳에 건축되었다. 이에 따라 정원구성도 건축물의 조형미를 해치지 않고 자연(용맥)이 손상되지 않도록 자연을 조심스럽게 다뤘다.

한편, 건축물의 입지가 풍수지리의 이론과 원리에 따라 정해지다 보니 주 건물의 위치가 혈이 맺어지는 장소, 즉 평지와 구릉이 만나는 산기슭에 정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원공간도 자연스럽게 후원의 개념으로 조성되었고 전정, 중정, 후정, 별정의 공간으로 구분되었다. 조원의 배경사상과 적용원리에 있어서는 정원의 유형별로 정원조성에 반영된 배경사상에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한국의 전통정원은 풍수지리와 음양오행이론을 바탕으로 조원되었고 정원을 통하여 음양의 조화, 우주적 질서, 이상세계에 대한 염원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제 1 절 궁궐정원

조선의 궁궐에 나타난 정원조영의 특징 중 하나는 한양 도읍지의 풍수적 약점을 보완하는데 비보 조경요소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궁궐내부에는 부족한 명당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경희루 연못과 향원지, 부용지등 곳곳에 연못이나 석지(石池)를 조성하여 명당수를 확보하고 있다. 성 외곽에도 동지(東池), 남지(南池), 서지(西池), 북지(北池)를 조성하여 명당수 부족으로 인한 풍수적 결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청계천의 벌어진 수구를 보완하기 위한 수구막이의 일환으로 관왕묘와 가산을 조성하였으며 광화문 해태상 설치, 수살막이 연못조성, 금천의 서수등 다양한 비보가 활용되었다. 한편, 조선시대의 궁궐 건축물과 정원조영에는 풍수지리와 음양오행의 원리가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있음을 사례를 통해 찾아 볼 수 있다.

1, 경복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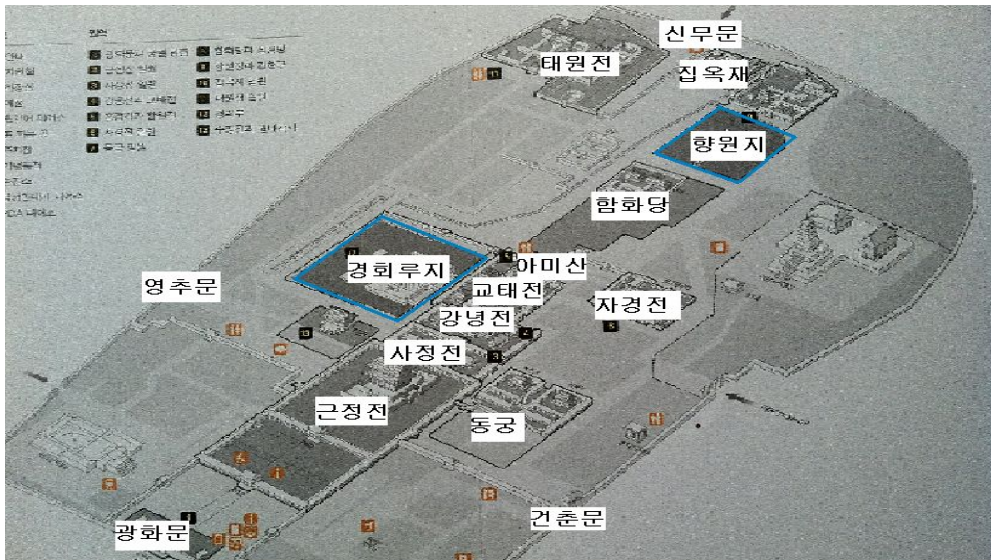
1) 경복궁의 역사와 풍수

경복궁은 1394년 조선의 개국으로 인해 한양으로 천도한 태조가 건립한 궁궐로 ‘행복이 가득한 집’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북악산(일명, 백악산이라고도 함)을 주산으로 하고 인왕산을 우백호, 낙산을 좌청룡, 남산을 안산으로 삼고 있는 조선의 정궁이다. 1592년 임진왜란으로 전소되어 방치되어 오다가 1867년 고종 4년 대원군에 복원되었다. 공간구성을 살펴보면 治朝공간에는 정전(正殿)인 근정전과 편전인 사정전(思政殿), 만춘전(萬春殿), 천추전(千秋殿), 수정전(修政殿)과 경회루가 있고, 外朝공간, 그리고 연조(燕朝)공간에는 자경전(慈慶殿), 강녕전(康寧殿), 교태전(交泰殿) 등이 치조 영역의 북쪽에 자리잡고 있다.

경복궁의 터는 형국론에 따르면 백악 신선이 흥겹게 술에 취해 있는 신선취와형(神仙醉臥形)이다. 경복(景福)이란 궁 이름은 시경 주아(周雅)에 나오는 “이미 술에 취하고 덕에 배불러 군자 만년의 큰복이다.”에서 따온 것이다. (既醉以酒 既飽以德 君子萬年 介爾景福) ⁸⁶⁾

경복궁의 주요 전각들은 남북으로 일렬로 배치되어 있으며 군주남면(君主南面)의 유교사상에 따라 남향으로 배치되었고 풍수지리설에 따라 명당지를 중심으로 전각들이 위치해 있다. 경복궁의 풍수적 배치를 살펴보면 경복궁은 북악산(백악산)을 주산으로 하고 좌측의 낙산을 좌청룡, 우측으로는 인왕산을 백호, 목멱산(남산)을 안산으로 하여 자좌오향(子坐午向)의 정남향 배치를 하고 있다.

86) 이규원, 『세계일보』, 2007. 6.21일자



〈그림 3-1〉 : 경복궁 주요 배치도⁸⁷⁾



〈그림 3-2〉 : 경복궁의 풍수 지세도

한편, 경복궁의 풍수적인 흠을 보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비보수단을 활용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좌청룡인 낙산의 지맥이 약한 것을 보완하

87) 문화재청 경복궁 안내책자 인용

기 위하여 낙산의 끝자락에 산 능선을 뜻하는 ‘지(之)’자를 보태어 동대문의 이름을 흥인지문(興仁之門)으로 명명하였고 동쪽 내수인 청계천의 수구에 송림을 조성하여 수구막이를 하였다.

2) 주요 공간요소에 대한 풍수해석

(1) 근정전의 월대와 드므

근정전의 월대 상단에는 동서남북의 방위에 맞춰 사신사인 청룡, 백호, 주작, 현무의 조각상을 계단의 난간 기둥에 새겨 놓았는데 이는 중앙에 있는 임금의 자리를 사방에서 사신사가 보호하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월대에 설치된 드므(물을 담아놓은 큰 무쇠 솥)가 있는데 이는 풍수 비보술의 하나로 화마가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놀라 도망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경복궁의 잦은 화재를 물로써 다스리고자 하는 풍수염원의 하나로 볼 수 있다.⁸⁸⁾



〈사진 3-1〉 : 경복궁 월대와 드므

(2) 금천(錦川)과 서수(瑞獸)

경복궁은 북악산 남쪽의 길지를 택해 지어졌으나 궁궐 안에는 물이 부족하여 북악산의 남류물길을 서쪽 영추문(迎秋門)에서 동쪽으로 꺾어서 금천을 만들었고 창덕궁의 경우 서쪽 돈화문에서 동쪽으로 흐르게 물길을 잡았다. 이것은 서출동입(西出東入)의 물길이 수윤(水潤)의 성덕을 가져온다

88) 고제희, 『정통풍수 지리교과서4』, 문예마당, 2009, p.173

는 풍수이론을 궁원에 적용한 예로 볼 수 있다. 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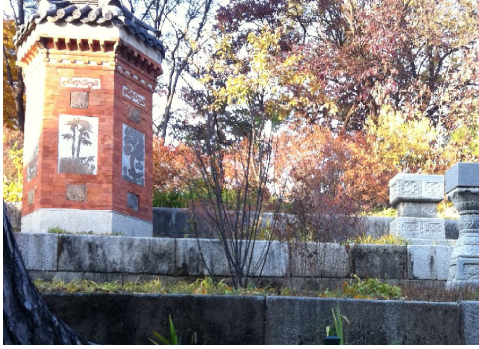
〈사진 3-2〉 : 경복궁 금천교와 서수

아울러 명당수인 금천(錦川)의 역할은 궁궐의 안과 밖을 구분해 주는 경계역할도 담당하지만 풍수적으로 나쁜 기운을 궁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주술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북악산에서 내려오는 용맥 기운이 바깥으로 빠져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명당수의 역할을 하고 있다. 금천(錦川)위에는 다리를 놓고 다리난간이나 도랑축대 주위에 서수(瑞獸)를 조각해 설치해 놓고 있는데 이것은 개천을 따라 들어오는 나쁜 기운과 잡귀를 막아주는 벽사(辟邪)역할을 하고 있다.

(3)아미산(峨眉山)과 굴뚝

아미산(峨眉山)은 경복궁 교태전 후원에 있는 동산으로 경회루지를 조성하면서 나온 흙으로 조산된 산이다. 제왕에 오를 왕자를 잉태하기 위해서는 산의 정기가 가까이에 있어야 하나 교태전은 북악산 아래 평지에 있어 주산의 정기가 흘러들어 오기 어렵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산을 조성하여 풍수적 잉(孕)을 만들고 후원의 이름을 아미산이라 칭하고 있다. 한편 아미산 굴뚝(연가)에는 박쥐와 쇠를 먹고 산다는 상상속의 동물인 불가사리를 조각해 넣고 있는데 이는 박쥐의 복(蝠: 박쥐복)자는 복(福)과 독음이 같아 복을 불러들인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불가사리는 사악한 기운을 막아낸다는 주술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89) 허균, 전계서, p.78



〈사진 3-3〉 : 아미산 연가와 십장생

(5) 내전의 기둥과 열주(列柱)

정사를 논하는 치조(治朝)공간은 동적인 공간으로 양의 공간이며 휴식을 취하는 내조공간은 정적인 공간으로 음을 상징한다.

따라서 정적공간인 강녕전의 기둥은 땅을 상징하는 사각형 즉, 방주(方柱)의 형태를 띠고 있는 반면, 동적공간인 치조공간인 외조공간의 건물들의 기둥은 양의 공간으로 기둥의 형태가 원형을 되어 있는데 이는 천원지방(天圓地方)의 음양의 원리를 표현하고 있다. 한편, 근정전에서 경회루로 가는 서쪽문에 여러 개의 열주(列柱)들은 태방(서쪽)에서 들어오는 살풍(煞風)을 막기 위한 비보(裨補)적 조치이다. 한편, 경복궁의 조산인 관악산의 화기⁹⁰⁾를 억제하기 위하여 광화문 앞에 수기(水氣)를 뜻하는 해태상을 설치하여 비보하고 있다.



〈사진 3-4〉 : 경복궁 열주와 해태상

90) 관악산은 산정상이 바위로 형성되어 있고 형태적으로 화산(火山)에 해당하여 화산을 바라보는 곳에서는 화기(火氣)가 왕성하게 발생하여 화재가 많이 일어난다는 풍수적 해석이 있음.

(6) 경회루 지당(池塘)

잡은 경복궁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성 바깥에 동지(東池), 남지(南池), 서지(西池)등의 인공연못을 조성하여 관악산의 화기를 억제하고 있으며 도성 안에도 연못을 조성하여 건방(乾方)(서북쪽)의 부족한 명당수를 확보하고 있다. 아울러 인왕산에서 내전을 향해 내려오는 石殺의 기운을 막고자 내전과 인왕산사이에 경회루 방형의 연못을 조성하고 경회루 연못을 파고 나온 흙으로 아미산을 조성하여 풍수적 잉(孕)을 만들었다. 아울러 풍수지리의 득수론에 따라 입수구는 사람들 눈에 잘 띄게 한 반면, 물이 나가는 출수구는 눈에 잘 띄지 않도록 하여 혈에서 볼 때 수구에 물이 보이지 않도록 처리하고 있다.



〈사진 3-5〉 : 경회루지의 방도(方島)와 향원지의 원도(圓島)

(7) 향원지 득수처리

경복궁 뒷마당의 香遠池는 일종의 풍수비보로서 경복궁을 향한 백악산의 山殺을 막도록 경복궁과 백악산 사이에 연못을 조성한 것이다. 경복궁 향원지의 연못형태는 음양원리에 따라 방형으로 조성하고 연못 안에는 원도(圓島)를 조성하여 천원지방의 음양원리를 표현하고 있다. 아울러 향원지 섬 안의 원도와 바깥세계를 이어주고 땅과 하늘의 소통을 의미하는 목교를 설치하고 있다.

한편, 향원지의 수원(水源)은 북쪽 호안가에 있는 열상진원(列上眞源)이란 샘물에서 시작되는데 물의 유입을 직각으로 유입된 물이 바로 들어가지

않고 한번 휘돌아서 유입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물의 흐름을 완만히 조절하고 물이 수회(水回)하도록 득수이론에 따라 좋은 물의 흐름을 갖도록 하는 풍수적인 의미가 있다. 아울러 계곡으로부터 흘러오는 차가운 물이 지상에서 잠깐 수곡(水曲)하여 완류(緩流)하는 동안 수온을 조절함으로써 연못안의 어류들이 차가운 물의 급작스런 유입으로 인한 물리적 충격을 완화시켜 주는 생태적 기능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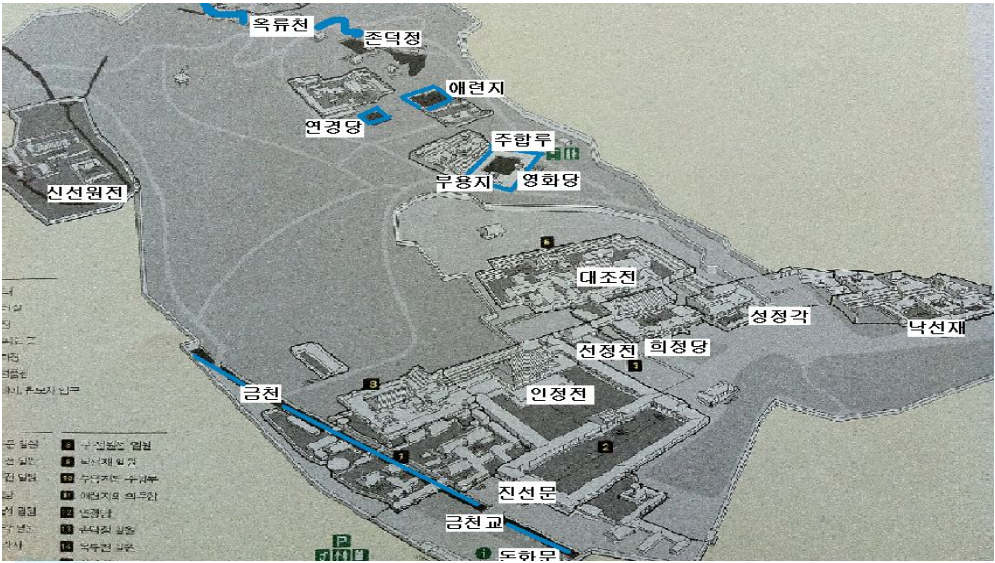
〈사진 3-6〉 : 향원지 열상진원(列上眞源)

2. 창덕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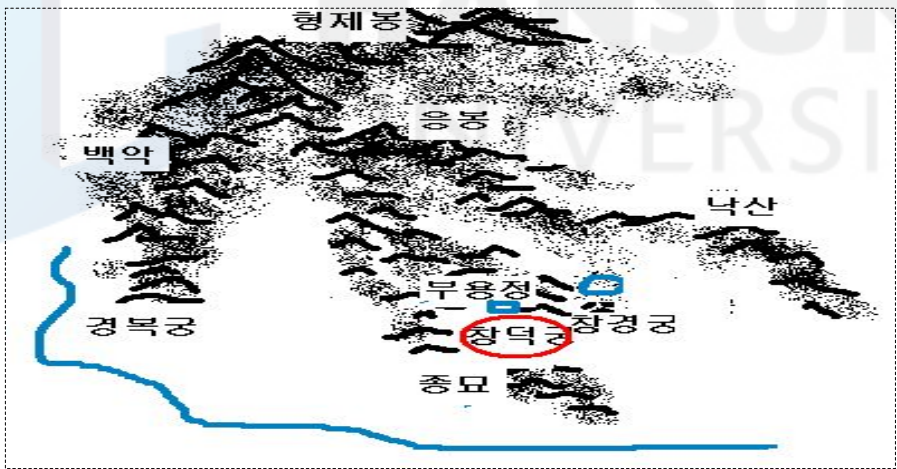
1) 창덕궁의 역사

창덕궁은 1404년 태종 5년 개경에서 한양으로 재건도 시 창건된 離宮으로 주산은 응봉(鷹峰)으로 하고 있으며 일명 ‘동궐’이라고도 일컫는다. 임진왜란 때 전소했으나 1609년 광해군 1년 중건된 이후 230년간 조선왕조의 실질적인 정궁으로 역할을 하였다. 창덕궁은 인위적인 구조를 따르지 않고 자연적인 지형을 따라 주요 건축물들을 배치하여 가장 한국적인 궁궐과 전통정원으로 평가 받고 있다. 왕가의 생활이 편리하게 공간구성이 되어있고 북쪽에는 왕실정원인 후원이 연결 되어 있어 조선왕조 시대의 최대 궁원공간을 가지고 있다. 주요 공간구성을 살펴보면 正殿인 인정전과 편전인 선정전, 왕실의 생활공간으로 대조전과 회정당, 동궁인 성정각, 그리고 낙선재, 연경당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창덕궁의 후원에는 부용지, 애련지의 연못을 조성하고 주합루, 존덕정 등 많은 정자와 누각들이 산세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배치되어 있어 운치를 더하고 있다.



〈그림 3-3〉 : 창덕궁 배치도⁹¹⁾



〈그림 3-4〉 : 창덕궁 풍수 지세도

91) 문화재청 안내책자 인용

2) 주요 공간요소에 대한 풍수해석

(1) 후원의 화계

창덕궁 뒤쪽 후원의 경사지에 조성되어 있는 화계는 용맥을 훼손하지 않고 기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산의 경사면을 절개하는 대신에 화계를 조성함으로써 용맥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보전하고 있는 풍수적 조경의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사진 3-7〉 (좌): 대조전 굴뚝

〈사진 3-8〉 (우): 대조전 후원 화계

(2) 옥류천

옥류천은 후원 북쪽의 가장 깊은 골짜기에 흐르는 천으로 계곡을 따라 다양한 형태의 정자와 경관요소는 조선시대의 궁궐정원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옥류천 계곡안에 조성된 정원의 특성은 지형을 전혀 훼손하지 않고 생태적 방법으로 물길을 조절하고 있는 점이다.

계곡안의 대표적인 경관요소는 소요암의 폭포이다. 인조 14년 (1636년)에 소요암이란 거대한 바위를 깎아내고 바위에 곡선의 홈을 파서 계곡수가 수곡(水曲)하여 폭포로 떨어지도록 하였으며, 흐르는 물위에 술잔을 띄우고 시를 짓는 유상곡수연(流觴曲水宴)⁹²⁾을 벌이기도 하였다.

92) 流觴曲水宴: 353년 중국 동진 소흥지방의 난정(蘭亭)에 당대 명필 王羲之(307-395)를 비롯한 명사 41명이 모여 흐르는 물에 술잔을 띄우고 시를 짓는 유희를 벌였다는 고사에서 유래하였다.

득수론에 따르면 좋은 물의 흐름은 수회수곡(水回水曲)이라 하여 그 흐름이 완만하고 곡을 이루며 흘러야 한다. 소요암 위에 흐르는 물은 둥근 석조를 거쳐 반 회전 한 다음 다시 입수로를 거쳐 물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 풍수지리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진 3-9〉 : 옥류천 곡수거와 폭포

(3) 금천교와 서수

인정전 앞에 흐르는 명당수인 錦川은 주산인 응봉산 주맥을 타고 내려오는 생기가 궁궐 밖으로 빠져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금천교 교각 중심부에 도깨비 형상의 청정(蜻蜓)무사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다리를 지키는 수호신의 역할과 함께 궁으로 들어오는 사기(邪氣)를 막아주는 풍수적 비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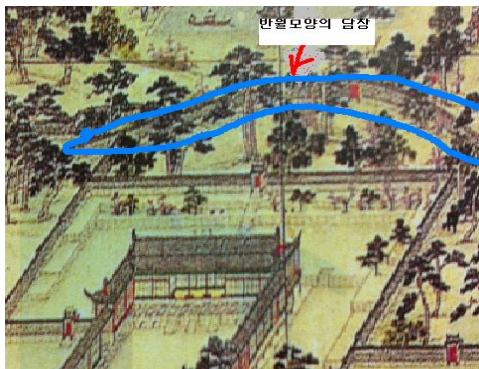


〈사진 3-10〉 : 창덕궁의 금천교와 서수

(4) 담장과 취병(翠屏)

담장의 역할은 외부로부터 침입자를 막는 물리적 기능을 갖고 있지만 풍수적으로는 풍살(風煞)과 산살(山煞)을 막고 지맥을 보호하는 풍수적 기능을 하기도 한다. 자경전의 후원에 반달모양의 담장은 지맥을 따라 흐르는 생기흐름을 적절히 조절해 주는 비보이다. 음양론으로 볼 때 반달은 음에 해당하며 음적 공간은 정신적인 휴식이나 사고에 도움을 준다.

취병은 조선시대 궁궐정원에 나타난 독특한 조경기법의 하나로 살아있는 대나무를 심어 푸른 병풍처럼 만든 일종의 울타리이다. 취병의 기능은 공간의 분할과 함께 내부가 보이는 것을 막아주고 생기가 내외부적으로 소통되도록 하는 풍수적 역할을 한다.



〈사진 3-11〉 : 자경전 후원의 반달담장⁹³⁾

〈사진 3-12〉 : 창덕궁의 후원의 취병

(5) 부용지, 연지, 빙옥지

부용지는 주합루 앞에 조성되어 있는 방지형태의 연못으로 연못중앙에 원형의 섬을 만들어 천원지방(天圓地方)의 원리를 따르고 있다. 풍수적 관점에서 부용지는 주산인 응봉에서 내려오는 산살(山煞)을 막아주는 비보이며 득수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연지와 애련지는 연경당 앞에 조성된 방형 형태의 연못으로 연경당의 임수(臨水)에 해당하며 명당수의 역할을 하고 있다. 애련지의 임수는 차가운 계곡물이 직접 유입되지 않고 물확을 거쳐

93) 장영훈, 전계서, p.189

폭포수 형태로 유입되고 있는데 이는 득수원리에 따라 물의 생기유지를 위해 처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진 3-13〉 : 창덕궁 부용지(좌)와 빙옥지(우)

(6) 연경당의 풍수적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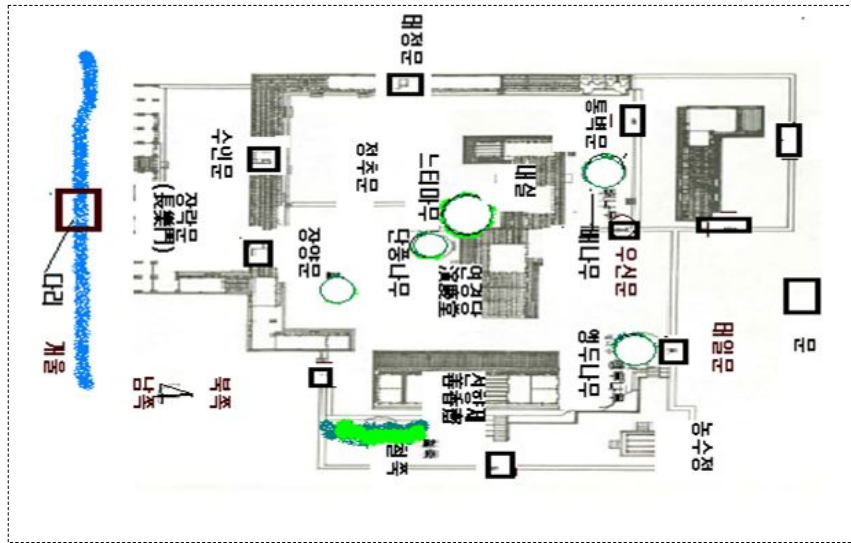
창덕궁 후원에 위치한 연경당(延慶堂)은 순조 28년(1827) 효명세자가 아버지 순조에게 존호(尊號)를 올리는 의례를 행하기 위해 사대부의 집을 본떠 세운 99칸의 궁집으로 단청이 되어 있지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연경당의 건물구성을 보면 사랑채인 연경당은 개방적인데 비해 내당은 폐쇄적이다. 건축적 특징은 건축 내부의 도리 형태를 보면 사랑채는 민도리⁹⁴⁾이고 내당은 굴도리형태로 건축되어 있다.⁹⁵⁾ 또한 안채와 사랑채 모두 네모기둥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천원지방(天圓地方)을 나타내며 음양의 조화를 의미한다.

연경당의 정원공간을 살펴보면 장락문 동쪽에 방지가 있고 이 못가에는 버드나무가 식재되어 있다. 버드나무는 생태적으로 물을 좋아하는 나무로서 풍수에서는 득수가 필요한 곳에 심고 동쪽에 심으면 가축이 번성한다

94) 민도리집: 기둥이나 벽체 윗부분이 도리와 장여 사이에 소로 없이 도리와 장여만으로 된 한식 주택을 말한다. 도리는 기둥 위에 놓아 서까래를 거는 부재이며, 장여는 도리를 받는 긴 부재로 기둥머리에 연결된다. 도리와 장여 사이에 소로(小櫺)받침이라는 네모난 작은 토막을 일정한 간격으로 넣은 것이 납도리집이다, (출처: 두산 백과사전)

95)굴도리집: 둥근 모양의 도리로 꾸민 집으로, 향교·서원·정자 건축에 주로 이용하였다. 민도리집은 서까래를 받는 처마도리의 단면이 네모난 납도리집과 둥근 모양의 굴도리로 지은 굴도리집으로 나뉜다. (출처: 두산 백과사전)

는 태목론의 배식기법을 따르고 있다.



〈그림 3-5〉 : 연경당 배치도와 수목식재

한편, 연경당 남쪽에 연못 조성되어 있는데 이는 주작을 상징하는 명당수이다. 아울러 이 연못은 주산인 응봉에서 내려오는 생기가 머물도록 하는 역할과 함께 옥류천의 곡살(谷煞)을 방어하는 비보기능을 하고 있다. 장락문 앞의 금천은 풍수지리의 ‘기승풍산(氣乘風散), 계수즉지(界水卽止)의 원리 (생기(生氣)는 바람을 타면 흩어지고 물을 만나면 멈춘다)를 적용한 것으로 생기보호와 함께 외부로부터의 사기(邪氣)방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사진 3-14〉 : 연경당 앞의 연못과 금천교

연경당 선향재 안마당에는 커다란 석조가 배치되어 있는데 이는 명당수를 얻기 위한 풍수적 득수비보이며 방화수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연경당에는 총 12개의 크고 작은 문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문은 본래 기의 출입통로로서 풍수에서는 문의 위치와 방향, 그리고 크기를 중요시하고 있다. 연경당의 12개의 문은 12간지를 의미하며 풍수상 “문은 서로 마주보지 않도록 배치되어야 한다”는 풍수이론에 따라 12개의 문이 서로 일직선으로 마주보지 않게 엇갈려 설치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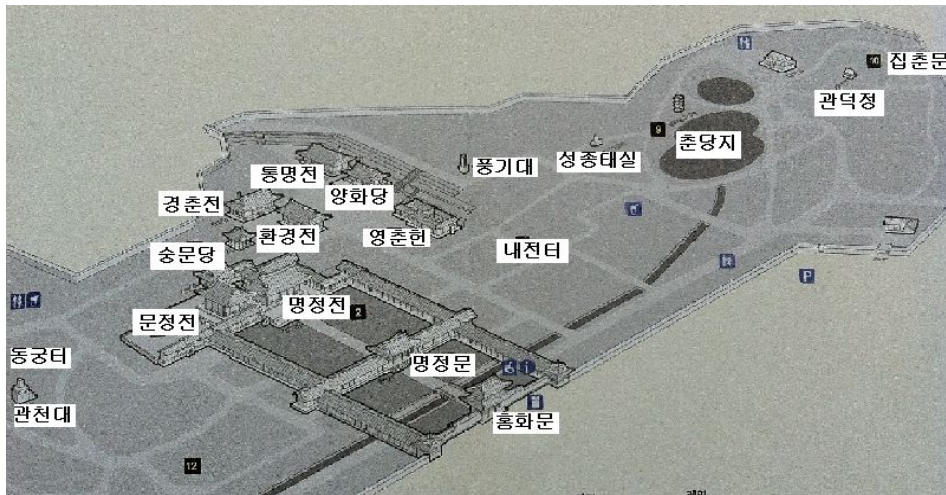


〈사진 3-15〉 : 연경당의 느티나무와 석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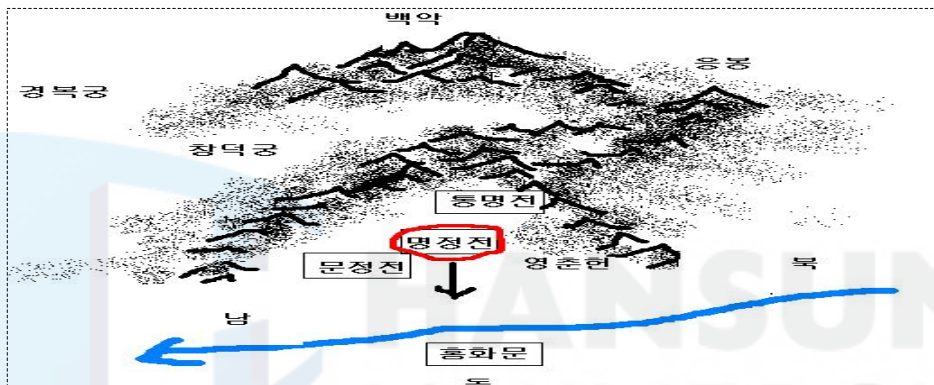
3. 창경궁

1) 창경궁의 역사

창경궁은 성종14년(1483년)에 수강궁을 확장증축하면서 창경궁으로 이름을 변경 되었고 임진왜란 때 전소된 것을 광해군 8년(1616년)에 복구 되었다. 유난히도 화재가 많았던 창경궁은 일제 강점시대에 왕기 말살정책 차원에서 창경원으로 강등되어 동물원으로 사용 되었으나 1984년 다시 창경궁으로 이름이 복명(復名)되었다. 창덕궁의 주요 공간구성을 보면 창경궁의 정전인 명전전, 편전인 문정전을 비롯하여 내전인 통명전, 경춘전, 환경전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풍수적 특기사항으로서는 정전인 명전전이 경복궁이나 창덕궁의 정전처럼 남향으로 배치되지 않고 배산임수의 풍수논리⁹⁶⁾에 따라 동향으로 배치된 점을 들 수 있다.



〈그림 3-6〉 : 창경궁 배치도⁹⁷⁾



〈그림 3-7〉 : 창경궁의 풍수 지세도

2) 주요 공간요소의 풍수해석

(1) 명정전 동향배치

창경궁의 정전(正殿)인 명정전을 남향으로 배치 시 〈그림 3-7〉에서 보는 것처럼 명당수인 옥천이 명정전 옆으로 직류하여 생기(生氣)가 물을 따라 빠져 버리는 풍수적 문제가 발생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풍수적 문제

96) 남향 배치 시 명당수인 옥천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명정전과 평행하게 직류로 흘러가 생기가 멈추지 않는 풍수적 단점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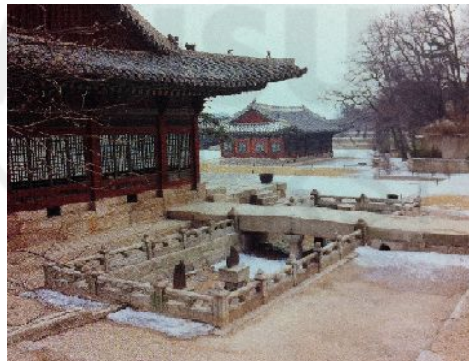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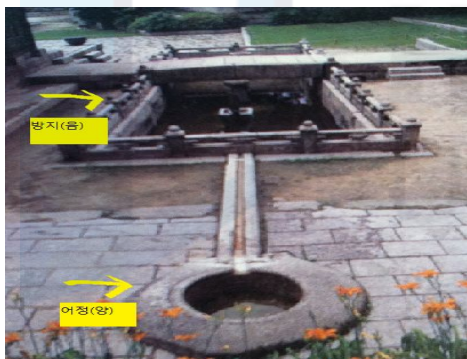
97) 문화재청 창경궁 안내책자 인용

를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명정전을 동향으로 배치하여 배산임수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2) 통명전의 방지(方池)와 석교

통명전은 정면7칸 측면4칸의 세 벌대 기단위에 네모뿔대의 초석을 놓고 네모기둥을 세워 이익공을 놓은 단층 팔작집으로 왕비의 정침(正寢)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통명전의 서북쪽 화계 앞에는 원형으로 된 어정(御井)이 하나 있고 월대 서쪽으로 돌로 둘레를 두른 장방형의 방지가 있는데 이 방지를 건너 통명전으로 들어 갈 수 있도록 다리가 놓여 있다.

통명전 앞의 방지(方池)는 주산인 응봉에서 발생한 생기가 통명전 바깥으로 빠져 나가지 못하게 하는 계수즉지(界水即止)의 풍수이론에 따라 조성되었다. 음양론에 따르면 방지는 음(陰)을, 원형의 어정은 양(陽)을 뜻한다. 음양이 방지의 물길을 따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는 왕자생산을 위한 음양의 상합(相合)을 뜻하고 있다. 그리고 방지의 다리를 건너서 통명전으로 출입하도록 한 것은 현명한 왕자생산을 위하여 속세의 때를 말끔히 씻고 통명전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사진 3-16〉 (좌): 통명전 방지와 어정⁹⁸⁾

〈사진 3-17〉 (우): 통명전 석교⁹⁹⁾

(3) 옥천교 서수

98) 주남철, 전계서, p.145

99) 정재훈, 전계서, p.267

옥천(玉川)은 창경궁의 명정문과 홍화문 사이를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로질러 흐르는 명당수로서 두 개의 홍예로 구성된 옥천교가 설치되어 있다. 옥천은 물길의 구조상 명정전 앞을 직선으로 흐르고 있어 풍수에서 말하는 산수동거(山水同去)에 해당하여 생기가 모이지 않는 풍수적으로 좋지 않은 물의 흐름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풍수적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옥천의 물줄기를 약간 틀어서 곡선으로 만들었다.

[표 3-1]: 궁궐정원의 풍수해석 요약

궁궐별	풍수적 요소	풍수적 해석과 의미	풍수론 및 조성원리
경복궁	근정전 월대/드므	사신사 기능(월대), 염승	비보의 원리
	금천, 금천교, 서수	수구막이, 기의 보전, 斥邪,	득수론
	아미산과 굴뚝	풍수 잉(蛾眉) 역할, 주술적 의미(辟邪)	간룡법, 신선사상(굴뚝)
	아미산 화계	용맥보전	간룡법
	건축물의 기둥	음양의 조화	음양오행의 원리
	경회루 지당	풍수비보, 석살방어,	음양오행의 원리, 비보의 원리
	향원지	풍수비보, 산살방어, 생기생성	비보의 원리, 득수법
	양의문(兩儀門)	음양의 조화	음양오행의 원리
	일화문, 월화문	풍수비보(日+月=明堂), 생기흐름의 조절	비보론
창덕궁	인정전 드므	사신사 기능(월대), 염승	비보의 원리
	금천교, 서수	수구막이, 기의 보전, 斥邪,	득수론
	옥류천 소요암	생기 발생,	득수론
	인정전 담장	황천살 방어, 장풍효과	장풍법
	자경전 반달 담장	지맥보호, 잉(孕) 역할	음양오행
	부용지, 애련지, 연지	풍수비보, 산살(山煞)방어,	음양오행의 원리, 비보의 원리
	돈화문앞 회화나무	풍수식재(삼정승 상징)	택목론
	연경당 도리형태	음양조화, 천원지방	음양오행의 원리
	연경당 식재, 화계	풍수식재, 지맥보호,	택목론, 간룡법
창경궁	명정전 배치와 옥천	명당수의 직류회피, 생기보완	득수론
	통명전 방지, 석교	명당수 확보, 斥邪	득수론

제 2 절 민가정원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민가의 정원공간구성의 특징은 집 앞의 들에서 시작하여 전정(前庭), 中庭 그리고 자연 상태의 뒤뜰(후원)로 이어지는 단계적전이가 이루어지며 공간별로 기능적 역할이 다르다는 점이다.

전원(前園)은 집 앞의 들과 동산을 총칭하며 풍수적으로는 안산(案山)에 해당 한다. 전정(前庭)은 공간적으로 앞뜰에서 대문까지를 말하며 진입 및 매개공간으로 半인공적 공간인 앞뜰로 탈곡과 야적등을 위한 작업공간이다. 전정은 풍수적으로 외명당에 해당하며 전정부분에 연못(지당)을 조성하여 명당수로 삼고 있는데 이는 풍수설에서 말하는 주작(朱雀)의 오지(汚池)에 해당한다.

한편, 민가주택과 정원의 조영원리에 대해서 홍만선은 산림경제에서 “무릇 주택의 좌측에 흐르는 물을 청룡이라 하고 오른쪽에 조성된 길다란 길을 백호(白虎)라 하며 앞뜰에 조성된 연못을 주작이라 하고 집 뒤안의 구름을 가르켜 현무(玄武)라 하는데 이 모든 것이 갖춰진 집터를 최고라 볼 수 있다”고 하여 풍수적으로 사신사가 잘 갖춰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¹⁰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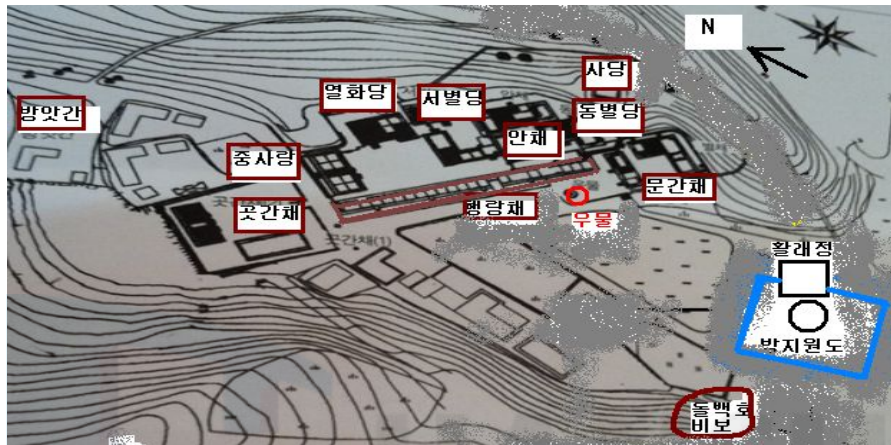
전통적인 민가정원의 식재원리는 기본적으로 소나무와 향나무를 주로 심었으며 택목론에 의거 전정(前庭)에는 큰 나무를 심거나 산만하거나 기묘한 모양의 점경물을 두지 않았고 뜰에 식재되는 식물은 기능적, 생태적 측면과 실용성, 상징성을 가진 식물을 위주로 식재하였다. 아울러 식재장소와 식재방위에 있어서도 풍수적 사상과 음양오행원리를 반영하고 수목에 인공적인 전정을 가하지 않는 등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 하였다.

1. 선교장 (船橋莊)

1) 조영의 역사와 특징

100) 홍만선, 『국역 산림경제1』, 민족문화 추진회, 한국학술정보, 2007, p.67, 凡住宅左流水謂之青龍, 右有長道謂之白虎 前有汚池謂之朱雀, 後有丘陵謂之玄武, 爲最貴之必用攻事”

선교장은 효령대군의 11세손인 가선대부 이내번이 1700년대 중엽에 현재의 선교장 위치에 정착하면서 건축한 집으로 후손인 이후(1773-1832)가 순조 15년(1815년)에 사랑채인 열화당(悅話堂)을 건축하였고 순조16년에 이근우가 활래정(活來亭)을 조영하였다. 선교장은 우리나라 상류주택의 전형으로 분산된 건물 배치를 통하여 자유스럽고 활달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공간구성이 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선교장의 명칭유래는 과거에는 경포호수가 이곳까지 이어져 있어 배로 다리를 놓아 건넜다 하여 ‘배다리 마을’이라 하여 선교장(船橋莊)의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그림 3-8〉 : 선교장 배치도¹⁰¹⁾

2) 선교장의 풍수해석

선교장은 장풍이 뛰어난 풍수적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풍수 형국상 배가 정박하고 있는 박주형(泊舟形) 또는 노서하전형국(老鼠下田形局)으로 볼 수 있다. 선교장의 풍수지세를 관찰해 보면 대관령에서 동해쪽으로 내려온 산세의 한 가닥이 오죽헌을 만들고 거기서 다시 동북쪽으로 올라가 시루봉으로 솟고 여기서 뭉친 기맥이 경포대 앞에서 멈추면서 혈을 만들고 있다. 이 혈 자리에 선교장이 자리를 잡고 좌청룡과 우백호가 안온하게 감싸고 있으며, 집터의 방향은 좋은 경관이 보이는 동쪽을 향하지 않

101) 주남철, 전계서, p.230를 토대로 재구성

고 산세의 흐름에 따라 남서향으로 되어 있다.

한편, 풍수지리의 득수론 관점에서 볼 때 오른쪽 백호지세가 좌측의 청룡맥에 비해 미약하고 수구가 많이 열려있어 기가 빠져 나갈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풍수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건물을 남서향으로 배치하고 수구가 보이지 않게 하고 있다. 아울러 행랑채를 길게 배치하여 수구가 보이지 않게 차폐하고 백호의 약한 기를 보강하기 위하여 우백호 끝부분에 돌 백호를 포치시켜 비보하고 있다.



〈그림 3-9〉 :선교장의 풍수 지세도와 백호비보

한편, 기는 물을 만나면 멈춘다는 풍수지리의 이론에 따라 방지형태의 연못을 선교장 입구부분에 조성하여 생기가 빠져 나가지 않도록 하고 있다. 방지방도를 조성하여 생산을 주관하는 地神에게 자손의 번영과 재물의 풍부함을 기원하고 있다. 선교장의 현무인 뒷동산의 기맥을 보강하고 장풍효과를 위하여 비보수(소나무)가 식재되어 있으며 풍수지리의 식재원리에 따라 정원수가 식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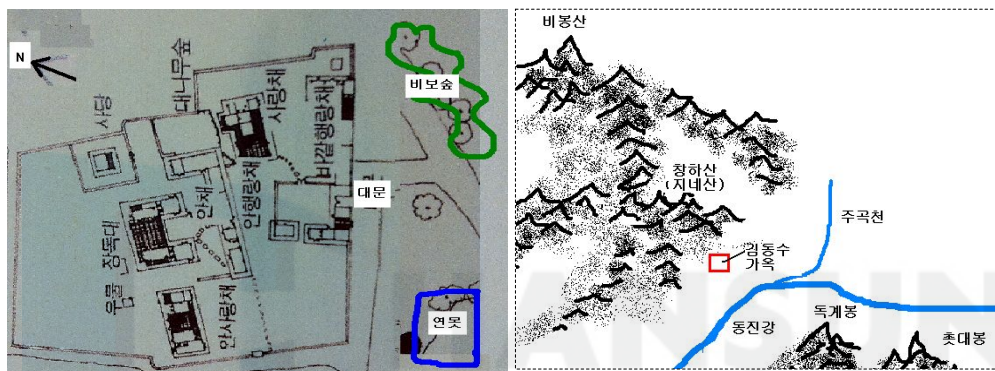
[표 3-2]: 선교장의 풍수 식재 현황

식재장소에 따른 의기 (宜忌)	연지(蓮池): 연꽃, 무궁화, 소나무, 배롱나무
방위에 따른 식재 및 의기	후원: 떡갈나무, 소나무, 단풍나무 북쪽: 소나무, 단풍나무 서남쪽: 떡갈나무, 배롱나무, 연꽃 북서: 매화나무, 대나무, 소나무

2. 김동수 가옥

1) 조영역사와 특징

김동수 가옥은 전라북도 정읍시 산외면 오공리 공동마을(蚣洞)에 위치하고 있으며 김명관 (1755-1822)이 1784년에 완공한 양반주택이다. 지형적으로는 북쪽에 상두산, 비봉산, 창하산(일명 지네산)이 차례로 마을을 감싸고 동진강 지류인 주곡천이 흐르는 전형적인 배산임수 지형에 동남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김동수 가옥은 조선후기 전형적인 사대부의 주택모습을 갖고 있으며 건물구조가 소박하고 내부구조의 독창성과 실용성이 뛰어나며 주변지형과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



〈그림 3-10〉 : 김동수 가옥 배치도¹⁰²⁾

〈그림 3-11〉 : 김동수 가옥 풍수 지세도

2) 풍수해석

김동수 가옥의 풍수형국은 가옥전면에 동진강이 임수(臨水)하고 멀리 독계봉을 안산으로 하는 전형적인 배산임수형의 명당에 위치하고 있으며 적선과 분배, 장수와 번영을 상징하는 평사낙안(平沙落雁)형이다. 화견산의 화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숲 띠와 집 앞에는 지당을 조성하여 화기를 비보하고 있다. 또한 느티나무 숲을 반월 형태로 조성하여 주산인 지네산까지

102) 정재훈, 전계서, p.212를 토대로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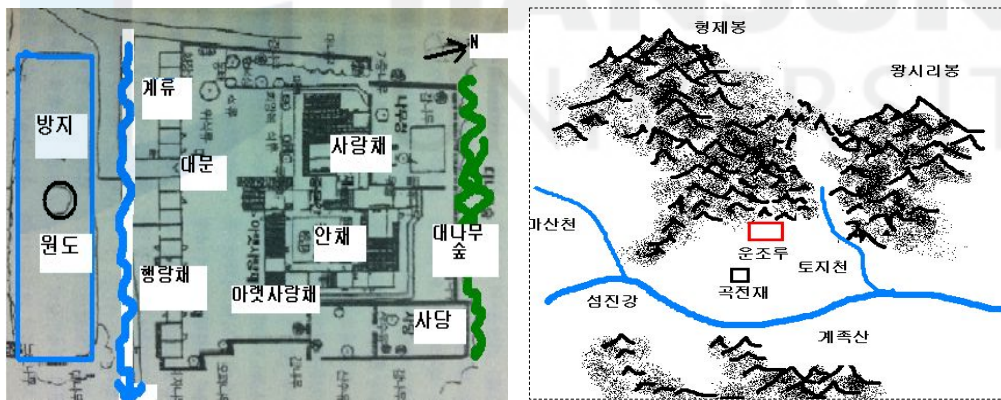
기맥이 연결되도록 보완하고 있다.

한편, 마을을 중심으로 지네산 좌우에는 이치마을(삼팽이)과 구정마을(개)이 위치하고 있어 오공마을(지네)과 독계봉(닭)등의 마을과 산이 서로를 견제하고 상생균형을 추구하는 풍수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103) 아울러 바깥마당에 지령이 몸통형태의 연못을 조성 하였는데 이는 독계봉의 닭 먹이를 지령이로 보고 이를 풍수적으로 형상화 한 것으로 해석된다.

3. 운조루(雲鳥樓)

1) 조영역사와 특징

운조루는 전라남도 구례군 토지면 오미리에 있는 전라도 지방의 전통적인 양반가옥으로서 유이주가 낙안군수로 재임 시 1771년에 착공하여 3년에 걸쳐 1776년에 완성되었다. 배치형식은 품(品)자형 주택으로 전라도 지방에서 보기 드물게 ‘口’자형태를 띠고 있으며 공간구성 특징은 성리학의 영향을 받아 남녀공간과 접객공간, 제향공간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유교적 질서에 따라 건물이 배치되어 있다.



〈그림 3-12〉 (좌): 운조루 배치도¹⁰⁴⁾,

〈그림 3-13〉 (우): 운조루의 풍수 지세도

103) 홍광표, 『한국의 전통조경』,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1, p.93

104) 상계서, p.93을 토대로 재구성

2) 풍수해석

운조루는 형제봉을 주산으로 하고 동쪽의 왕시루봉을 청룡, 서쪽의 천왕봉이 백호, 전면의 계죽산을 안산으로 삼고 있는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길지에 입지해 있다. 형국적으로는 집 앞에 넓게 펼쳐진 들이 있어 풍수적으로 입에 물고 있는 금가락지를 땅에 토해 놓은 땅이라는 금환낙지형(金環落地形)에 해당한다. 운조루의 풍수적 요소로는 행랑채 앞에 음양오행원리에 따라 방지원도(方池圓島)의 명당수를 확보하고 있으며 풍수의 계수즉지(界水卽止)의 원리에 따라 대문 앞에 개울을 가로지르게 흐르도록 조성하여 주산의 생기가 바깥으로 빠져 나가지 않도록 하고 있다.

[표 3-3]: 민가정원의 풍수해석 요약

민가정원	정원개요	풍수형국	연못	풍수요소
선교장	조영자: 이내번 작성년도:1700년대 규모:55칸	泊舟形 老鼠下田形	있음 (방지)	비보숲 (용맥비보)
김동수 가옥	조영자:김동수 작성년도:1784년 규모:75칸	平沙落雁형	있음 (지네모양)	비보숲(용맥연결, 장품비보) 비보연못(지네모양)
운조루	조영자:유이주 작성년도:1776	금환낙지형 (金環落地形)	있음 (방지)	비보연못

제 3 절 별서정원

별서는 산수가 좋고 경관이 뛰어난 위치에 자리한 일종의 별장개념의 주택으로 고려시대 후기부터 등장하여 조선시대에 들어 전국의 경치가 좋은 장소에 주로 건립되었다. 별서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우주 철리를 논하기 위한 강학의 장소로도 활용 되었으며 통상 작정자의 거주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유교적 사상이나 또는 작정자의 자연관이 반영된 이름이 지어졌다. 별서정원에는 공통적으로 방지형태의 연못과 원형의 섬이 조성되었는데 이는 천원지방의 태극사상과 음양사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되며 주위에 있는 바위에 자신의 인생관 또는 도교적인 우주관을 나타내는 글자를 음각하여 자연을 사유(思惟)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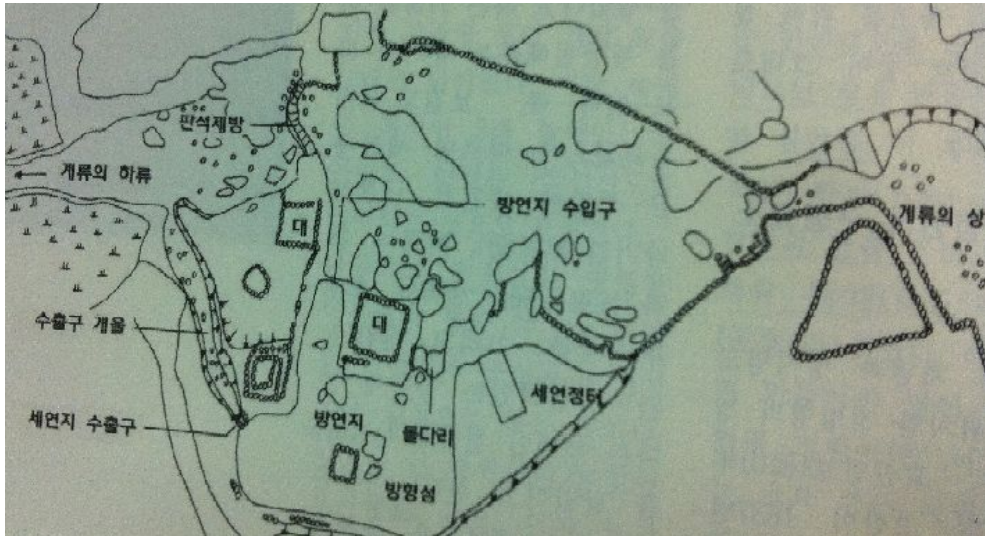
별서정원의 조영배경사상으로는 은일개념의 도교사상, 유교적 자연관, 그리고 신선사상이 영향을 주었으며, 조영기법에 있어서는 음양오행의 원리와 풍수지리 이론이 활용되었다.

1. 부용동 정원

1) 부용동의 역사와 특징

부용동 정원은 조선중기의 문신인 윤선도(1587-1671, 호는 고산이며 자는 약이)가 병자호란을 계기로 은둔을 위해 탐라로 가던 중 보길도의 아름다운 경치에 이끌려 그곳에 정착하면서 조성한 별서정원이다.

부용동의 공간구성은 크게 고산의 강학공간과 생활공간인 낙서재(樂書齋)와 곡수당(曲水堂), 자연과 벗하며 자연과 동화되고자 하였던 동천석실(洞川石室)영역, 그리고 자연을 완상하고 유희공간의 목적으로 조성된 세연정(洗然亭)영역으로 구분된다.



〈그림 3-14〉 : 부용동 배치도¹⁰⁵⁾

2) 부용동의 풍수해석

부용동은 격자봉을 주산, 운산을 안산으로 하여 좌우측의 산세가 유정하게 낙서재를 감싸 안고 있는 연화부수형의 전형적인 명당에 자리하고 있다. 격자봉에서 서쪽의 낭음계로 뻗어내린 산맥은 내청룡의 맥이 되고 하한대로 내려가는 산세가 우백호를 형성하고 있다. 낙서재 북쪽으로 산허리에 동천석실이란 정자를 세우고 바위와 바위사위엔 연못을 파서 명당수를 확보하고 있다. 세연정의 연못으로 흘러 들어가는 계류에는 판석보를 이용하여 계담을 조성하였는데 이는 경관목적과 더불어 득수론에 따라 생기가 넘치는 물의 흐름을 만들려 하는 풍수적 의미를 담고 있다.

아울러 판석보의 또 다른 풍수적 기능은 계류로 인해 끊어진 생기의 흐름을 계담 건너편의 지맥과의 연결을 통하여 생기가 부용동의 주 정주공간인 낙서재로 연결되도록 하는 풍수적 비보역할을 하고 있다.

105) 홍광표, 전계서, p.196



〈그림 3-15〉 : 부용동의 풍수 지세도

2. 서석지

1) 서석지의 역사와 특징

서석지는 경북 영양군 입암면 연당리에 위치해 있으며 1610년 석문 정영방(1577-1650)의 별서(別墅)로 석문이 36세때인 광해군 5년(1613)에 조영된 별서정원이다. 정원의 면적은 450평이며 대박산을 주산으로 남록(南麓)의 완만한 경사지에 정면4간 측면 2간의 경정(敬亭)과 주일재(主一齋)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주 건물인 경정앞에 방지형태의 연못을 조성하여 60여개의 경석(景石)을 포치하였으며 사우단(四友壇)이란 화단을 조성하여 소나무, 매화, 대나무, 국화를 식재되어 있다.

서석지의 연못 속에는 많은 경석들 (당초 60여개였으나 현재는 19개만 남아있음)이 포치되어 있는데 각 경석마다 자연현상과 신선, 동물, 꽃등을 상징 하는 이름을 부여 하여 신선의 삶을 살고자 했던 조영자의 인생관이 반영되어 있다.



〈그림 3-16〉 (좌): 서석지 배치도¹⁰⁶⁾

〈그림 3-17〉 (우): 서석지 풍수 지세도

2) 풍수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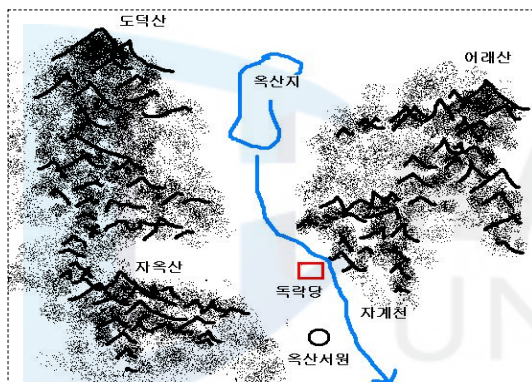
서석지는 배산임수의 풍수이론에 따라 동천이 서석지를 환포(環抱)하는 지형의 안쪽에 위치해 있으며 주 건물인 경정(敬亭)은 남동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출입구 대문의 위치는 주 건물의 좌향과 다르게 남서향으로 되어 있으며 대문 앞에 행단을 조성하고 학자수(學子樹)와 다산(多産)의 상징인 은행나무를 식재되어 있다.

한편, 경정(敬亭)의 전면에는 전통정원의 일반적인 형태인 방지(方池)를 조성하여 연꽃을 식재하고 있는데 이는 명당수로서의 연못의 풍수적 기능과 더불어 물의 순환을 통한 건물주변의 온도조절과 연꽃의 수질정화 기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풍수의 득수법에 따라 입수구(입청거)를 경정(敬亭)에서 보이도록 한 반면 출수구(토예거(吐穢渠))는 보이지 않도록 처리하고 있다.

106) 한국전통조경학회, 『동양조경문화사』, 대가, 2011, p.296

독락당은 계곡의 중간지점인 평지에 위치한 관계로 가까운 거리에 주산이나 안산이 없는 지형의 특성으로 인해 사신사가 잘 갖춰져 있지 않은 풍수적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풍수적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작정자인 이언적은 동서남북을 둘러싼 4개의 산을 골라 북쪽 봉우리를 도덕산, 남쪽 봉우리를 무학산, 동쪽과 서쪽 봉오리를 각각 화개산(華蓋山)과 자옥산(紫玉山)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있다.

독락당으로 들어가는 주 출입구는 매우 좁게 되어 있어 풍수상 전착후관(前窄後寬)의 원리를 따르고 있고 자계(紫溪)천을 따라 담장을 쌓아 산살(山煞)이 들이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담장의 일부구간을 살창으로 조성하여 통풍과 기의 흐름이 원활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울러 독락당의 북쪽 협문을 들어서면 계류가에 ‘ㄱ’형태의 계정(溪亭)이 있는데 바위의 생김에 따라 기둥의 길이를 달리하여 건축 하였는데 이는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풍수적 자연관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 볼 수 있다.



〈그림 3-19〉 (좌): 독락당의 풍수 지세도

〈사진 3-17〉 (우), 독락당 살창

제 4 절 사찰정원

조선시대의 사찰은 거의 대부분이 풍수지리이론에 따라 명산의 명당에 입지하고 도선국사의 비보사상이 공간조영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사찰의 공간구성의 특징으로는 우선 자연과의 조화를 중요시 하였으며, 풍수지리

사상에 따라 물을 얻기 쉽고 바람이 갈무리 되는 명당에 터를 잡았다.

사찰의 주 건물인 대웅전은 명당의 혈 자리에 포치시키고 있으며, 주변산과의 조화와 풍수적 형국을 고려하여 건물의 좌향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입구로부터 중심공간에 이르기까지 몇 개의 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공간의 전이에 따른 계층적 질서를 표현하고 있다.

주로 산지에 입지한 사찰은 계류의 다리를 건너 사찰공간에 진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속세와 현세를 구분하는 경계적 의미로 다리를 건넌으로써 세속의 때를 벗고 참선의 세계로 진입하는 의미를 갖는다.

한편, 사찰 앞의 계류는 용맥을 타고 내려온 생기가 물을 만나 멈추고 사찰 내에 머물도록 하는 풍수적 기능을 하고 있으며 통상 혈자리에 사찰의 중심건물인 대웅전이 배치되어 있다.

1. 선암사

1) 선암사의 역사와 특징

선암사는 전라남도 승주군 승주읍 죽학리에 있는 조계산(해발 884m) 자락에 자리 잡고 있다. 백제 성왕 7년(529) 아도(阿道)가 개산(開山)하여 비로암(毘盧巖)이라 불렀고 그 후 신라말에 도선국사가 중건하면서 선암사로 개명하였다는 설이 있다. 정유재란으로 모두 불탔으나 숙종2년(1698) 약휴대사가 중창하였고 그 후 몇 번의 중수(重修)와 복원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선암사의 가람배치는 경사진 지형을 여러 개의 축단으로 조성하여 불전(佛典)을 배치하고 중심축을 중심으로 독립된 공간으로 꾸며진다. 선암사의 진입공간에는 반원형의 아름다운 홍예(虹霓)교인 승선교가 있어 속세를 건너 선계로 가는 경계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 3-20〉 : 선암사 배치도와 장풍배치¹⁰⁸⁾

2) 풍수적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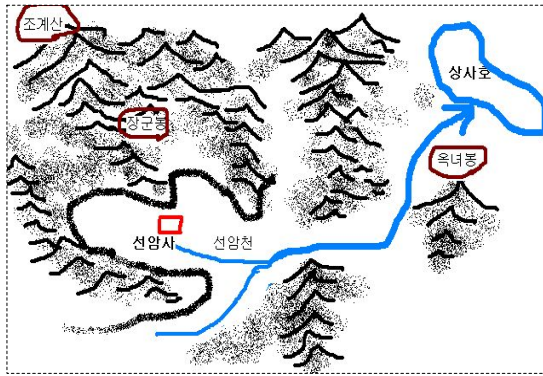
선암사는 조계산 동남쪽 장군봉을 주산으로 하고 조계산의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명당수가 시작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선암사의 배치형국은 웅장한 기상을 보여주는 장군대좌(將軍對座)형의 형국이다. ¹⁰⁹⁾

선암사의 풍수적 특성으로는 혈자리에 위치해 있는 대웅전을 중심으로 좌우측으로 사신사의 역할을 담당하는 건물들을 배치하였다. 왼쪽(좌청룡)으로는 지장전과 심검당이 배치되어 있고 우측(우백호)으로는 웅향각과 설선당이 배치되어 있다. 아울러 장풍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설선당 바깥쪽으로 천불전과 창과당을 배치시켜 외백호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선암사의 진입공간에는 비정형의 연못 삼인당(三印塘)이 있어 장군봉에 내려오는 생기가 빠져나가지 않고 경내에 머물도록 득수비보를 하고 있다.

설선당 담장 바깥에 있는 두 개의 방지는 측간을 향해 들이치는 산살을 방어하는 비보역할을 하고 있다.

108) 주남철, 전계서, p.256를 토대로 재구성

109) 정재훈, 전계서, p.380



〈그림 3-21〉 (좌): 선암사의 풍수 지세도

〈사진 3-18〉 (우): 선암사 승선교¹¹⁰⁾

2. 실상사

1) 실상사의 역사와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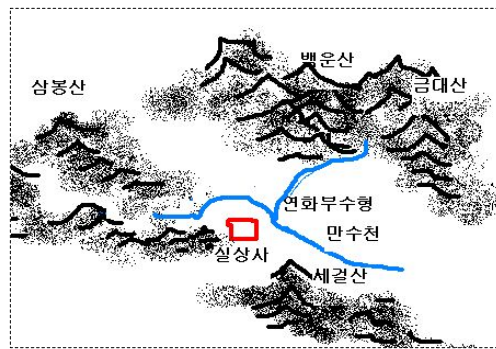
실상사는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 입석리에 위치해 있는 우리나라의 최초 선종 사찰로서 신라 흥덕왕 3년 (828년) 홍척(洪陟)에 의해 창건된 사찰이다. 실상사의 주요 공간구성은 보광전과 석등, 3층석탑이 있는 본원공간과 극락전이 있는 서원(西院)공간으로 나뉜다.

2) 풍수적 해석

실상사는 남쪽에 삼정산(해발 1,182m), 동쪽에 백운산, 북쪽에 삼봉산(해발 1,187m), 서쪽에 백두산과 세걸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에 위치해 있어 연화부수형 또는 행주형의 명당터에 자리 잡고 있다. 사찰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만수천(萬壽川)을 건너야 하는데 만수천은 속세와 정토를 구분 짓는 경계선의 역할을 하고 있다. 대웅전에 해당하는 보광전은 주산인 삼정산의 산세흐름을 따르지 않고 천왕봉을 향해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으나 주변

110) 아주나의 조경이야기 카페 (<http://cafe.daum.net/ajunaland>)

가까운 곳에 사신사가 없는 형국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보광전 앞에는 명당수의 역할을 하는 방지형태의 연못(음)을 조성하여 명당수를 확보하고 있으며 그 옆에 원형(양)으로 된 돌담을 쌓아 음양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



〈사진 3-19〉 (좌): 실상사 방지와 원형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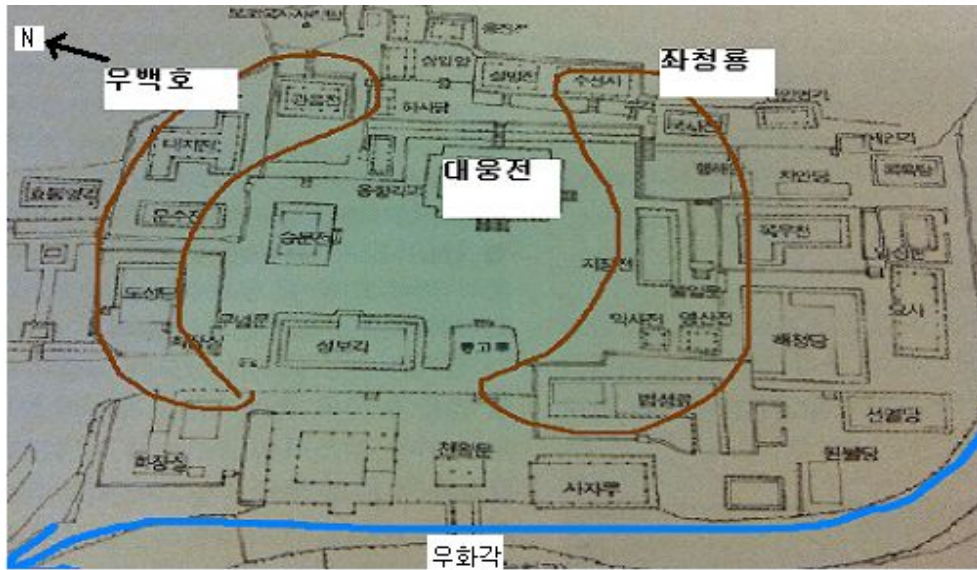
〈그림 3-22〉 (우): 실상사의 풍수지세도

3. 송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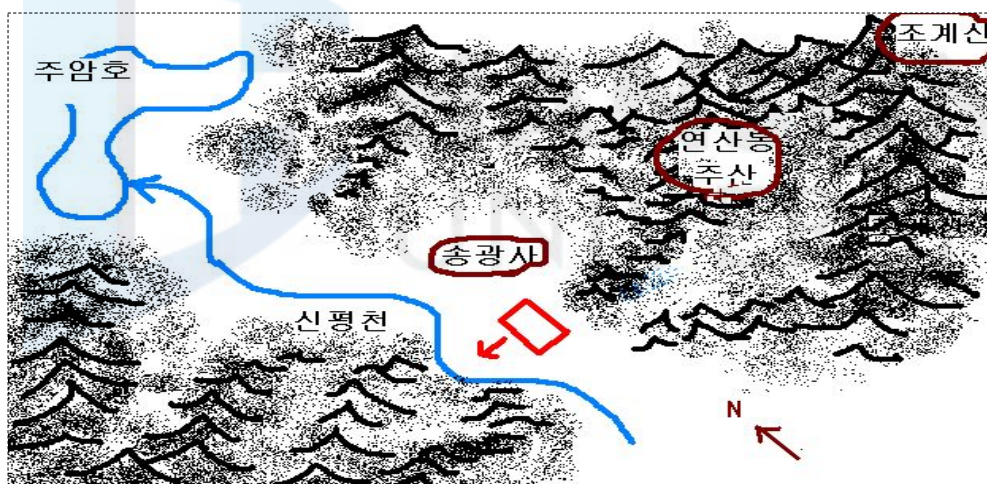
1) 송광사의 역사 및 특징

송광사는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의 조계산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라 말 혜린선사가 창건하여 고려 명종 27년(1197년) 지눌(知訥)(보조국사, 1158-1210)에 의해 80칸으로 중건된 승보사찰(僧譜寺刹)이다. 사원의 전면에는 계류가 흐르고 뒤쪽은 산릉으로 되어 있어 배산임수의 명당에 사찰이 배치되어 있다. 가람의 배치는 2원적 공간구성으로 진입부에서 불전까지의 하단부분과 설법전과 조사전을 중심으로 한 선원영역으로 구분된다. 대웅전의 배치는 지세의 흐름에 따라 서향으로 배치되어 있고 일주문의 현판이 종서(縱書)로 되어 있는데 이는 화기를 막으려는 풍수적 의미가 담겨있다. 한편, 송광사의 공간구성상 특징으로는 의상대상의 ‘화엄일승법계도’라고 하는 특별한 형식의 도형을 땅에 새기는 차원에서 사찰의 대부분 지역을 평지로 조성하여 이 도형에 맞추어 건물이나 마당을 배치해 놓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아울러 송광사는 다른 사찰과 달리 진입공

간의 계류공간에 계담과 임경당, 우화각등의 건물과 홍예교로 구성된 아름다운 계원(溪園)공간이 있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림 3-23〉 : 송광사 배치도¹¹¹⁾



〈그림 3-24〉 : 송광사의 풍수 지세도

2) 송광사의 풍수해석

111) 정재훈, 전계서, p.379를 토대로 재구성

송광사는 조계산(일명 송광산)을 조산, 연산봉을 주산으로 하여 배산임수 터에 자리 잡고 있으며 신평천이 송광사를 안쪽으로 부드럽게 환포하고 있는 연화부수형의 명당에 해당 한다. 연화부수형의 화심(花心)자리인 혈 자리에는 대웅전이 위치하고 대웅전을 중심으로 주위에 전각들이 꽃잎처럼 대웅전을 에워싸면서 사신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송광사의 계담은 송광사 앞 계류에 보(堡)를 조성하여 물을 가둬 놓은 일종의 연못으로서 주산의 생기가 빠져 나가지 않도록 하는 풍수적 역할과 더불어 사찰화재에 대비한 방화수의 기능을 하고 있다.

한편, 풍수적으로 계곡으로부터 빠르게 내려오는 물살은 취기(聚氣)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계담을 조성하여 곡수(谷水)를 계담에 잠시 머물게 한 후 보(堡)를 넘어 떨어지게 함으로써 물의 성질을 부드럽게 만들어 보내고 있다. 풍수적 비보로는 주산에서 내려오는 산살(山煞)을 막기 위해 부도를 설치해 놓고 득수를 위한 석수조(石水槽)를 포치해 놓고 있다.



〈사진 3-20〉 : 송광사 계담과 (좌) 석조(우)112)

112) 아주나의 조경이야기 (<http://cafe.daum.net/ajunaland>)

제 5 절 서원정원

서원은 조선시대 강학과 제향을 위해 건립된 오늘날의 사립학교로서 주로 산수가 좋고 풍광이 좋은 위치에 설립되었다. 서원은 단순히 산수를 즐기는 경관적 공간만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를 통하여 도학적 완성을 위해 강학과 제향을 위한 만들어 놓은 일종의 수학도장이라 할 수 있다.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에게 있어 자연은 거경궁리(居敬窮理)의 공간이자 경외의 대상이었다. 또한 서원은 질서 있는 자연의 변화를 보면서 천리의 묘용(妙用)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었다.¹¹³⁾

서원의 공간구성은 크게 강학공간과 제향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향공간이 정적인 음의 공간이라면 강학공간은 동적인 양의 공간으로 분류되며 두 공간은 막혀 있지 않고 문을 통하여 연결되어 있다. 정원공간에는 성리학적 요소를 담고 있는 화목이 주로 식재되었고 선비정신인 지조와 절개, 충성심을 의미하는 대나무, 매화, 국화, 소나무 등이 주로 식재되었다. 서원외부의 출입 공간에는 행단(杏壇)을 조성하고 학자수인 은행나무를 식재하거나 성리학적 자연관을 상징하는 경물이 설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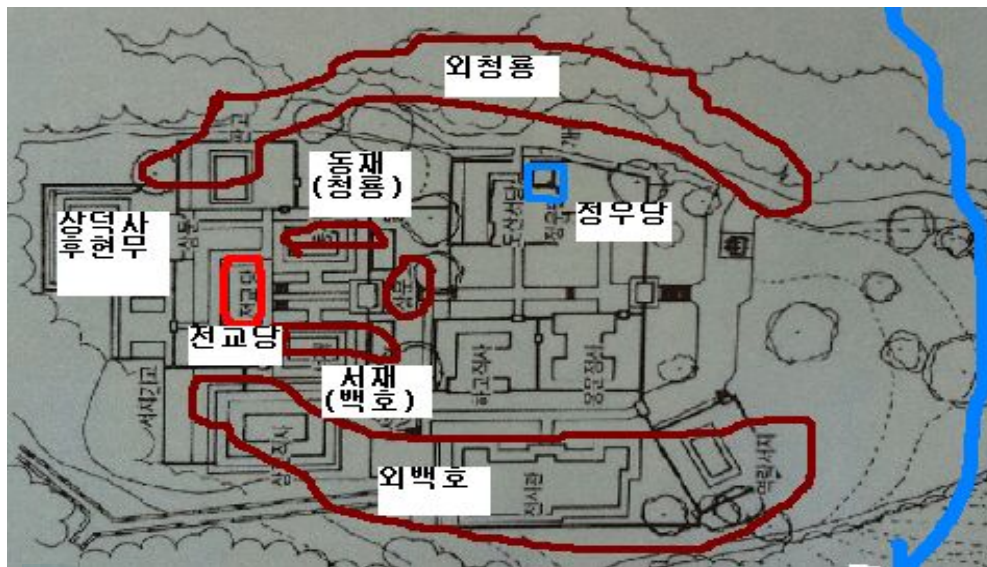
1. 도산서원

1) 도산서원의 역사와 특징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 60번지에 있는 도산서원은 퇴계 이황선생(1501-1570)이 60세 되던 해에 세운 서원으로 동·서·북쪽은 수림이 울창한 산줄기가 감싸고 동쪽은 작은 개울이 흐르며 남쪽은 낙동강이 흐르는 아늑한 명당 터에 자리 잡고 있다. 도산서원의 공간구성을 살펴보면 진도문과 전교당을 잇는 축을 중심으로 대칭과 비대칭적으로 건물들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균형을 이루고 있다. 강학공간은 전교당을 중심으로 좌우

113) 김영모, 「조선시대 서원의 조경」, 『한국전통조경학회지』 Vol23 No1, 한국전통조경학회, 2005. p.45

측에 동재와 서재를 대칭적으로 배치하여 좌청룡, 우백호를 상징하고 있다. 도산서당 전면에는 정우당(淨友堂)이라는 지당(池塘)을 조성하여 풍수적 득수를 이루고 있다



〈그림 3-25〉 : 도산서원 배치도¹¹⁴⁾

2) 도산서원의 풍수해석

퇴계의 제자인 금난수(琴蘭秀, 1530-1599)의 도산서당 영건기사(營建記事)에 따르면 “ 영지산(靈芝山)의 한 줄기가 동쪽으로 나와 도산(陶山)이 되었다. …이 산은 그리 높거나 크지 않으므로 그 골짜기가 넓고 형세가 뛰어나며, 치우침이 없이 높이 솟아 사방의 산 봉오리와 계곡들이 모두 손 잡고 절하면서 그 산을 사방으로 들어 안은 것 같다”¹¹⁵⁾라고 하여 도산서원이 풍수적으로 길지에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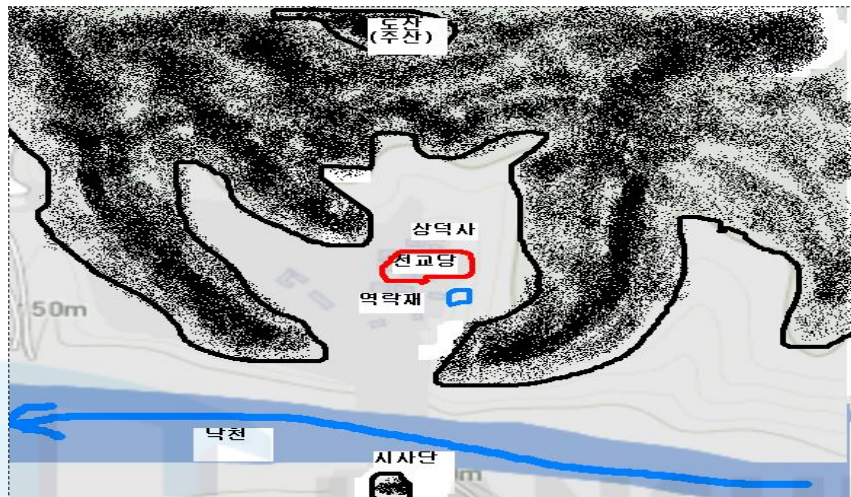
건축물의 배치는 주산인 도산을 배경으로 전면에 흐르는 낙천(洛川)을 바라볼 수 있도록 배산임수 원칙을 따르고 있다. 산세의 흐름대로 지형을 변형하지 않고 건축물을 위치시킨 결과 풍수이론의 전저후고(前低後高)의 원

114) 정재훈, 전계서, p.308를 토대로 재구성

115) 상계서, pp.307-308

칙에 따르고 있다.

한편, 강학공간의 배치에 있어서는 사신사의 원리에 따라 강학공간인 전교당(典敎堂)을 현무로, 동재(東齋)를 좌청룡, 서재(西齋)를 우백호로 삼고 삼문을 주작으로 배치하였다. 태목론에 따라 앞마당은 버드나무와 은행나무를 식재하였고 진입공간 좌측에는 방지(方池)형태의 정우당(淨友堂)과 몽천(夢泉)이라는 우물을 조성하여 명당수를 확보하고 있다.



〈그림 3-26〉 : 도산서원의 풍수 지세도

2. 병산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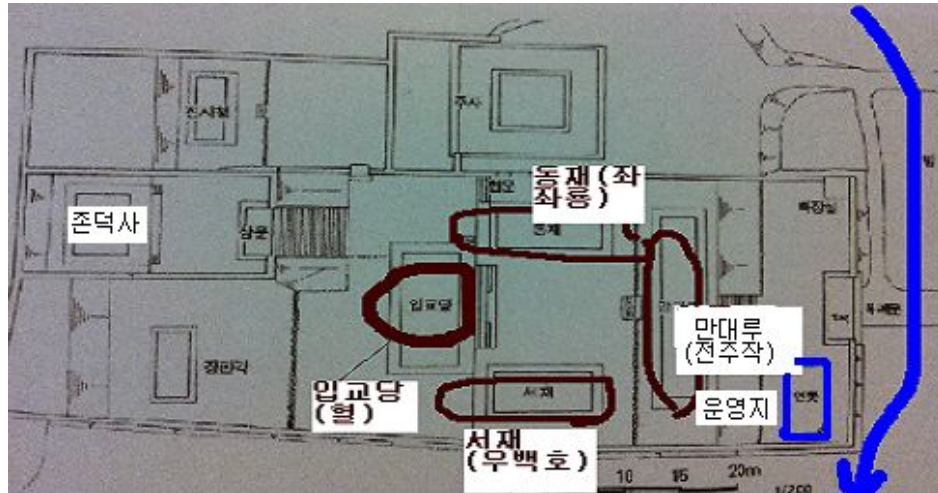
1) 병산서원의 역사와 특징

병산서원은 안동군 풍천면 병산동 30번지에 위치해 있는 서원으로 고려 말 풍산현 북쪽에 있던 풍악서당을 선조5년(1572)에 유성룡(1542~1607) 선생이 이곳으로 옮긴 것이다. 철종 14년(1863)에 병산(屏山)이란 사액(賜額)을 받아 서원으로 승격된 병산서원은 북쪽은 화산(花山)이 감싸고 남쪽은 넓은 낙동강이 흐르는 배산임수의 명당터에 자리잡고 있다.¹¹⁶⁾ 병산서

116) 정재훈, 전계서, p.303

원의 공간구성은 진입공간과 강학공간, 제향공간으로 구분되며 진입공간에 있는 만대루를 통하여 누하(樓下)진입을 하도록 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한편, 만대루의 2층 대청높이를 인간척도 기준으로 설정하고 각 공간마다 외부의 풍경을 안으로 끌어들이 볼 수 있도록 차경(借景)하고 있다.



〈그림 3-27〉 : 병산서원 배치도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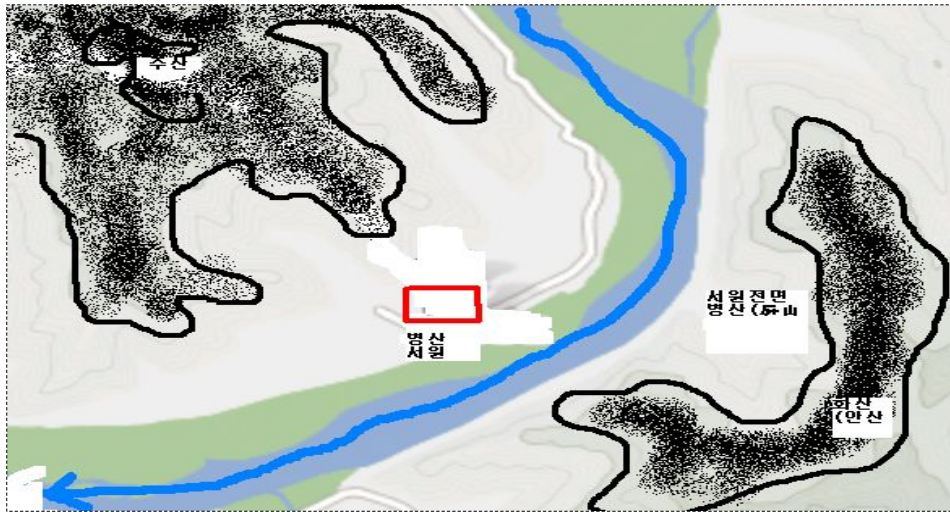
2) 병산서원의 풍수해석

풍수적 특징으로는 제향공간과 강학공간의 건물을 사신사의 형태로 배치하여 장풍(藏風)을 이루고 있다. 강학공간에는 전교당을 중심으로 좌측에 동재(청룡), 우측에 서재(백호)가 위치해 있고 전주작(前周雀)의 만대루가 배치되어 있다. 진입공간에 운영지라는 연못을 조성하여 명당수를 확보하고 있다. 아울러 만대루(晩對樓)는 전면이 트인 대청마루와 2층 구조로 되어 있어 바람이 부드럽게 서원 공간 안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또한 앞산의 벼랑을 은폐하고 벼랑에서 오는 산살(山煞)을 차단하는 장풍기능을 하고 있다.

한편, 강학공간의 동재건물의 위치를 보면 안쪽으로 약간 틀어져 있는데 이는 장풍효과를 극대화 하고 서원 앞에 있는 바위산의 산살을 차단하기

117) 정재훈, 상계서, p.304를 토대로 재구성

위하여 건물의 좌향을 조정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3-28〉 : 병산서원의 풍수 지세도

3. 소수서원

1) 소수서원의 역사와 특징

소수서원(紹修書院)은 경북 영주시 순흥면 내죽리 151번지의 옛 숙수사 터에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賜額) 서원이다. 소수서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주자학자인 안향(1243-1306, 시호 문성공)을 봉안하고 추모하기 위한 문성공묘인 사당이 먼저 건립되고 나중에 사당의 뒤쪽으로 강학당과 부속건물이 지어졌다. 소수서원은 유교예제에 따라 향교의 배치법이라 볼 수 있는 전상후하(前上後下) 법칙에 따라 사당을 중심으로 건물이 배치되어 있다.

소수서원의 진입공간에는 홍살문이 없는 대신 당간지주가 설치되어 있어 이곳이 절터였음을 보여준다. 주요 공간구성을 살펴보면 진입공간의 우측에 죽계천이 서원옆을 흐르고 있고 문성공 사당과 병렬로 강학공간인 직방재와 일신재가 위치해 있다. 강학공간 뒤쪽으로는 장서각, 고직사등의

부속건물이 배치되어 있어 일반적인 서원의 공간구조와 다른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는 소수서원이 숙수사의 터를 활용하여 서원이 조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3-29〉 : 소수서원 배치도¹¹⁸⁾

2) 소수서원의 풍수적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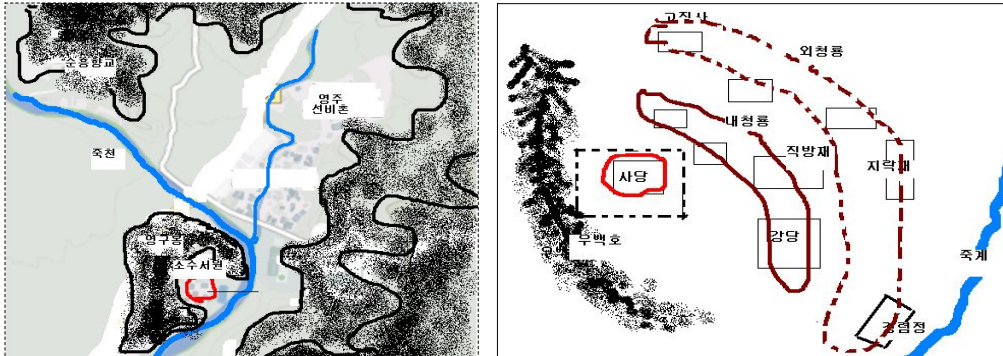
소수서원은 영구봉(靈龜峰)을 주산으로 하고 죽계천을 임수로 하는 영구하산형(靈龜下山形)의 형국으로서 죽계천이 환포하는 명당길국에 위치하고 있다. 소수서원의 문성공 사당이 혈 자리에 위치한 사당중심형 서원으로 음택풍수를 따르고 있다.¹¹⁹⁾ 사당을 중심에 두고 오른쪽에는 영구봉의 줄기가 우백호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좌측으로 강학건물과 부속건물을 좌청룡으로 배치시켜 장풍의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소수서원 혈 자리에 위치한 사당을 중심으로 서원 내 건물배치를 살펴보면 2개의 장풍선이 있다. 하나는 전사청-직방재-강당으로 이어지는 라인으로 사당을 감싸는 내청룡이고 바깥쪽으로 고직사-학구재-지락재-경림정으로 이어지는 외청룡이 그

118) 홍광표, 전계서, p.366를 토대로 재구성

119) 장영훈, 『조선시대 명문사학 서원을 가다』, 담디, 2005, p.52

것이다.

한편, 진입공간의 경험정은 사당과 평행하게 배치되지 않고 사당 쪽으로 약간 틀어져 있는데 이는 장풍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3-30〉 (좌): 소수서원의 풍수 지세도

〈그림 3-31〉 (우): 소수서원의 장풍배치사례¹²⁰⁾

[표 3-4]: 서원의 풍수해석 요약

서원	공간구성특징	풍수요소
도산서원	강학공간 중심배치 공(工)자형 정형배치	명당수(정우당) 강학공간의 사신사 배치 잉(孕)나무(생기강화)
소수서원	사당중심(음택)배치 폐사지(廢寺地) 활용 비정형적 공간구성 (병렬배치)	영구하산형(靈龜下山形) 형국 장풍배치(장풍효과) 경암(敬巖)(비보) 백운동 글자 암각(비료)
병산서원	배산임수 누하(樓下)진입 장풍배치, 차경	명당수 조성(雲影池) 전주작 (만대루)의 풍수비보(산살방어, 홍산차폐) 비보적 배치(틀어져 있는 동재)
남계서원	강당중심형 배치 주산: 연화산	연화부수형(蓮花浮水形) 연지(蓮池)

120) 장영훈, 전게서, p.65를 토대로 재구성

제 6 절 소결

이상과 같이 한국 전통정원을 유형별로 정원의 특징과 풍수적 의미와 해석을 살펴 본 결과 한국의 전통정원은 조원원리와 기법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풍수지리 이론을 바탕으로 배산임수의 원칙을 충실히 따르며 득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입지선정을 하고 있다.

둘째, 정원공간구성은 (건축물, 마당, 외부 공간) 장풍(藏風)과 생기보전을 위하여 자연지형과 형태를 변형하거나 훼손하지 않고 조성되었다.

셋째, 정원의 구성요소는 자연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위주로 사용하고 인공적인 가공을 최소화하여 자연과의 조화가 이뤄지도록 하였다.

넷째, 한국의 전통정원은 음양오행의 원리를 바탕으로 시적 은유와 상징을 표현하고 있으며 오감(五感)을 통한 감상이 가능 하도록 조성되었다.

다섯째, 전통정원은 풍수지리의 자연관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생태적 환경이 유지보전 될 수 있도록 조성되었다.

상기와 같이 전통정원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풍수지리 이론은 전통정원의 경관짜임에 있어 작정자와 조영자에게 자연친화적인 정원을 조영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설계의 틀을 제공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3-5]: 한국전통정원의 유형별 특징과 풍수해석 요약¹²¹⁾

유형별	공간구성 특징	주 정원요소	정원사례	적용사상
궁궐정원	정형적인 공간구성 대칭적 구조(경복궁) 후원중심 장식요소의 적극적인 활용	정자, 方池 계류, 泉井, 다리, 석물, 사고석담, 화단, 화계, 취빙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풍수사상 음야오행 사상 도교사상
양반주택정원	신분과 남녀에 따른 공간구분 규모제한 사랑마당, 안채 후원에 정원조성	정자, 방지, 화계 석물 등	선교장, 김동수 가옥 영암택	풍수사상 음양오행사상
별서정원	자연조건에 최대한 순응 임천(臨川)입지 경관미 추구 단순한 공간	정자, 누대, 계류, 방지, 석물	소쇄원 부용동 서석지 독락당 임대정 등	도교사상 천지인합일사상
민가(촌락)	공공 공간중심 구성 단순한 공간체계(안마당, 뒷마당)	장승, 토담, 마을숲	양동마을 외암리 마을	풍수사상 (비본론) 자연숭배사상
사찰정원	연속적 공간체계 위계적 공간질서 엄숙성 추구	당간, 석탑, 문, 석물	실상사 부석사, 통도사 등	불교사상 풍수사상(비본론)
서원정원	위계적 공간구성 유교적 사상표현 사신사 배치	연못, 건물, 화계, 석물	도산, 소수, 병산, 남계서원	유교사상 풍수사상

121) 이재근, 「한국정원의 전통성 구현을 위한 설계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Vol.19, 한국조경학회, 2007, p.67 정원사례, 적용사상을 재구성함

제 4 장 한국전통정원의 현대적 응용

제 1 절 국내 전통정원 사례

1. 희원(熙苑)

희원은 경기도 용인시 포곡면 가실리 204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 전통정원의 문화적 계승을 위하여 1997년에 조성된 정원이다. 공간구성의 특징은 중심건물인 호암 미술관을 중심으로 소원(小園)공간, 주정(主庭)공간, 월대공간으로 구분된다. 한국 전통정원의 특징인 자연지형을 변형하지 않고 가림과 차경의 원리를 적용하여 전통정원 요소인 담장, 화계, 연못, 정자, 석단, 월대, 불교적 석물(石物)들이 배치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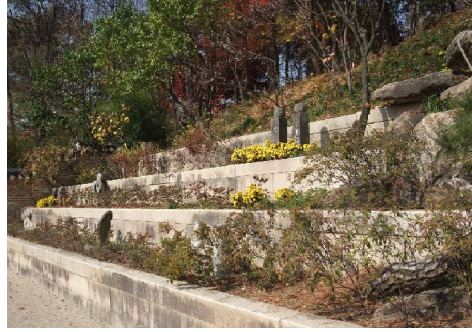
(그림 4-1: 희원의 배치도¹²²⁾)

주요 풍수지리 적용사례를 살펴보면 소원(小園)에 부정형의 연못과 미술관 앞에 방지방도(方池方島)를 조성하여 주산에서 내려오는 생기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풍수적 허결처(虛缺處)에 석불과 석탑을 포치하여 산살

¹²²⁾ 희원제공 안내서

(山煞)에 대한 비보를 하고 있다. 주 공간인 호암미술관 전정에 해당하는 공간에 월대와 양대를 조성하여 음양의 조화를 표현하고 있다.

한편, 득수법에 따라 계류(溪流)의 흐름을 수회수곡(水回水曲)하도록 조성하고 있으며 입수(入水)처리는 경복궁 향원지(香園池)의 열상진원의 입수 처리방법을 재현하여 물이 수회(水回)하여 연못으로 유입되도록 처리하고 있다. 한편, 각 공간별 구분과 장풍(藏風)을 위하여 전통양식의 담장이 조성되었다.



〈사진 4-1〉 : 회원 연못의 입수처리와 화계



〈사진 4-2〉 : 회원의 비보탑과 월대

한편, 능원정원과 사찰정원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정원요소(석탑, 문인석 등)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다양한 점경물과 혼재되어 있어 통일성이 부족한 감이 있다. 정원수의 경우, 건축물과 정원규모에 비해 다량식재되어 있고 정원수의 수고(樹高)가 높고 밀식되어 있어 한국 전통정원의 특징인 공간의 비움이 다소 미흡하다. 화목류 선정에 있어서도 전통정원에서 사용

되지 않은 나무(섬잣나무)들이 식재되고 전정이 잘 된 상태로 관리되어 있고 소원(小園)공간에는 일본의 임천회유식 정원에서 볼 수 있는 비정형 연못과 괴석들이 조성되어 있어 전통정원의 느낌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사진 4-3〉 : 희원의 정원수와 석가산

2. 덕평 휴게소

고속도로의 휴게소는 일반적으로 휴게소 건물 전면에 주차장과 휴게공간을 설치하고 있으나 본 휴게소는 전통정원의 후원(後園)개념을 본떠 휴게공간을 건물 뒤쪽으로 조성하고 도로면 쪽으로 건물을 전면배치하여 고속도로의 소음과 휴게소로 들어치는 풍살(風煞)을 차단하고 있다. 후원에는 전통정원에 적용된 정원요소들을 적용하여 절제되고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전통사상을 도입한 사례로는 삼재의 원리에 따른 식재와 조경석의 포치 그리고 음양오행의 원리에 따른 공간 분할을 들 수 있다.



〈사진 4-4〉 : 삼재사상에 따른 경석배치

한편, 덕평 휴게소 내에는 전통정원에 흔히 볼 수 있는 연못을 조성해 놓고 있는데 연못의 형태를 방지방도(方池方島)로 조성하고 전통방식의 입수와 배수처리를 도입하여 물의 순환과 기의 흐름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였다. 또한, 득수론에 따라 계류의 흐름을 수회(水回)하고 곡류(曲流)가 되도록 물길을 조성하였다.



〈사진 4-5〉 : 덕평 휴게소의 방지방도와 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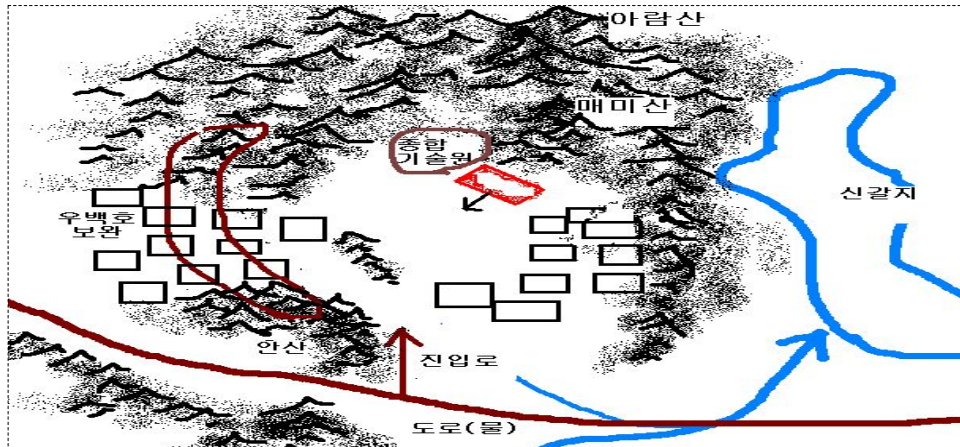
한편, 고속도로 앞쪽으로 휴게공간을 설치할 경우 도로를 따라 바람이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 주변기압이 낮아져 풍살(風煞)기운이 들이칠 수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덕평 휴게소는 건물의 공간배치와 정원조성 방식을 전통정원에 반영된 풍수지리이론에 따라 주 건물을 앞으로 길게 건축하여 장풍비보를 하고 있다.

3. 삼성전자 기흥공장

1) 풍수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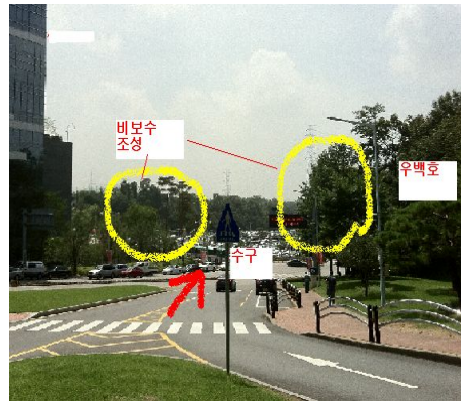
삼성전자 기흥공장의 터는 수지 소실봉을 기점으로 남진한 기맥이 청명산을 거쳐 매미산으로 솟은 후 신갈 저수지를 만나 멈춘 뒤 지기가 응축된 명당으로 배산임수(背山臨水), 전착후관(前窄後寬), 전저후고(前低後高)의 전형적인 명당요건을 갖춘 길지이다. 형국상 삼성전자의 기흥공장은 금계포란형(金鷄抱卵形)이라 볼 수 있으며 매미산을 주산으로 산세의 흐름에

따라 혈 자리에 삼성전자의 핵심부문이라 할 수 있는 종합기술원을 남서향으로 배치하였다. 주요 공간구성의 풍수적 특성을 살펴보면 강한 기맥의 좌청룡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우백호를 비보하기 위하여 주요 공장과 사무동을 우측에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사신사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



〈그림 4-2〉 : 삼성전자 기흥공장의 풍수 지세도

한편, 삼성 기흥공장의 정문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직선으로 뻗어 있어 풍살(風煞)의 기운이 들이칠 수 있는데 이를 비보하기 위하여 정문입구에 소나무를 군식(群植)하고 정문 좌측에도 커다란 느티나무를 심어 장풍효과와 풍살 방어를 기하고 있다. 아울러 삼재사상에 따라 노거수 소나무 3그루가 식재되어 있는데 이는 삼합의 원리와 천지인의 풍수사상을 적용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지형을 훼손하지 않고 건물들을 배치하고 있으며 정문 입구의 좌우측에는 사신사의 기운을 보강하기 위하여 비보수를 조성, 수구가 보이지 않도록 비보하고 있다.



〈사진 4-6〉 : 삼성전자 기흥공장 정문의 비보수

4. 청계천과 탄천

청계천과 탄천에 설치된 판석보는 전통정원의 부용동과 송광사의 계원(溪園)에서 풍수적으로 사용되었던 석교(판석보)를 현대적으로 응용한 사례 중 하나이다. 앞서 부용동 정원과 송광사의 계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판석보는 계류를 막아 수류(水流)를 완만하게 조절함으로써 물의 생기를 만드는 풍수적 기능과 더불어 산소유입을 활발하게 하여 오수(汚水)를 정화하고 미생물의 서식환경을 개선시키는 생태적 기능을 하고 있다.



〈사진 4-7〉 : 청계천과 탄천의 판석보

5. 아파트 정원

최근 아파트 건축으로 인해 용맥의 훼손이 발생하고 경관목적을 위하여 인공적 계류를 조성하는 사례를 많이 찾아 볼 수 있는데 이는 풍수적으로 볼 때 생기흐름을 단절시키는 자연훼손으로 볼 수 있다. 양주 자이아파트의 경우 수변정원의 계류조성으로 인한 기맥의 단절을 계류위에 목교(木橋)를 설치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과 함께 기맥이 연결되도록 풍수적 비보조치를 하고 있다. 아울러 풍수적으로 계류의 흐름은 완만하고 거칠지 않아야 한다는 득수풍수의 원리에 따라 물의 유속이 완만하도록 계류 안에 돌을 자연스럽게 포치시켜 흐름의 완급을 조절하고 있으며 지형의 단차(段差)를 이용, 폭포를 조성하여 물의 생태적 기능(수질정화, 열 섬화 방지 등)과 청각적 효과를 만들고 있다.

경주 교원 센타의 정원에는 유상곡수연을 위한 포석정을 현대적으로 재현하여 수회수곡(水回水曲)의 득수원리의 현대적 응용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 4-8〉 (좌): 양주자이 아파트 수변정원¹²³⁾

〈사진 4-9〉 (우): 경주교원 드림센타의 곡수거¹²⁴⁾

123) 2007년, 44회 세계 조경가 대회 최우수 조경상 수상 (GS 건설시공)

124) 2007년, 44회 세계 조경가 대회 우수상 수상 (삼성에버랜드 시공)

제 2 절 해외 전통정원 사례

1. 프랑스 파리 서울정원

한불수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프랑스 파리에 조성된 한국정원으로 주 설계 주제를 한국 전통정원의 원리와 조경요소를 사용하여 조원되었다. 정원의 주 개념은 한국 전통정원의 이원적 공간원리와 태극사상을 기본으로 프랑스 정원양식인 축(Axis)개념을 기본 공간패턴으로 축을 설정하고 태극에 따른 곡선축을 도입하여 중심축의 분화라는 공간구조를 만들었다. 아울러 전통정원의 단계별 공간전개 개념의 화계, 공간분리를 위한 전통담장, 풍수사상의 득수론에 입각한 방지형태의 연못이 조성되었다. 개울은 전통정원의 원규투류(垣窺透流) 기법을 도입하여 담장 아래로 물이 유입되도록 자연친화적인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림: 4-3〉 (좌): 파리 한국정원 배치도¹²⁵⁾,

〈사진: 4-10〉 (우): 파리 한국정원의 전통담장과 괴석¹²⁶⁾

125) 편집부, 『조경디자인 프로세스』, 담디, 2004, p.199

126) 월간 『환경과 조경』, 2006년 6월호, p.47

2. 후쿠오카 한국정원

후쿠오카시에서 개최된 2006년 국제 정원박람회장(정원박람회)에 조성된 100평 규모의 한국 전통정원으로서 한국 민가정원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풍수의 전착후관(前窄後寬)의 원리에 따라 진입문의 공간을 협소하고 좁게 만들고 대문 안을 들어서면 너른 앞마당이 펼쳐지도록 하였다. 사랑마당을 한국전통 담장으로 공간의 위요를 만들어 두 마당을 한국적인 공간 스케일로 조성하여 안정감을 주고 있으며 아울러 장풍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 담장은 인간척도 기준의 적절한 높이를 유지하고 중간에 살창(독락당의 살창을 재현)을 만들어 내부공간으로 바람과 기가 원활하게 유입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전통정원 양식에 따라 방지를 조성하고 연못 안에 세 개의 고 작은 돌을 배치하여 삼재의 원리를 적절히 표현하고 있다.



〈사진 4-11〉 : 후쿠오카 한국정원의 출입문과 담장¹²⁷⁾

3. 프랑크푸르트 한국정원

프랑크푸르트 한국정원은 2005년 프랑크푸르트 시내의 괴테대학 근처 팔덴 공원내 약 5,000 제곱미터의 면적에 조성된 한국 전통정원으로서 4개의 계절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정원의 중심요소로는 2개의 연못과 계류이며 장풍론에 따른 전통담장의 공간위요, 용맥보호를 위한 화계조성, 득수와 음양오행원리를 적용한 방지원도(方池圓를 조성하여 전통적인 한

127) 월간 『환경과 조경』, 2006년 1월호, p.47

국정원의 배경사상과 원리를 적용하였다. 프랑크푸르트 한국정원의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연못 조성을 위해 파낸 흙을 이용하여 12개의 작은 동산과 섬을 조성 한 것으로 12개의 작은 동산과 섬은 12간지를 뜻한다.

한편, 방지의 입수구(入水口)와 출수구(出水口)를 전통정원의 낙수기법¹²⁸⁾을 사용하지 않고 밋밋하게 유입/유출되게 처리한 점과 계정(溪亭)의 양쪽 지붕형태와 높이가 비대칭으로 되어 있어 안정감이 떨어지는 점은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보인다. 아울러 연못의 원도(圓島)에 식재되어 있는 수종이 전통정원 수종(상록수, 소나무)이 아닌 교목이 식재되어 있어 연못과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매실(梅室)’이라는 현판은 유교적 의미와 상징성을 중요시한 한국 전통정원의 그것과는 맞지 않다.



〈사진 4-12〉 (좌): Frankfurt 한국정원¹²⁹⁾

〈사진 4-13〉 (우): Frankfurt 한국정원의 방지원도¹³⁰⁾

4. 카이로 한국정원

카이로 서울공원은 1997년 서울시와 카이로간의 자매결연 후속사업으로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 위치한 카이로 국제공원 내 설치한 한국의 전통정원으로 약 2,000 제곱미터(약 650평)의 면적으로 조성된 한국의 전통정원이다. 주요 전통정원요소로 전통 정자, 꽃담장, 화계 및 연가와 괴석을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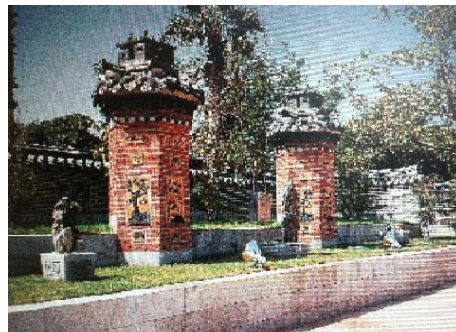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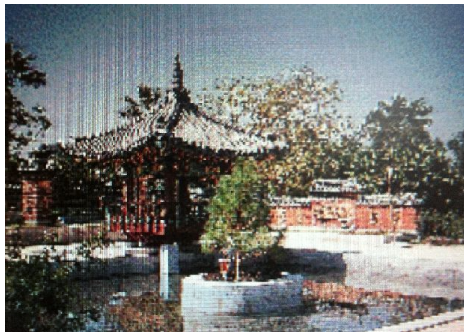
128) 해설: 물이 연못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고 약간의 단차를 조성하거나 석조를 이용하여 폭포형태로 연못으로 입수되도록 하여 수포를 발생하게 하여 물이 생기를 유지하게 하는 전통정원의 전형적인 입수처리 기법임.

129) 연합뉴스, 2005년 12.13일자

130) <http://blog.naver.com>

용하였으며 음양의 원리를 도입하여 동적인 공간 (양의 공간)인 계류와 폭포, 정적 공간 (음의 공간)인 연못과 마당을 조성하였다.

한편, 공간의 중심부에는 전통정원의 기본 조영원리인 음양원리를 상징하는 방지원도와 정자를 중심부에 조성하고 전면에 정적공간으로서 전통마당을 조성하여 개방감을 주고 있다. 한편, 공간의 안정감과 장풍(藏風)의 효과를 위하여 전통방식의 담장을 조성하고 담장을 따라 화계를 조성하였다. 화계에는 괴석, 세심석을 배치하여 동양적 경관미를 보여주고 있으며 전통 정원수인 무궁화를 밀식하여 장풍기능과 함께 공간분할, 차폐, 경관기능을 하도록 하였다



〈사진 4-14〉 : 카이로 한국정원의 방지원도와 연가¹³¹⁾,

5. 해동 경기원(海東 京畿園)

경기도와 광동성 간 문화교류와 우호증진을 위해 경기도가 2005년 중국 광둥성내 월수(越秀)공원내에 총 8,600제곱미터(약 2,600평)의 면적으로 조성한 한국의 전통정원이다. 정원의 주요구성은 전통정자와 건축물(성호정, 다산정, 율곡재 등)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선시대의 별서정원을 모델로 계류, 솟대, 꽃담, 화계, 방지원도 등의 한국 전통조경요소를 도입하여 조성되었다.

131) 월간 『환경과 조경』, 1998년 10월호, p.44



〈사진 4-15〉 : 해동경기원의 방지 및 세종루¹³²⁾,

제 3 절 전통정원의 현대적 응용과 과제

1. 오용(誤用) 사례

최근 전통정원을 모방하거나 응용하여 국내외에 정원을 조영(造營)하는 사례를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전통정원의 배경사상과 조원원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단순한 형태적인 모방에 그치거나 조영 장소에 적합하지 않은 재료를 선택하여 고유의 전통정원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정원이 조영될 우려가 있다. 전통정원을 모방 또는 재현하였으나 우리 고유의 전통정원의 양식과 조영원리에 어긋난 사례를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오용사례 1

전통정원에 있어 일주문은 사찰과 서원에서 공간적 분할을 뜻하고 경건한 장소로 진입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중요한 정원요소이다. 따라서 진입공간의 일주문 주위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경관을 단순하게 처리함으로써 진입자에게 엄숙함의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광둥성에 조성한 해동경기원의 일주문의 경우 계단과 일주문과 적합하지 않은 조경석이 어

132) <http://blog.daum.net/gyeonggi>

지럽게 구성되어 전체적인 균형감과 일주문의 엄숙함을 떨어뜨리고 있다.



〈사진 4-16〉 (좌): 해동 경기원 일주문¹³³⁾

〈사진 4-17〉 (우): 해동 경기원 점경물¹³⁴⁾

2) 오용사례 2

일반적으로 전통정원의 담장은 사고석을 사용하거나 자연석의 막돌을 사용하여 정제미와 자연미가 뛰어나다. 그러나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둥근형태의 돌을 사용하여 전통정원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담장을 조성하고 있다.



〈사진 4-18〉 : 담장비교(해동 경기원(좌) vs 창덕궁 후원(우))

3) 오용사례 3

133) <http://blog.naver.com/kwonbbojoa>

134) <http://blog.naver.com/kwonbbojoa>

한국 전통정원에는 일반적으로 풍수의 득수이론에 따라 집 앞 전정공간에 방지(方池)형태의 연못을 조성하여 풍수적 비보를 하여 기의 흐름을 차단하거나 외부로부터 사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다. 연못 안에는 원도(圓島) 또는 방도(方島)를 조성하고 상록수인 소나무를 심어 불로장생의 신선사상을 표현한다. 그러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원도(圓島)에 소나무 대신 낙엽 활엽수가 식재되어 있고 크기도 원도에 비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사진 4-19〉 : 방지원도 식재 비교¹³⁵⁾ (해동 경기원 vs 창덕궁 후원),

4) 오용사례 4

정원조영 시 다양한 형태의 경관 점경물이 설치되고 있으나 점경물 설치로 인한 풍수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경관위주의 미적부분만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풍수적으로 첨형(尖形)은 살(煞)기를 내뿜는다고 하여 전통정원과 일반 가정집에서도 뾰족한 모양을 띤 점경물의 설치에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주의가 필요하다.

자연은 본래 직선을 싫어하고 곡선을 좋아 한다는 원리에 비추어 전통정원에서는 곡선을 조영패턴의 기본으로 하고 점경물의 형태와 크기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진 4-23〉에서 보는 것처럼 철구조의 첨형조형물은 풍수적으로 살기를 내 뿜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하게 하고 경관의 안정감을 해친다. 따라서 정

135) 월간 『환경과 조경』 2006년 3월호, p.53

원의 형태와 종류에 관계없이 점경물의 선택은 풍수적으로 목산(木山)이나 금산(金山)의 형태를 위주로 선정 하는 것이 좋다.



〈사진 4-20〉 : 아파트 입구의 첨형 조형물, 성남 분당 백현사거리

2. 전통정원의 현대적 과제

전통정원의 조원원리와 기법들이 오늘날 생태적 환경설계와 현대 정원조영에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으며 전통정원의 계승을 위한 재현과 모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전통정원에 숨어 있는 사상과 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전통정원을 기교적으로 모방하고 원용에 그친다면 전통정원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의미는 퇴색된다.

따라서 한국 전통정원의 조원원리와 양식들이 올바르게 활용되고 재현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형태적 모방과 원용을 지양하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사상과 원리에 대한 이해는 물론 작정자의 철학과 자연관에 대해서 철저한 고증과 연구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한국전통정원의 올바른 재현과 모방 그리고 응용을 위해서 정원 조영자와 설계가들이 지켜야 할 주의사항과 현대적 과제를 요약하면,

첫째, 한국 전통정원에 사용하고 있는 전통적 조형물(숫대, 장승, 물확, 연지, 석연지, 돌장승, 석조 동물상등)을 설치 할 경우에는 장소와 공간 , 자연과의 조화를 고려야 함은 물론 점경물이 가지고 있는 풍수적, 생태적 의미도 함께 해석하여 조성 되어야 한다. 경관적인 측면만을 중시하여 전

통적 점경물들을 무분별하게 포치하거나 또는 전통과는 거리가 먼 점경물과 함께 설치하는 경우 오히려 한국의 전통미를 떨어뜨리고 한국 전통정원의 정체성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둘째, 정원요소(건축, 석(石)요소, 수(水)요소)크기도 자연과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설정해야 한다. 계류의 크기와 유량(流量)에 비해 너무 큰 자연석을 조성하거나 정원의 크기에 비해 너무 큰 나무를 식재해서 조화를 깨뜨리지 않아야 한다.

셋째, 공간설계에 있어서는 ‘공간의 비움’을 강조하여 마당공간을 너무 크게 조성하거나 또는 전통적 점경물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칫 ‘썰렁’함의 느낌을 줄 수 있으므로 공간의 위요(圍繞)를 위하여 전통담장을 조성한다거나 풍소요소를 도입하여 ‘채움’과 ‘비움’이 적절하게 조성되어야 한다.

넷째, 정원공간에 대한 장풍(바람)에 대한 영향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후 이에 대한 적절한 비보(裨補)방안을 함께 강구하여야 한다.

다섯째, 풍수적 득수를 위한 수경공간의 구성에 있어서는 지당(池塘) 조성시 물의 생기유지를 위한 대책을 함께 수립해야 하며 입수와 출수를 풍수적 원리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5 장 결론

풍수는 자연과 인간이 어떻게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전통적인 환경관리의 지침이며 땅을 비롯한 자연을 바라보는 우리 선조들의 ‘마음의 틀’이다. 풍수지리의 근본목적은 주어진 자연환경의 틀 속에서 인간이 가장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아 갈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과정이며 자연환경의 지리적, 생리적 원리를 규명하고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로 살펴본 한국전통정원의 특징은 풍수지리이론을 적용한 자연에 대한 존경과 경외를 표현하는 ‘가꿈’으로 요약되며 이는 바람과 물에 대한 심오한 고찰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한국전통정원은 자연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조, 변경시켜 자연을 지배하고 지배자의 위엄을 보여주하고자 조성되었던 서양의 정원과는 달리 자연의 순리를 근본으로 자연과의 동화와 합일을 추구하고 있으며 아울러 자연에 대한 경외심과 지속가능한 자연환경을 지향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 한국의 전통정원은 시대별로 다양한 전통사상과 함께 음양오행과 풍수지리 이론을 토대로 조영되었으며 전통정원의 풍수지리적 해석을 통해 본 풍수이론의 활용도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표 5-1]: 정원유형별 풍수이론 활용도 분석

	정원유형	풍수지리 이론적용					
		간룡법	득수법	장풍법	정혈법	좌향론	비보론
전통 정원	궁궐정원	●	●	●	●	●	●
	민가정원		●	●		◎	●
	별서정원		●	●		◎	◎
	사찰정원	●	●	●	●	●	●
	서원정원		●	●	◎	◎	●
현대응용	국내정원		◎	◎			◎
전통정원	외국조영		◎	◎			

범례: ●: 대부분적용, ◎: 일부적용

[표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통정원의 조영에 가장 많이 적용된 풍수 지리이론은 득수법과 장풍법으로서 정원의 유형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정원조영에 두 풍수이론이 적극적으로 이용되었다. 특히 궁궐정원은 조선개국 시 궁궐입지선정 과정에서 풍수지리이론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결과 정원조영에 다양한 풍수이론을 도입하여 풍수적으로 완벽한 정원을 조성하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사찰정원의 경우에도 고려시대의 도참사상에 영향을 받아 시대에 상관없이 모든 사찰의 입지조성부터 건축물, 정원조영에 장풍과 비보풍수이론이 주로 많이 적용되었다. 민가정원과 별서정원은 득수법과 장풍법이 조영의 기본설계이론으로 적용되었고 환경적 제약과 풍수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비보수단이 활용되기도 하였다.

한편, 오늘날 전통정원의 현대적 응용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득수법과 장풍법이 부분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향후 전통정원에 숨어있는 풍수지리의 적용사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풍수지리이론을 접목하여 새로운 현대적 설계 tool이 적극적으로 개발되고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통정원에서 가장 많이 다뤄진 풍수요소로는 물(득수)고 바람(장풍)으로 요약된다. 생기가 흠뜨려 지지 않고 취기(聚氣)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두 자연요소에 대한 풍수적 조치는 필수적이다. 전통정원 조영에 있어 두 가지 풍수요소에 대한 관리를 득수법과 장풍법에 근거하여 처리해 왔다. 먼저 득수법은 산과 수의 조화로운 배치, 입수와 출수의 방향설정, 생기를 머금은 물의 흐름에 관한 것으로 전통정원에서는 지당(池塘), 계류, 석지(石池)등의 방법으로 득수를 추구하였으며 현대적으로는 수경공간의 배치와 물의 방향설정, 그리고 수질의 유지관리 방법 등에 대해 응용될 수 있다. 장풍법은 주작, 백호, 청룡, 현무의 사신사에 의해 생기가 혈처에 머물 수 있도록 바람을 갈무리하는 방법으로서 전통정원에서는 장풍을 담장설치, 수목식재, 건축물 배치를 통하여 이뤄졌다.

한편, 전통정원에 적용된 풍수이론과 적용사례는 [표 5-2]와 같다.

[표 5-2]: 전통정원에 대한 풍수해석 요약

구분	구성 요소	풍수적 의미	풍수이론 적용	음양 구분
공간요소	땅(터)	명당입지, 정적공간	간룡법, 장풍법, 정혈법 좌향론, 형국론	음
	담장	사신사 역할, 장풍기능	장풍법	음
	다리	용맥연결, 선계진입	좌향론, 간룡법,	음
	굴뚝	불로장생, 기의 배출	좌향론	양
	화계	용맥보완, 기의 출입로	간룡법 좌향론, 음양오행론	음양
수경요소	연못	명당수, 득수,	득수법, 음양론	양
	계류	득수, 邪氣방어	득수법	양
	수로	정원의 방향성 결정, 생기보전	득수법,	양
석(石) 요소	폭포	氣의 충전,	득수법	양
	석지, 석조	명당수, 득수	득수법	양
건축요소	괴석	비보, 염승	좌향론, 비보론	음
	건물	용맥보완, 장풍보완	간룡법, 장풍법, 좌향론, 정혈법, 비보법	음
화목요소	수목	장풍, 용맥보완	동기감응원리, 장풍법, 음양오행, 비보법	음

정원요소별로 보면 정원의 입지선정에는 간룡법과 좌향론을 토대로 명당터에 정원이 조성되었고 장풍의 허결(虛缺)을 담장이나 숲, 건물을 활용하여 보완하였다. 다리는 용맥의 연결을 위한 비보의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며 사찰정원에서는 선계의 진입을 뜻하는 것으로 간룡법과 좌향론에 근거하여 위치와 형태를 결정하였다. 연못과 계류는 대표적인 수경요소로서 득수법과 음양오행론에 따라 형태와 입·출수구가 정해졌다. 화목요소에 대한 풍수적 사례로는 주로 장풍과 용맥비보의 차원에서 수목을 식재하였고 오행론에 따른 화목의 식재를 통하여 자연과의 조화와 풍수적 길복(吉福)을

추구하였다.

결론적으로 풍수해석을 통해 본 한국의 전통정원은 자연변형에 대한 절제와 환경을 중시하는 소박한 자연관을 바탕으로 풍수이론에 근거하여 자연친화적인 조영을 추구하였다. 풍수이론을 토대로 하고 있는 전통정원의 조원원리와 기법은 오늘날 지속가능한 친환경개발과 유지관리에 많은 이론적 토대와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으며 전통정원에 적용된 풍수이론의 공간해석 원리는 오늘날의 현대정원의 설계원리로서 재해석되고 활용되어야 한다. 아울러 경험적 환경과학으로서 풍수지리의 가치가 올바르게 평가받고 합리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풍수지리가 본래 자연을 다루는 환경과학이라는 사회적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며 동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더불어 관련분야 간의 폭넓은 학문적 교류와 풍수이론의 현대적 체계화를 지속적으로 정립해 나가야 한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1) 학위논문

- 강상욱(2000), 「전통문화의 현대적 계승에 의한 조경설계기법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소영(2010), 「양택풍수의 공간구조와 내부 상징성에 관한 연구」, 서경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진(1990), 「전통조경요소의 현대적 적용과 해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모(1988), 「전통공간의 구성원리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정인(2011), 「기업입지에 관한 풍수론적 연구」, 서경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인곤(2001), 「생태도시 개발의 풍수지리적 연구」, 동방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문정권(2009), 「풍수이론을 적용한 도시공원계획」, 진주산업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홍(2001), 「중국과 한국의 정원풍수에 관한 비교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시익(1987), 「풍수지리설 발생배경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인경(2006), 「전통조경의 표현기법을 적용한 공원 설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미나(2001), 「풍수이론을 활용한 정원설계 기법개발」, 고려대학교, 자연자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재열(2010), 「풍수사상의 입지선정 영향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성국(1991), 「풍수지리설이 전통정원과 도시입지선정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원석(2000), 「영남지방의 비보」,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석(2004), 「한국전통조경방식에 나타난 설계언어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연구」, 동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 학술논문

- 김대수(2003) 「조경설계에서 풍수이론의 적용 고찰」, 『혜천대학 논문집』 Vol. 28(1), 혜천대학, pp.249-265
- 김성수, 조주현(2006) 「주거용 부동산선정에 대한 양택 3대간법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도시계획학회지』 제41권 1호, 도시계획학회, pp.91-117
- 김영모(2005) 「조선시대 서원의 조경」, 『한국전통조경학회지』 Vol23, No1, 한국전통조경학회, pp.132-138
- 심우경(1998) 「조경에서 생태학과 풍수사상의 관련성」, 『韓國庭苑學會誌』 6, 한국정원학회, pp.61-72
- 윤홍기(1987) 「한국적 Geomentality에 대하여」, 『지리학 논총』, 제 14호,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pp.185-191
- 이동영(2010) 「조선시대 반가 정원공간의 조영사상에 관한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 논문집』 v.12 n.4, pp.77-86
- 이재근(1991) 「한국정원 전통성구현을 위한 설계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41호, 한국조경학회, pp.61-78
- 이중우(1995) 「연상작용을 통한 주거공간의 구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1(10), pp.45-54

3) 단행본

- 강태호(1999) 『중국전통원림의 분석』, 시공문화사
- 계성(1993) 『원야』 (김성우.안대희 역), 예경
- 고제희(2009) 『정통풍수 지리교과서I-4』, 문예마당
- 곽박(2002) 『장경』, 오상익 주해, 동학사
- 김두규(2008) 『김두규 교수의 풍수강의』, 비봉출판사
- _____(1998) 『우리땅, 우리풍수』, 동학사
- 동 곡(1979) 『地理學全書』, 易書普及社
- 무라야마(정현우 역)(1996) 『한국의 풍수』, 명문당
- 박시익(1999)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
- 박정욱(2001) 『풍경을 담은 그릇, 정원』, 서해 컬처북스
- 서유구(2005) 『임원십육지』, 보경문화사
- _____(1995) 『임원경제지』, 서울대학교 고전간행회
- 송명규(2004) 『현대 생태사상의 이해』, 따님
- 신영대(2004) 『풍수지리원리』, 경덕출판사
- 용인 문화원(2000) 『용인의 역사지리』, 용인시 용인문화원
- 이도원(2001) 『경관생태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 _____(2007) 『한국의 전통생태학』, 사이언스 북스
- 이중환(이민수 역)(2005) 『택리지』, 평화출판사
- 자크브누아 메샹 (이봉재 역)(2005) 『정원의 역사』, 르네상스
- 장영훈(2000) 『생활풍수강론』, 기문당
- _____(2005) 『조선시대 명문사학 서원을 가다』, 담디
- 정경연(2004) 『정통풍수지리』, 평단문화사
- 정재훈(2002) 『한국전통조경』, 조경
- 조인철(2008) 『우리시대의 풍수』, 민속원
- 주남철(2009) 『한국의 정원』, 고려대학교 출판부
- 차진원(2007) 『감여상지학』, 상상커뮤니케이션
- 채성우(2002) 『명산론』, 김두규 역해, 비봉출판사

- 최기수(2007) 『오늘, 옛 경관을 다시 읽다』, 조경
 최원석(2004) 『한국의 풍수와 비보』, 민속원
 최창조(2009) 『새로운 풍수이론』, 민음사
 _____(2001) 『한국의 풍수사상』, 민음사
 _____(1993) 『좋은 땅이란 어디를 말할인가』, 서해문집
 편집부(2003) 『조경디자인 프로세스』, 담디
 한국전통조경학회(2010) 『동양조경문화사』, 조경세계
 한국조경학회(2010) 『생태조경 계획 및 설계』, 기문당
 한동환(1993) 『풍수를 알면 삶의 터가 보인다』, 푸른나무
 허균(2002) 『한국의 정원-선비가 거닐던 세계』, 다른세상
 호순신(김두규 역)(2004) 『지리신법』, 비봉출판사
 홍광표(2001) 『한국의 전통조경』, 동국대학교 출판부
 홍만선(2007) 『국역 산림경제1』, 민족문화 추진회, 한국학술정보

4) 웹사이트기타

아주나의 조경이야기 <http://cafe.daum.net/ajunaland>
<http://blog.daum.net/gyeonggi>
<http://blog.naver.com/kwonbbojoa>

5) 기타

두산 백과사전
 월간 「환경과 조경」, 2007년 7월호
 _____, 2006년 1월, 3월, 6월호,
 _____, 1998년 10월호
 연합뉴스, 2005년 12.13일자
 이규원, 「세계일보」 2007년 6.21일자

2. 외국문헌

1) 단행본

Frazer, J .G., 『The Golden Bough: A stdudy in Magic and Religion』 ,
Macmillan, 1971

Gill, Hale, 『The Feng Shui Garden』 , London AN EDDISSON
SADD EDITION, 1998

Alexander, Rosemary, 『The Essential Garden Design Workbook』 ,
Workman Pub. Co, 2009

Messervy, M. Julie, 『Harmony with fengshui organic gardening』 ,
Rodale Press, 2000



【ABSTRACT】

A Feng-Shui study on Korean traditional garden and modernistic application

Oh, Sung Tak

Major in Feng Shui

Graduate School of Real Estate

Hansung University

Feng-Shui is an traditional theory of interpreting natural environment regarding to application of space and earth. It is to intend to bring a human-beings happiness through the harmony between nature and human. Feng-Shui is typically classified by two area, which is 'Yang-Taek' and 'Eum-Taek' Feng-Shui. "Yang-Taek" is dealing with Feng-Shui about a house for living, while 'Em-Taek" is dealing with Feng-Shui about tomb of the death. Korean Feng-shui has been traced back to Korea dynasty, at that time, it had been mainly focused on Yang-Taek including temple, housing, palace. Later, in Chosun dynasty, it had been applied to making garden and park as a main principle and idea.

Many countries had constructed their traditional garden which was reflected their traditional customs and thoughts. Garden itself is a comprehensive art which culture and doctrine was condensed sed for long time. Therefore, in order to understand a culture and history of the nation, it is necessary to interpret the spatial structure and principle of the garden. Korea had also been constructed own garden going back to Three-Country era to Chosun dynasty and had

developed a great garden culture and technic by adopting a various traditional thoughts and philosophies such as Taoism, Yin-Yang and Feng-Shui theory.

Among many principles and thoughts applied to gardening, Feng-Shui is a material and popular principle for making the garden in every type of building and garden. Reviewing a back-ground idea for different types of Korean traditional garden, Feng-Shui and Yin-Yang theory is a pivotal theory for palace and house garden, while buddhism and Feng-shui is a base principle of gardening temple. Taoism had been affected to build a villa for staying the country.

Nowadays, Feng-Shui theory is being applied to not only Yang-Taek and gardening also to various areas because of scientific basis of theory. Especially, studies on about spatial structure and landscape technic of traditional Korean garden has been carrying out so far. Many examples and precedent studies about representation and modernistic application of traditional garden can be founded elsewhere.

This study is to provide an interpretation of the Feng-Shui about factors of spatial structure and elements in the traditional garden and to find out the possibilities for applying Feng-Shui theory to ecological environment design.

The process of this study is firstly to figure out the structural components of traditional garden in representative garden by garden type and to analyze what principles and thoughts had been reflected into the traditional garden.

As a result of this study, firstly, Korean traditional garden was constructed based on ecological concepts and techniques, and is to pursue the harmony and respect to the nature no matter what type of garden is. Second, key principle of gardening was based on Yin-Yang theory and Feng-Shui which is based on traditional view point of

nature. Third, Feng-Shui has a theoretical system that is personifying the nature as a living organism, and is to combine an individual factor of nature into one integrated natural system. Fourth, modernistic representation and contemporary application of traditional garden has to be based on complete understanding about the principle and technic of traditional garden and be expressed Korean tradition in proper manner.

A good and ideal location for living is associated not only with the natural elements of environment such as mountain, wind and water but also a humanistic-geographical settings such as social community, good tempered people, a convenient logistic system (abundant materials for living), culture and human geographic environment. Feng-Shui's viewpoint of nature is very similar with an environmental theory of ecology in many areas.

Thus, it is strongly recommended for Feng-Shui theory and traditional gardening techniques to apply to design an ecological space for resolving an existing environmental problem. Also, Feng-Shui should be treated as an environmental psychology and natural geographical science with a change of social recognition about Feng-Shui. In addition, empirical and systematic research on Feng-Shui theory must be continuously going on.

【Key words】

Ecological Feng-shui, Korean traditional garden, Ecological geomancy, Feng-shui principle and techniques. Feng-shui spatial interpretation.

【논문후기】

평소 한국의 전통정원과 풍수지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뒤늦게 대학원에 진학하여 공부 한지가 몇 해가 지났다. 관련지식이 일천하고 연구가 부족하여 논문작성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올 하반기 들어 정신을 차리고 이제야 겨우 논문을 마치게 되니 새삼 감회가 새롭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본인의 풍수공부가 너무도 부족함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금번 논문작성을 위하여 우리의 옛 전통정원과 전국의 유명한 음택·양택지를 답사할 때마다 선조들의 자연에 대한 탁월한 해석과 통찰력에 놀라고 또한 배경이론으로 활용되었던 풍수지리의 과학적인 논리와 실용성에 경탄을 금치 못했다.

일반적으로 전통이라고 하면 먼저 고리타분하고 불편한 옛날의 문화를 떠오르게 되지만 조금만 짚을 내서 그 안을 들여다보면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이 배워야 할 무수히 많은 지혜와 문화가 깃들여 있다. 특히 풍수지리이론을 바탕으로 조영된 전통정원에는 우리가 몰랐던 옛 선조들의 뛰어난 자연관과 현명한 주거철학이 생생하게 담겨져 있었다. 한국의 전통정원은 각박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지친 영혼을 잠시 쉬어 가게 하는 컴퓨터로서 서양의 그 어느 정원보다도 심오한 철학과 인문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 것은 논문작성 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또 하나의 기쁨이 아닐까 싶다.

끝으로 부족한 풍수지식을 채워주시고 논문작성의 기본방향을 제시해 주신 박시익 지도 교수님과 날카로운 논리적 지적과 디테일하게 논문의 구성에 대해 조언을 해주신 백성준 교수님, 임병준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만학의 길을 걷고 있는 나를 항상 격려해 주며 이런저런 귀찮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도와준 집사람에게 깊은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한다.

2012년 겨울